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국제평화재단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동아시아재단 East Asia Foundation

주관  JEJU PEACE INSTITUTE 제주 평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협찬  KB 국민은행  만화산소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THE PURE LOTUS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2022 Beyond Conflict, Towards Peac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PROGRAM BOOK | JEJU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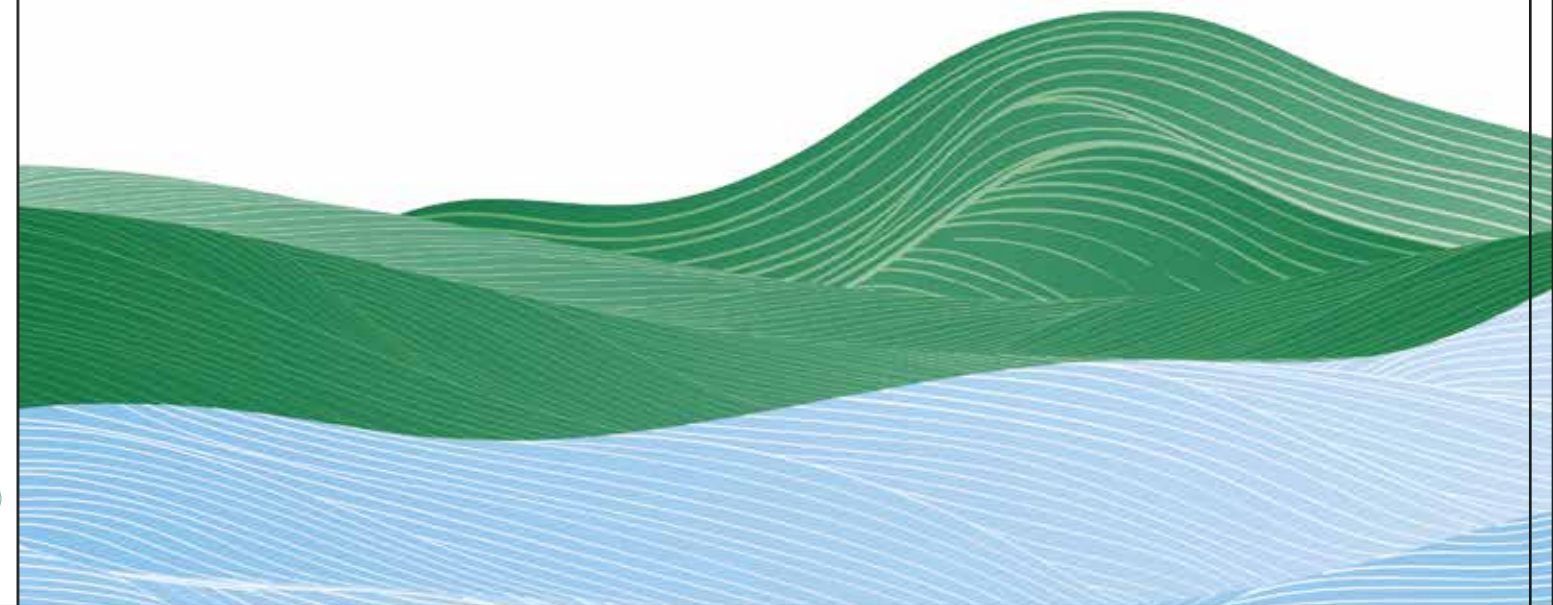
PROGRAM BOOK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2
FOR PEACE & PROSPERITY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
Beyond Conflict, Towards Peac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September 14(Wed) - 16(Fri), 2022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Jeju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

Beyond Conflict, Towards Peac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CONTENTS

인사말 Greetings	04
행사장 Venue	06
회의 일정 Program	08
주요세션 Key Sessions	21
첫째날 DAY 1	31
둘째날 DAY 2	53
셋째날 DAY 3	79
연사 Speakers	105

GREETINGS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2022년 9월 14일~16일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을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로 개최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 미중 전략경쟁, 기후변화, 자원고갈,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제주포럼은 ‘공존’과 ‘협력’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제주포럼이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공존과 협력의 의미, 사례, 그리고 그 실천방안에 대한 전 세계 지성인들의 지식과 지혜를 소개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영훈

제주포럼 조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인택

제주포럼 집행위원장
제주평화연구원장

The 17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will be held from September 14 to 16, 2022, virtually and in person, under the theme of “Beyond Conflict, Towards Peac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oday, the world is mired in multiple conflicts and crises, from the Russo-Ukrainian war to the US-China rivalry, COVID-19 pandemic and climate change. It is incumbent on u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move towards peace. Proposing coexistence and cooperation as its core agenda, the 2022 Jeju Forum seeks to chart a roadmap to peace beyond conflict and serve as a platform for public discussion.

This year’s Jeju Forum will be an opportunity for leaders, experts and the public around the world to share their insights and contribute to a collective intelligence for promoting peace through coexistence and cooperation.

We would like to welcome you to beautiful Jeju Island for the 17th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OH Young 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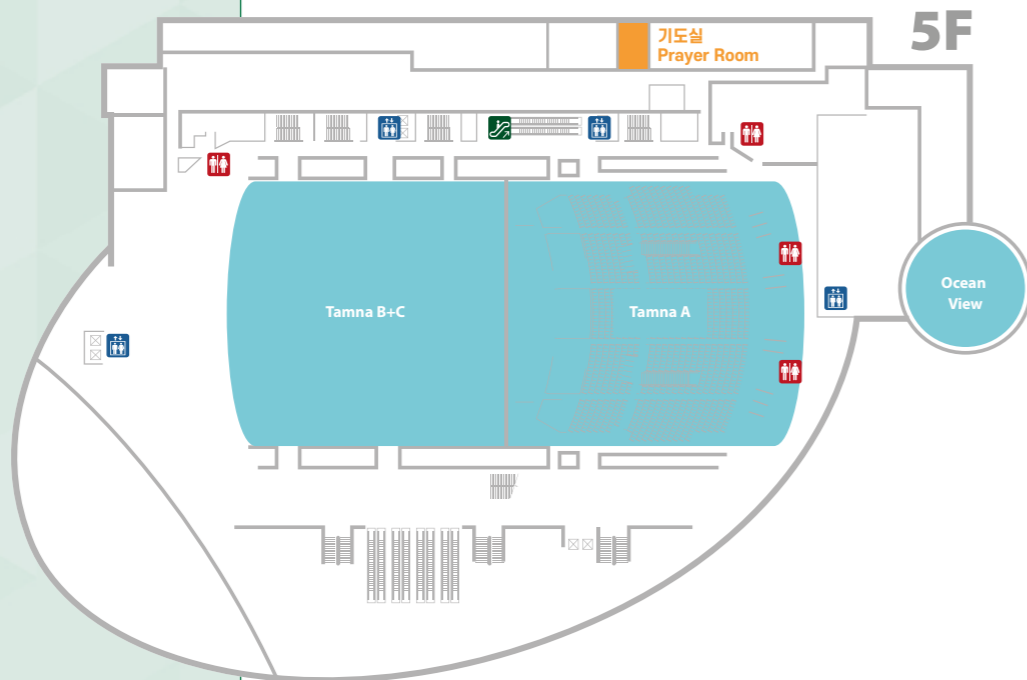
Chairman, Organizing Committee of the Jeju Forum
Govern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N Intaek

Chairman, Executive Committee of the Jeju Forum
President, Jeju Peace Institute

VENUE



5F 탐라홀A, 탐라홀B+C, 기도실, 오션뷰
 Tamna A, Tamna B+C, Prayer Room, Ocean View

- 탐라홀A Tamna A 개회식 Opening Ceremony
- 탐라홀B+C Tamna B+C 환영만찬, 공식만찬 Welcome Dinner, Official Dinner
- 기도실 Prayer Room
- 오션뷰 Ocean View VIP 오찬,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VIP Luncheon, Ambassadors' Round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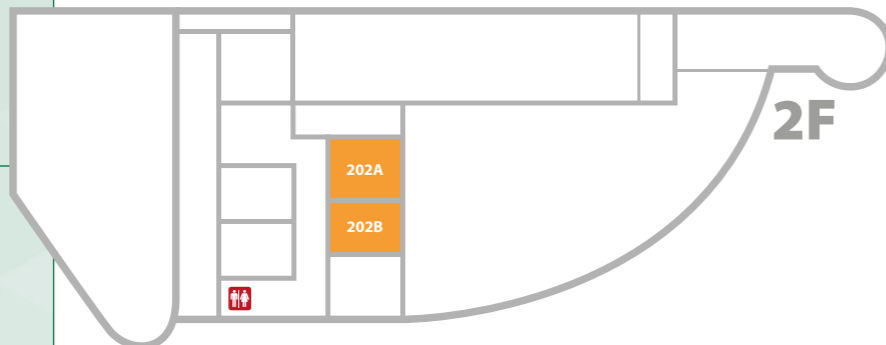
4F 401, 402



- 401 도외 프레스룸 Press Room
- 402 도내 프레스룸 Press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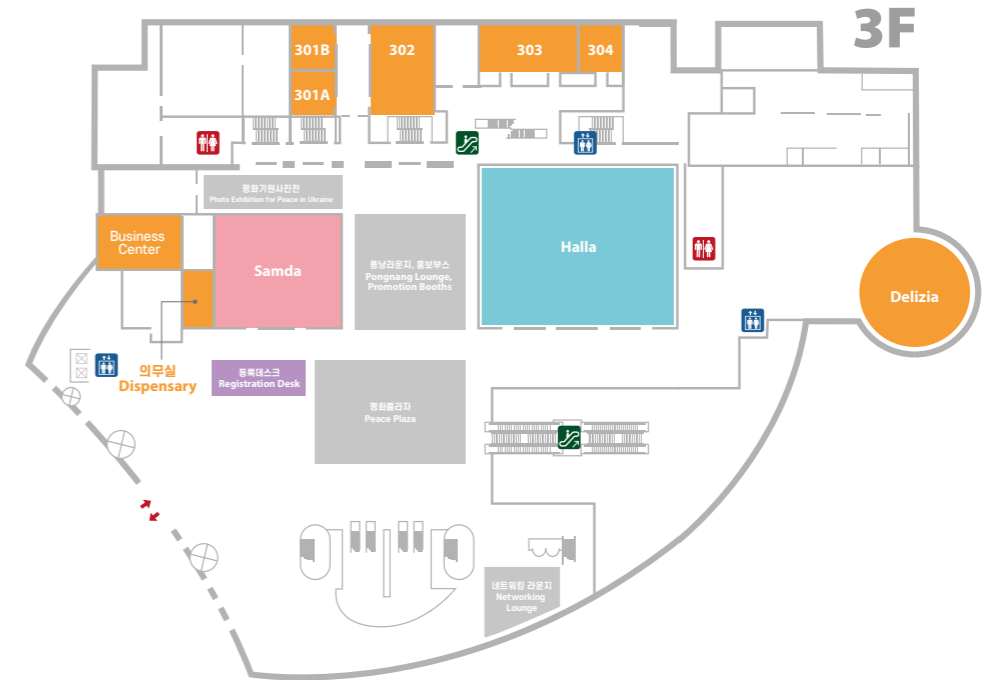
3F 한라홀, 삼다홀, 301A, 301B, 302, 303, 304, 비즈니스센터, 로비
 Halla, Samda, 301A, 301B, 302, 303, 304, Business Center, Lobby

2F 202A, 20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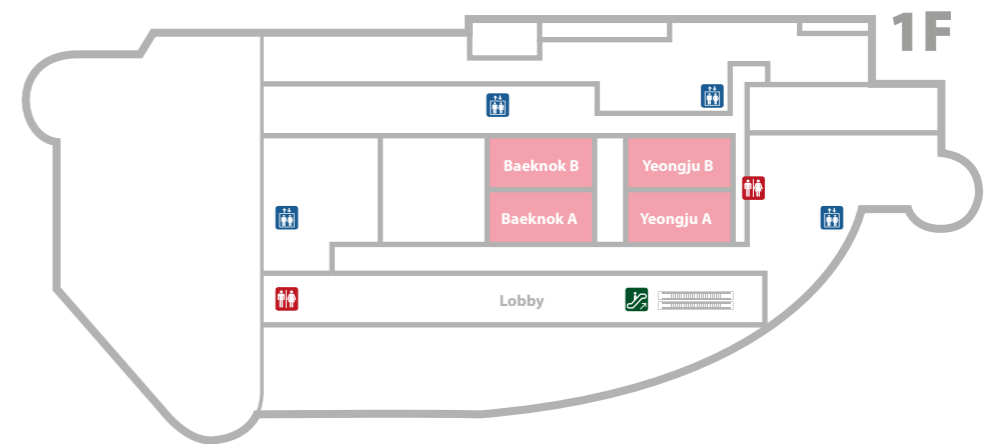


- 202A JDC 환담장 JDC Room
- 202B JPI 환담장 JPI Room

1F 영주홀A, 영주홀B, 백록홀A, 백록홀B
 Yeongju A, Yeongju B, Baeknok A, Baeknok B



- 한라홀 Halla 전체세션, 폐막세션, 동시세션 Plenary Session, Closing Session, Parallel Session
- 삼다홀 Samda 전체세션, 동시세션 Plenary Session, Parallel Session
- 301A, 301B, 302 VIP 라운지 VIP Lounge
- 로비 Lobby 등록데스크, 풍낭라운지, 홍보부스, 네트워킹 라운지, 평화플라자, 평화기원사진전 Registration Desk, Pongnang Lounge, Promotion Booths, Networking Lounge, Peace Plaza, Photo Exhibition for Peace in Ukraine
- 303 기자회견장 Press Conference Room
- 304 기관장 미팅룸 Meeting Room
- 비즈니스센터 Business Center 운영 사무국 Secretariat
- 델리자 Delizia 참가자 중식 Lunch



- 영주홀A/B Yeongju A/B 동시세션 Parallel Session
- 백록홀A/B Baeknok A/B 동시세션 Parallel Session

PROGRAM

DAY 1. 9.14 Wednesday

Time	Session	Room	Language	Video	Page
10:50 - 12:10	삶의 영역에서 시도되는 한반도평화와 공존 -두만강 국제연합도시 건설 예시를 통해- 한반도평화경제포럼	한라			32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미래 리더십 다이얼로그 한국고등교육재단	삼다			33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정책: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영주A			34
	인류의 공존과 협력 위한 공적 수어통역의 과제와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영주B			35
	경제위험도 측정 제주평화연구원	백록A			36
12:10 - 13:30	미래세대의 눈을 통해 보는 동북아의 교류 중국국제텔레비전	유투브			37
	중식				
13:30 - 14:50	접경지역에서의 개발-환경-평화 넥서스 접근 방안 모색 한국국제협력단	한라			38
	제주의 환경보전과 보존을 고려한 미래가치 디자인의 지향성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삼다			39
	미래를 그리는 청년들: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한중일 문화공동체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영주A			40
	제주4·3 정신과 세계 평화 제주국제협회	영주B			41
	한국 전문 미국 외신기자의 도전과제 제주평화연구원 / 태평양세기연구소	백록A			42

Time	Session	Room	Language	Video	Page
14:50 - 15:20	휴식				
15:20 - 16:40	한태평양평화소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제주-아세안+6 정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존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			43
	새마을운동, 공존과 협력의 열쇠 새마을재단	삼다			44
	한미동맹: 변화와 과제 그리고 기회 제주평화연구원 / 태평양세기연구소	영주A			45
	기후변화로 인한 아프리카의 정치·사회적 갈등과 평화 외교부 / 한국아프리카학회 / 유엔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	영주B			46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협력적 비핵화 방안 통일연구원	백록A			47
16:40 - 17:10	휴식				
17:10 - 18:30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평화도시들의 갈등극복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			48
	[전체세션 1]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평화포럼과 평화연구소의 역할 제주평화연구원	삼다			22
	연령친화 한중일 사회로 나아가는 스마트하고 포괄적인 해법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영주A			49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과 한국외교 제주평화연구원 / 한국외교협회	영주B			50
	남북 그린대당트와 제주·강원의 역할 국립통일교육원 강원통일교육센터(원주한라대학교) / 제주통일교육센터(제주대학교) / 제주통일미래연구원	백록A			51
18:40 - 19:40	조직위원장 주최 환영만찬	탐라 B+C			

PROGRAM

DAY 2. 9.15 Thursday

Time	Session	Room	Language	Video	Page
09:00 - 10:20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한인의 공공외교 재외동포재단	한라			54
	[전체세션 2] <노벨평화상 수상단체 초청세션> 평화를 위한 리더십과 파트너십 제주평화연구원	삼다			23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제주평화연구원 /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	영주A			55
	핵전쟁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방안: 쿠바미사일 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제주평화연구원 /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	영주B			56
	한일 관계 전환: 역사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동아시아재단	백록A			57
Green ODA를 통한 공존과 협력: GGGI의 10년을 돌아보며 외교부	백록B			58	
10:20 - 10:50	휴식				
10:50 - 12:10	개회식	탐라A			
	윤석열 정부와 한반도 평화안정 시나리오 동아시아재단	삼다			59
	전후 평화체제 및 재건의 이행방안과 국제개발협력의 관점 국제개발협력학회 / 국방대학교	백록B			60
12:10 - 13:30	중식				
13:30 - 14:50	[특별세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제주평화연구원	한라			26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한 기업의 협력과 통합 인간개발연구원	삼다			61
	전세계 인도주의 활동과 HDP(인도적지원-개발-평화) 벅서스 유엔세계식량계획	영주A			62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통일연구원	영주B			63
	신흥·핵심기술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외교의 역할 외교부	백록A			64
포용적 번영을 위한 한국-FAO 간 파트너십 및 협력 방안 FAO 한국협력전략사무소 / 국제개발협력학회 / 제주평화연구원 / 한국유엔체제학회	백록B			65	
14:50 - 15:20	휴식				

Time	Session	Room	Language	Video	Page
15:20 - 16:40	폭력에 저항하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 - 문화예술 제주특별자치도	한라			66
	공존과 협력의 미래 제주-뉴 스페이스 시대, 제주의 우주산업 정책방향- 제주연구원	삼다			67
	한-EU 라운드테이블: 혼란과 분쟁의 시대, 평화를 위한 과학기술인의 역할 제주한라대학교	영주A			68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유엔(UN)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협력 제주평화연구원 / 유엔한국협회	영주B			69
	회복탄력적 공급망 재편을 위한 한-ASEAN 파트너십의 미래 동아시아재단	백록A			70
그린데탕트 구상과 남북 접경협력 통일연구원	백록B			71	
16:40 - 17:10	[특별세션] 수교 60주년 기념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제주평화연구원	오션뷰			27
	휴식				
17:10 - 18:30	기후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 제주의 생태법인 모색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			72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자유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삼다			73
	국제협력과 공존을 위한 한일 관계의 재구축 국립외교원	영주A			74
	공존과 협력의 남북관계 패러다임 모색 통일연구원	영주B			75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아랍대사 라운드테이블: 향후 10년을 향한 한국과 아랍 간의 전략적 협력 제주평화연구원 / 한국-아랍소사이어티	백록A			28
아시아, 갈등과 폭력을 넘어 확대와 평화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백록B			76	
18:40 - 19:40	외교부장관 주최 공식만찬	탐라 B+C			
19:40 - 20:30	휴식				
20:30 - 21:50	아브라함 협정 2년: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 TRENDS Research & Advisory(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유티브			77

PROGRAM

DAY 3. 9.16 Friday

Time	Session	Room	Language	Video	Page
09:00 - 10:20	테크노플리틱스의 시대: 미-중 기술 경쟁과 한국의 선택 동아시아재단	한라			80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부상: 로드맵과 도전과제 동아시아재단	삼다			81
	조약의 프리즘을 통해 읽는 한일 역사 갈등: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영주A			82
	외신기자의 눈으로 본 동아시아 공존과 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 외교부	영주B			83
	한-EU 전략협력의 미래: 지역협력, 경제안보 그리고 가치외교 외교부 / 주한EU대표부 / 한국외대 장모네EU센터	백록A			84
10:20 - 10:50	휴식				
10:50 - 12:10	[전체세션 3] 우크라이나 사태와 강대국 정치: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과 다자주의의 미래 제주평화연구원 / 한국유엔체제학회	한라			24
	[청년세션] K-디아스포라의 기억법: LA폭동에서 공존의 방안을 찾다 청년사무국 지평선 팀	삼다			85
12:10 - 13:30	기업의 성장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조울할 것인가? 인간개발연구원	영주A			86
	하드파워의 충돌: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 동아시아재단	영주B			87
	[청년세션]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공존 없는 지구에서 살아온 동물들에게서 온 편지 청년사무국 애니바디 팀	백록A			88
13:30 - 14:50	중식				
13:30 - 14:50	JDC 노인도서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라			89
	갈등의 시대, 국제금융의 미래와 동북아 협력방안 제주한라대학교	삼다			90

Time	Session	Room	Language	Video	Page
13:30 - 14:50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고령장애인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영주A			91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시사점 및 향후 계획 제주국제연수센터	영주B			92
	그린테크를 활용한 넷제로 달성: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 제주특별자치도 /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 THE AI	백록A			93
14:50 - 15:20	휴식				
15:20 - 16:40	글로벌 위기 속 스타트업을 통한 저성장시대 혁신 전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라			94
	'미래와의 공존' ESG와 한국 기업 경영 한국경제매거진	삼다			95
	가치기반 기술블록화 시대의 생존 전략: 공존을 위한 과학기술외교의 방향 외교부	영주A			96
	협력을 넘어: 공존의 시대를 위한 성찰과 연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영주B			97
16:40 - 17:10	공존, 공진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 서귀포시 /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백록A			98
	16:40 - 17:10	휴식			
	[폐막세션] 한국의 과거사 해결과 제주4·3 그리고 국제연대-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4·3연구소	한라			29
17:10 - 18:30	글로벌 에너지·자원 갈등 심화와 한-아프리카 협력의 미래 한-아프리카재단	삼다			99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사이버안보 규범의 현황과 쟁점 외교부 /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영주A			100
	[청년세션] 평화롭고 포용적인 내일의 도시 개발 제주평화연구원 / 제주국제연수센터	영주B			101
[청년세션] 난생처음: 난민과 국민, 공존과 협력의 시작 청년사무국 푸른 동백 팀	백록A			102	

PROGRAM

DAY 1. 9.14 Wednesday

Time	Session	Room	Language	Video	Page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ttempted in the Realm of Life - Through the Example of the Tumen River International Joint City Construction - Korea Peninsula Peace Economy Forum	Halla			32
	Korea-China Future Leadership Dialogue for Peace and Prosperity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Samda			33
10:50 - 12:10	Public Diplomacy Policy of Korea as a Global Pivotal State: Towards Peace and Coexistence The Korea Foundation	Yeongju A			34
	The Task and Role of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for the Human Coexistence and Cooperat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Yeongju B			35
	Measuring Global Economic Risk Jeju Peace Institute	Baeknok A			36
12:10 - 13:30	Northeast Asia Exchanges: Through the Eyes of the Future Generation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YouTube			37
	Lunch				
	Integrated Approach for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eace Nexus in Borderlands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alla			38
	The Direction of Future Values in the Design Industry When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he Ecological Preservation of Jeju Island Jeju Business Agency	Samda			39
13:30 - 14:50	Youth for Future: Embracing Shared Culture in China-Japan-Korea for a Peaceful and Cooperative Northeast Asia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Yeongju A			40
	Jeju4·3 Spirit and World Peace Jeju Global Society Association	Yeongju B			41
	Challenges American Journalists Face in Covering Foreign Countries for American Audiences Jeju Peace Institute / Pacific Century Institute	Baeknok A			42

Time	Session	Room	Language	Video	Page
14:50 - 15:20	Break				
	Pacific Rim Park City Members Conference: How to Build Sustainable Peace & Coexistence by Cooperating with Jeju-ASEAN+6 Polic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lla			43
	Saemaul Undong, the Key for Glob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Saemaul Foundation	Samda			44
15:20 - 16:40	The ROK-US Alliance: Changes, Challenges, Opportunities Jeju Peace Institute / Pacific Century Institute	Yeongju A			45
	Climate Change, Socio-Political Conflict, and Peace in Afric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Yeongju B			46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nd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Baeknok A			47
16:40 - 17:10	Break				
	Global Peace Cities Solidarity: The Role of Peace Cities at the International Society by Overcoming Conflic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lla			48
	[Plenary Session 1] Towards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Forums, Peace Institutes, and the Construction of Peace Jeju Peace Institute	Samda			22
17:10 - 18:30	China-Japan-Korea Cooperation for Smart and Inclusive Solutions Towards an Age-Friendly Society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Yeongju A			49
	Lessons from the Ukraine War for the Korean Diplomacy Jeju Peace Institute /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Yeongju B			50
	Inter-Korean Green Detente and the Role of Jeju & Gangwon Gangwon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 Jeju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 Jeju Institute for Korean Unification	Baeknok A			51
18:40 - 19:40	Welcome Dinner Hosted by Chairman of Organizing Committee of Jeju Forum	Tamna B+C			

PROGRAM

DAY 2. 9.15 Thursday

Time	Session	Room	Language	Video	Page
	Global Korean Public Diplomacy for Peace and Coexistenc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Halla			54
	[Plenary Session 2] Leadership and Partnership in the Quest for Peace Jeju Peace Institute	Samda			23
09:00 - 10:20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Jeju Peace Institute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KPP)	Yeongju A			55
	Preventing Nuclear War Through Crisis Management: What We Can Learn From the Cuban Missile Crisis Today Jeju Peace Institute /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Yeongju B			56
	Korea-Japan Relations in Transition: Are Setbacks over History Surmountable? East Asia Foundation	Baeknok A			57
	Cooperation and Co-existence Through Green ODA: GGGI's Decade and Beyo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aeknok B			58
10:20 - 10:50	Break				
	Opening Ceremony	Tamna A			
10:50 - 12:10	The Yoon Administration & Scenario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Foundation	Samda			59
	Post-war Reconstruction and Peace-Building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Baeknok B			60
12:10 - 13:30	Lunch				
	[Special Session] Towards Forward-Looking Korea-Japan Relations Jeju Peace Institute	Halla			26
13:30 - 14:50	Corporate Collaboration and Integration for the Planet Human Development Institute	Samda			61
	Global Humanitarian Action and the HDP Nexus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Yeongju A			62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Russia-Ukraine Wa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Yeongju B			63
	Diplomacy for Promoting Human Capital Exchanges in Emerging and Critical Technolog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aeknok A			64
	Partnership Between FAO and ROK for Inclusive Prosperity FAO 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in the Republic of Korea /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Jeju Peace Institute / Korea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Baeknok B			65
14:50 - 15:20	Break				

Time	Session	Room	Language	Video	Page
	A Gentle but Powerful Force Against Violence, Arts & Cultur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lla			66
	Jeju, the Future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 The Policy Direction of Jeju's Space Industry in the New Space Era - Jeju Research Institute	Samda			67
15:20 - 16:40	Korea-EU Roundtable: The Role of Scientists for Peace in the Era of Chaos and Divisions Cheju Halla University	Yeongju A			68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UN) for Peace &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Jeju Peace Institute /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Yeongju B			69
	The Future of the R.O.K.-ASEAN Partnership for Building a Resilient Supply Chain East Asia Foundation	Baeknok A			70
	A Green Détente Initiativ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in Border Area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Baeknok B			71
	[Special Session] The Diamond Jubilee Ambassadors' Roundtable Jeju Peace Institute	Ocean View			27
16:40 - 17:10	Break				
17:10 - 18:30	Coexistence Model of Nature and Humans to Overcome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Focusing on Jeju's Eco Legal Pers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lla			72
	A Special Educational Freedom Zone that Starts a New Local Era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amda			73
	Reconstructing Korea-Japan Rel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Yeongju A			74
	Seeking a Paradigm for Inter-Korean Relations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Yeongju B			75
	[Ambassadors' Roundtable] Arab Ambassadors' Roundtable: Strategic Cooperation for the Next Decade Between Korea and Arab Jeju Peace Institute / Korea-Arab Society	Baeknok A			28
	Asia, from Conflict and Violence to Hospitality and Pea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Baeknok B			76
18:40 - 19:40	Official Dinner Hosted b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amna B+C			
19:40 - 20:30	Break				
20:30 - 21:50	The Abraham Accords Two Years Later: Assessing the Impact and What Lies Ahead TRENDS Research & Advisory(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YouTube			77

PROGRAM

DAY 3. 9.16 Friday

Time	Session	Room	Language	Video	Page
	The Era of Techno-Politics: U.S.-China Tech Rivalry and South Korea's Choice East Asia Foundation	Halla			80
	Towar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Roadmap and Challenges East Asia Foundation	Samda			81
09:00 - 10:20	Reading Korea-Japan Conflicts Through the Prism of the Treaties: Towards the Way of Coexistenc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Yeongju A			82
	The Role of Korea in Coexistence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from Foreign Journalists' Perspectiv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Yeongju B			83
	The Future of Korea-EU Strategic Cooperation: Regional Cooperation, Economic Security and Value Diploma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EU Delegation to ROK / Hufs Jean Monnet Centre of Excellence	Baeknok A			84
10:20 - 10:50	Break				
	[Plenary Session 3] Ukraine Crisis and Politics of the Great Power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Jeju Peace Institute / Korea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Halla			24
	[Youth Session] K-diaspora Mnemonic: Searching Ultimate Measures Through 'LA Riots' for Coexistence Youth Secretariat / Horizon	Samda			85
10:50 - 12:10	How Will You Balance Corporate Growth with Social Responsibility? Human Development Institute	Yeongju A			86
	Hard Powers in Collision: The Role of Public Diplomacy in Resolving the Conflicts East Asia Foundation	Yeongju B			87
	[Youth Session] Is Ani-Body There?: A Letter from Animals That Have Lived in Earth Without Co-Existence Youth Secretariat / Ani-Body	Baeknok A			88
12:10 - 13:30	Lunch				
	JDC Old Man's Library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Halla			89
13:30 - 14:50	In the Era of Conflicts, the Future of International Finance and Cooperation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Cheju Halla University	Samda			90

Time	Session	Room	Language	Video	Page
	The Policy Development for Governance to Support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Beyond the Border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Yeongju A			91
13:30 - 14:50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Peace: Implications and Ways Forward UNITAR CIFAL Jeju / Jeju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Yeongju B			92
	Achieving Net-Zero Using Green Technology: The Future of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Industr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I and Ethics / THE AI	Baeknok A			93
14:50 - 15:20	Break				
	Innovation Strategy Against Global Crisis: Start-ups to Resolve Muted Growth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Halla			94
	'Coexistence with the Future' ESG and the Korean Corporate Management The Korea Economic Magazine	Samda			95
15:20 - 16:40	Surviving in the Era of Technology Alliance Blocks: Strategic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for Coexiste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Yeongju A			96
	Beyond Hate: Reflections and Solidarity Towards the Era of Co-existen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Yeongju B			97
	A Cultural City as a Platform for Coexistence and Co-evolution Seogwipo City / Seogwipo City Centre for Cities of Culture	Baeknok A			98
16:40 - 17:10	Break				
	[Closing Session] Resolving Korea's Past History, Jeju4·3 and International Solidarity-Efforts for Peace and Coexisten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Jeju4·3 Research Institute	Halla			29
	The Korea-Africa Cooperation in Addressing Global Energy Resource Crisis The Korea-Africa Foundation	Samda			99
17:10 - 18:30	Building up Peaceful Cyberspace: Trends and Issues of Cybersecurity Norms and Law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Cyber Law Centre of Korea University	Yeongju A			100
	[Youth Session] Shaping Peaceful and Inclusive Cities of Tomorrow Jeju Peace Institute / UNITAR CIFAL Jeju / Jeju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Yeongju B			101
	[Youth Session] For the First Time in Refugee Life: The Beginning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Between Refugees and the Citizen Youth Secretariat / Blue Camellia	Baeknok A			102

JEJU FORUM

KEY SESSIONS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평화포럼과 평화연구소의 역할

Towards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Forums, Peace Institutes, and the Construction of Peace

September 14
(Wed)
-
17:10 - 18:30
-
Samda



이 세션의 제목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와 “평화 건설”은 의도적인 선택이다. 전자는 Galtung의 책 제목에서 가져왔다. “이상적” 요소의 중요성을 암시하기 위해 평화를 “만들다” 또는 “건설하다” 대신에 평화의 “구축”이 사용되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마음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개념적 요소는 평화가 존재하기 위한 여러 조건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네스코 현장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바, 평화를 방어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마음과 정신에서 평화를 위한 싸움에서 지면 평화를 지속할 기회가 일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포럼과 평화연구소는 평화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화 포럼과 평화 연구소에서 지역 및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과 일상 생활에서 평화를 더 깊이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평화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어 왔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파리평화포럼이나 바젤평화포럼과 같은 세계적인 평화 포럼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평화 포럼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평화포럼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평화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또한 평화 연구소의 책임연구자들이 평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평화 연구소가 평화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배울 것이다. 아울러 향후 제주포럼에 대한 제언도 기대된다.

For the title of this session, “Peace by Peaceful Means” and “Construction of Peace” are intentional choices. The former is from the title of Galtung’s book; “construction” of peace was used instead of “making” or “building” peace to imply the importance of “ideational” factors. Among many conditions for the existence of peace, ideational factors matter most since all human behaviors begin from the mind and heart, as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of UNESCO declares that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If we lose battles for peace from the mind and heart, there is no chance for enduring peace from the beginning. In this context, peace forums and peace institutes have played critical roles for the substantiation of peace. Through discussions and talks about how to achieve peace locally and globally and how to promote peace more deeply in our daily lives in peace forums and peace institutes, we can manage to figure out better ways to achieve and enhance peace. In this session, we will hear from the very people who manage peace forums, such as Paris Peace Forum and Basel Peace Forum, how peace forums have evolved, what is the purpose of the forums, and how they operates, who participates the forums, and so forth. Moreover, we will also learn from the directors of peace institutes such as the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PRIO), Stoco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ute (SIPRI), and the Jeju Peace Institute (JPI) that how they define peace and how their peace institutes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peace. On top of that, we also expect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Jeju Forums.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김경학 KIM Kyung Hak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Chairma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하영선 HA Young-sun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Chairman, East Asia Institute
파비엔 하라 Fabienne HARA	파리평화포럼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Paris Peace Forum
이자벨 프린징 Isabel PRINZING	바젤평화포럼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Project Coordinator, Basel Peace Forum
헨릭 우르달 Henrik URDAL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소장 Director,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댄 스미스 Dan SMITH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 Director,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임해용 LIM Haeyong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Director of Research Department, Jeju Peace Institute

<노벨평화상 수상단체 초청세션>
평화를 위한 리더십과 파트너십

Leadership and Partnership in the Quest for Peace

지뢰·집속무기·핵무기 금지부터 민간 평화구축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는 NGO와 정부의 리더십, 그리고 이들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과 파트너십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동기에 대한 분석은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이다. 이는 시민사회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ICBL, ICAN의 활동경험과 민간평화구축의 경험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의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그 지식이 향후 군축, 평화구축 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한다.

Civil society initiatives for peace, from banning landmines, cluster weapons, and nuclear weapons to civilian peacebuilding,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leadership of NGOs and governments, and the partnership between them. Exactly who led whom, when and why, and exactly who partnered with whom, when, and why are interesting and important questions. They may be the key to understanding--and potentially replicating in other areas--the success of civil society initiatives. In this session, we will explore the leadership and partnership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ountries through the experience of ICBL, ICAN and civilian peacebuilding, and discuss how that knowledge can be applied to future disarmament, peacebuilding, and other areas.

유현석 YU Hyun-seok	경희대학교 교수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로렌트 고첼 Laurent GOETSCHER	스위스피스 소장 Director, Swisspeace
헥토르 게라 Hector GUERRA	지뢰금지국제운동 대표 Director,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Cluster Munition Coalition (ICBL-CMC)
마리아 유지니아 비야레알 Maria Eugenia VILLARREAL	핵무기폐기국제운동 운영위원 International Steering Group Member,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Dagmar SCHMIDT TARTAGLI	주한 스위스대사 Ambassador of Switzerland to the ROK

September 15
(Thu)
-
09:00 - 10:20
-
Samda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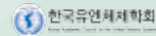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사태와 강대국 정치: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과 다자주의의 미래

Ukraine Crisis and Politics of the Great Power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September 16
(Fri)

10:50 - 12:10

Halla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토론/진행
Discussant/MC

다자주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랫동안 초강대국 정치로 얼룩져 온 유엔 메커니즘이 여전히 세계 평화와 안보에 연관성을 갖는가. 미중 전략경쟁으로 가열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자유주의와 비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과 갈등은 어떻게 진행될까. 기후변화, 자원안보, 에너지 문제, 인권(북한인권 포함) 등 국제사회가 함께 직면한 ‘신흥 안보’ 이슈가 이들 국가에 협력할 수 있는 공간 혹은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까. 본 세션에서는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과 다자주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What negative or positive effects will multilateralism have on Russia's invasion of Ukraine? Does the UN mechanism, which has long been stained with superpower politics, still have relevance for global peace and security? How will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liberalism and non-liberalism, or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heated up by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aggravated by the Ukraine crisis, proceed? Will the 'emerging security' issues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faces together, such as climate change, resource security, energy issues, and human rights (includ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rovide these countries with a room (a motivation) to cooperate? In this session, we will discus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현인택 HYUN In-Taek	전 통일부장관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리즈 호워드 Lise M. HOWARD	유엔체제학회 회장 /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President,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 Professor, Georgetown University
타카히로 신요 Takahiro SHINYO	일본유엔체제학회 회장 / 간세인가쿠인대학교 학장·교수 JACUNS President / Dean and Professor, Kwansei Gakuin University
이신화 LEE Shin-wha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 고려대 교수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KACUNS President /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김인한 KIM Inhan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백우열 PAIK Wooyeal	연세대학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메이슨 리치 Mason RICHEY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임해용 LIM Haeyong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Director of Research Department, Jeju Peace Institute
최은미 CHOI Eunmi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Towards Forward-Looking Korea-Japan Relations

September 15 (Thu)

13:30 - 14:50

Halla



개회사
Opening Remarks

환영사
Welcoming Remarks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기조연설
Keynote

좌장
Moderator

토론
Speaker

한일관계를 논의할 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악화된 한일갈등이 경제·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다. 반면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가 감지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한일 양국에게는 정체된 양국 관계의 정상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한 관계 재구축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과연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한일 신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세션에서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한일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미래 공동 비전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When discussing Korea-Japan relations, forging a future-oriented relationship is frequently put on the table. However, as the Korea-Japan conflict, which has worsened over the past few years, has spiraled into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the two countries have not discussed future-oriented relations for a long time. Meanwhil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have been detected such as the escalation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the outbreak of Ukraine War. Against this backdrop, there has been a more urgent need for Korea and Japan to normalize the strained bilateral relations and rebuild the relationship for a co-prosperous future. Will Korea's Yoon administration and Japan's Kishida administration be able to open a new era for the two countries? This session aims to seek ways to improve the bilateral relations, and to have candid discussion on future joint vision that Korea and Japan can share.

정진석 CHUNG Jinsuk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Deputy Speaker of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다케다 료타 TAKEDA Ryota	일본 중의원 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오영훈 OH Young Hun	제주특별자치도지사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아이보시 코이치 AIBOSHI Koichi	주한 일본대사 Ambassador of Japan to the ROK
최상용 CHOI Sang Yong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이준규 LEE Joongyu	한국외교협회 회장 Chairman,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하마치 마사카즈 HAMACHI Masakazu	일본 중의원 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윤호중 YUN Hojung	대한민국 국회의원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나카소네 야스타카 NAKASONE Yasutaka	일본 중의원 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김학용 KIM Hackyong	대한민국 국회의원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시오무라 아야카 SHIOMURA Ayaka	일본 참의원 의원 House of Councilors,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of Japan
김한정 KIM Hanjung	대한민국 국회의원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수교 60주년 기념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The Diamond Jubilee Ambassadors' Roundtable

1962년은 한국 외교사에 있어서 특별한 해이다. 건국부터 1961년까지 한국이 수교한 국가는 불과 22개 국가에 불과하였으나, 1962년에는 한해에 무려 28개 국가와 국교를 수립하였다. 한국은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난 60년간 외교적, 경제적으로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하였고, 양국 간 교류협력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번 특별세션에서는 1962년 국교를 맺은 국가들의 주한대사를 초청하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지난 60년을 회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year 1962 is a special year in the history of Korean diplomacy. From its foundation to 1961,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only 22 countries. But in 1962,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a whopping number of 28 countries. Based on partnership with these countries, Korea achieved remarkable diplomatic and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60 years, and bilate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have dramatically increased. In this special session, we will invite ambassadors of the countries that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Korea in 1962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and look back on the past six decades for seeking a joint vision for a peaceful and prosperous future.

마상윤 MA Sang Yoon	가톨릭대학교 교수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서정하 SUH Chung Ha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Vice Chairman,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사미 알사드한 Sami M. ALSADHAN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o the ROK
아살 앓탈 ASAL Al-Tal	주한 요르단대사 Ambassador of Jordan to the ROK
페데리코 알베르토 쿠에요 까밀로 Federico Alberto CUELLO CAMILO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 Ambassador of the Dominican Republic to the ROK
샤픽 하샤디 Chafik RACHAD	주한 모로코대사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Morocco to the ROK
조니 레이노소 Johnny D. REINOSO-VÁSQUEZ	주한 에콰도르대사관 공관장 Chief of the Diplomatic Mission, Embassy of the Republic of Ecuador to the ROK
아키바 토르 Akiva TOR	주한 이스라엘대사 Ambassador of Israel to the ROK
필립 터너 Philip TURNER	주한 뉴질랜드대사 Ambassador of New Zealand to the ROK

September 15 (Thu)

15:20 - 16:40

Ocean View



기조발표
Keynote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AMBASSADORS' ROUNDTABLE

**아랍대사 라운드테이블:
향후 10년을 향한 한국과 아랍 간의 전략적 협력**

**Arab Ambassadors' Roundtable:
Strategic Cooperation for the Next Decade Between Korea and Arab**

**September 15
(Thu)
-
17:10 - 18:30
-
Baeknok A**



**좌장
Moderator**
**개회사
Opening Remarks**
**환영사
Welcoming Remarks**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최근 국제정세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였다. 미-중 간 전략적 대립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시도 그리고 이란 핵 협상 전망의 불예측성은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중동 국가의 전통적 외교 노선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 아랍국가들은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현대화의 기초를 탄탄히 구축해 왔으며, 아울러 미래 준비를 위해 산업의 다양화, 첨단화를 과감히 추진하고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아랍대사 라운드테이블이 마련되었는 바, 주한 아랍대사 및 아랍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대사 그리고 제3국 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동과 아랍의 외교정책 방향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10년을 향한 한-아랍 간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vast change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Strategic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ussia's attempts to expand its sphere of influence, and the unpredictability of the prospects for the Iran nuclear issue have heightened global insecurity. Furthermore, the recent crisis in Ukraine has begun to show signs of a change in the traditional diplomatic lines of Middle Easter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Arab countries have built a solid foundation for modernization based on oil resources, and are also boldly pushing forward with industry diversification and modernization to face the future. With such a background, the Arab ambassadors' roundtable is organized. The Arab ambassadors to Korea, former Korean ambassador to the Arab world and the ambassador from a third country who formerly worked in the Arab world assemble to analyze the direction of foreign policy in the Middle East and the Arab world and to seek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Arab world for the next 10 years.

이희수 LEE Hee Soo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Emeritus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마영삼 MA Youngsam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Korea-Arab Society
김장현 KIM Jang Hyun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Director General for African and Middle Easter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샤픽 하사디 Chafik RACHAD	주한 모로코대사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Morocco to the ROK
칼레드 압델 라만 Khaled ABDELRAHMAN	주한 이집트대사 Ambassador of Arab Republic of Egypt to the ROK
홍영기 HONG Youngki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Ambassador for Polar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압둘라 세이프 알-누아이미 Abdulla Saif AL NUAIMI	주한 UAE대사 Ambassador of U.A.E to the ROK
페데리코 알베르토 쿠에요 까밀로 Federico Alberto CUELLO CAMILO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 Ambassador of the Dominican Republic to the ROK

**한국의 과거사 해결과 제주4·3 그리고 국제연대-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

**Resolving Korea's Past History, Jeju4·3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Efforts for Peace and Coexistence**

제주4·3은 국가폭력에 의해 깊은 상처를 남긴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적 사건이다. 제주4·3은 끊임없는 진실규명 과정을 통해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7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과 갈등으로 여전히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4·3세션 <한국의 과거사 해결과 제주4·3 그리고 국제연대-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에서는 과거사 사례와 해법, 공존과 평화를 위한 연대를 전망해 본다.

Jeju4·3 is the most tragic event in modern Korean history, leaving deep scars as a result of the state violence. Through a continuous effort in seeking the truth, the process of redressing Jeju4·3 has become an exceptional model among past wrongdoing cases. However, even after 70 years, it is still an ongoing process. Peace in the global world is often threatened by various conflicts and disputes, such as the recent Ukraine War. In this Jeju4·3 Session, titled <Resolving Korea's Past History, Jeju4·3 and International Solidarity-Efforts for Peace and Coexistence>, we will discuss various historical grievance cases and resolutions, as well as solidarity for coexistence and peace.

허호준 HEO Ho Jun	한겨레 선임기자 Journalist, The Hankyoreh
이규배 LEE Kyu Bae	제주4·3연구소 이사장 Chairman of the Board, Jeju4·3 Research Institute
오영훈 OH Young Hun	제주특별자치도지사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나카노 토시오 NAKANO Toshio	도쿄외국어대학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존 에퍼제시 John R. EPERJESI	경희대학교 교수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문경수 MUN Gyong Su	리츠메이칸대학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Ritsumeikan University
김민환 KIM Min Hwan	한신대학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CLOSING SESSION

**September 16
(Fri)
-
17:10 - 18:30
-
Halla**



**좌장
Moderator**
**개회사
Opening Remarks**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기조연설
Keynote**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SEPTEMBER 14(WED)

DAY 1



삶의 영역에서 시도되는 한반도평화와 공존 -두만강 국제연합도시 건설 예시를 통해-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ttempted in the Realm of Life
- Through the Example of the Tumen River International Joint City Construction -**

September 14
(Wed)

10:50 - 12:10

Halla



좌장
Moderator

기조연설
Keynote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본 세션은 외교와 안보 중심의 남북관계를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영역으로 확대시켜나감으로써 평화를 소극적 평화영역에서 적극적 평화영역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을 국제연합 도시 건설이라는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전쟁이 멈춘 상태, 소극적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는 전쟁 재발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남북 양측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시도하였지만, 대부분은 외교 안보적 해결에 의존했고 주제 역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세션은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공존·공동 번영할 수 있는 이상적 모델로써 두만강 유역에 다국적연합도시 건설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가는 비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의 시도를 구체화해본다. 참여 주제로서 이 분야의 청년 전문가들과 기성세대 전문가들의 협력사업의 형태로 세션을 조직화하고 토론자로서 한국건축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기관인 건축가협회 회장과 건축사협회 회장인 토론자로 참여, 각 기관이 축적한 건축 분야의 남북협력방안, 도시로써 만들어가는 공존과 공동번영을 모색한다. 아울러 북한경제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방안이 갖는 의미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본 세션은 평화를 직접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누릴 세대인 청년 세대들의 참여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의 공동참여,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만들어 나갈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평화구축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보된 문제의식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We want to show, through the case of joint nations city construction, a process of transforming peace from a passive peace realm to an active peace realm by expanding inter-Korean relations centered on diplomacy and security into areas related to the lives of citizens.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ried to achieve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ost depended on diplomatic and security solutions. Actors are limited and also operating under government control. So We propose the new way, the construction of a multinational united city in the Tuman River basin as an ideal model for th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could be also the new model as building 'active peace' in Korean peninsula. Through this, we hope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made in various ways not only architecture, but also various attempts such as culture, sports, and economy etc. And it should start with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the realm of life, not just diplomacy and security.

김일용 KIM Il Yong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 Korea Peace Economy Forum
이상현 LEE Sanghyun	명지대학교 교수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이진우 LEE Jinwoo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차장 PJ Designer, Space Group
박정연 BAHK Jungyeon	그리드에이건축사사무소 대표 Representative, Grid-A Architecture
최수영 CHOI Suyoung	수영아틀리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Architect, Suyoung Atelier
박근송 PIAO Gensong	창원대학교 교수 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임강택 LIM Kang Taeg	한반도경제협력원 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 Korea Economic Cooperation Institute
천의영 CHUN Eui Young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President,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석정훈 SEOK Junghoon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안경훈 David AHN	한반도평화경제포럼 부이사장 Vice President, Korea Peace Economy Forum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미래 리더십 다이얼로그

Korea-China Future Leadership Dialogue for Peace and Prosperity

September 14
(Wed)

10:50 - 12:10

Samda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1992년은 한국과 중국이 처음 수교를 맺은 해이며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재단에서는 지난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Korea-China LEADership Program'을 출범하였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격동의 국제정세 속에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모색의 시간을 위해, 이 세션에서는 한국 청년들과 한-중 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경과 세대를 넘는 논의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더욱 건설적인 교류를 위한 창의적인 솔루션에 대해 탐구할 예정이다.

1992 is the year when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for the first time, and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2012, KFAS launched the 'Korea-China LEADership Program' and selected outstanding talents from the two countries as participants to promote a deep understanding of each other and build future-oriented relations. Amid unpredictable international events, in search of a brighter future, young Korean students and experts on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gather together to understand 'What determines the future of Korea and China' and explore creative solutions for more constructive exchanges in the future.

최병일 CHOI Byung Il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이욱연 LEE Wook Yon	서강대학교 교수 Professor, Sogang University
한석희 HAN Sukhee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김대영 KIM Daeyoung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학부생 Undergraduate Student, Korea University
김태윤 KIM Taeyoon	서울대학교 학부생 Under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용우 YI Yongwoo	서울대학교 학부생 Under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정책: 평화와 공존을 위하여

Public Diplomacy Policy of Korea as a Global Pivotal State: Towards Peace and Coexistence

September 14
(Wed)
-
10:50 - 12:10
-
Yeongju A



KOREA KF
FOUNDATION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여 보편가치와 신뢰 기반의 외교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가치를 공유하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공공외교정책을 수립하고 공공외교사업으로 시행할지 논의해 본다.

Diplomacy based on universal values and trust, and the coalition among the like-minded countrie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facing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e US-China rivalry, the Russia-Ukrainian war, the COVID-19 pandemic, climate change, etc. In this strategic environment, South Korea pursues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strengthened as a global pivotal state. In this session, we will examine South Korea's public diplomacy policy to meet the current needs and discuss how South Korea contributes to global agenda and strengthen strategic global networks through public diplomacy.

좌장
Moderator
개회사
Opening Remarks
발표
Speaker

이정민 LEE Chung Min	카이스트 융합연구원 교수 Professor, Institute of Security Convergence, KAIST
이근 LEE Geun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President, Korea Foundation
이상화 LEE Sang-hwa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Ambassador and Deputy Minister for Public Diploma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김태환 KIM Taehwan	국립외교원 교수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아이한카디르 AYHAN Kadir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이왕희 LEE Wang Hwi	아주대학교 교수 Professor, Ajou University

인류의 공존과 협력 위한 공적 수어통역의 과제와 역할

The Task and Role of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for the Human Coexistence and Cooperation

September 14
(Wed)
-
10:50 - 12:10
-
Yeongju B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재난 정보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됐다. '정보의 소외'는 일상의 불편과 위기 대응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갈등과 고립을 심화시킨다. 그중에서도 재난 발생 즉시 정보 안내를 받기 어려운 농인들의 '정보의 소외'는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생존권, 인격권, 사회참여권 등 각종 인권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음성언어 중심의 주류사회에서 수어 중심의 농인들은 주류 정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농인들이 정보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음성언어에 의존하는 각종 정보를 문자언어나 수어로 대체하는 등의 기술적 지원이 필수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모든 계층의 공존과 협력을 위한 '공적 수어 통역'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있다. 재난 등 공적 정보에 소외받는 제주도민들이 없도록 모든 도정 정책에 수어 통역을 입혀 나가는 것이다. 이는 선도적인 모범 사례로서 정부와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공적 수어 통역'은 단순 복지 서비스를 넘어 공적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보장된 인권을 통하여 농인의 사회 참여 확대하는 등 세계평화와 인권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가족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할 때 평화적 세계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호소한다. '공적 수어 통역' 정책 확대가 세계인권선언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농인들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권 확보를 위하여 제주의 '공적 수어 통역'이 제주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the COVID-19 era, 'Alienation of Information Vulnerable Class from Disaster Information'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The alienation of information' aggravates social strife and isolation beyond daily inconvenience and difficulty in responding to crises. Among them, the "The alienation of information" of hearing-impaired people, who are unable to receive information immediately after a disaster, are threatened to various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survive, personal rights, and social participation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cycle. In a mainstream society centered on speech language, the deaf people centered on sign language are often completely alienated from mainstream information. As a result, technical support is essential, such as replacing various information that relies on voice language with text language or sign language so that hearing-impaired people do not suffer from information discrimination. Jeju Island recognizes these problems preemptively and is pioneering a new area of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for th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of all classes. Jeju applie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to all provincial government policies so that Jeju residents are not alienated from public information such as disasters. This is a leading example and is drawing attention from the government and other local governments. Henceforward,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hould be another channel to actualize world peace and human rights by guaranteeing human rights through bridging the public information gap beyond simple welfare services, and expanding the participation of hearing-impaired peopl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ppeals that the foundation of a peaceful world is laid when the equal rights of all human families are recognize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policy implies institution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realiz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is session, we will seek the direction of "Public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to be used all over the world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and secure the rights to participate of the hearing-impaired people.

이준우 LEE Jun-woo	강남대학교 교수 Professor, Kangnam University
김희현 KIM Hee-hyon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Vice Governor for Political Affair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안영희 AHN Young-hoey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서초구수어통역센터 센터장 Hea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enter in Seocho-gu, Seoul
고영인 KO Young-in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조희경 CHO Hee-kyung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강사 Instructor, Korea Nazarene University
김철환 KIM Cheolhwan	구로구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사 Sign Language Interpreter, Guro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enter
데브라 러셀 Debra RUSSELL	세계수어통역협회 명예회장 Honorary President, The World Association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경제위험도 측정 Measuring Global Economic Risk

September 14
(Wed)
-
10:50 - 12:10
-
Baeknok A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타격을 입고 인플레이션이 나날이 심해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일국이 처한 경제위험도는 더 체계적으로, 양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위험도 지수를 산출하여 국가별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작년 제16회 제주포럼에서 국가경제회복탄력지수를 연구하여 국가경제의 회복탄력 능력에 대한 측정방식과 국가별 측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제17회 제주포럼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은 한 국가의 경제의 취약성과 그 국가의 회복탄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국가가 처한 경제위험도 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의 경제적 위험성은 한 국가의 경제가 처한 취약성과 그 국가의 회복탄력 능력을 동시에 고려한 후에 한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외부적 충격에 노출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한 국가가 처한 취약성과 그 국가의 회복탄력성이 동시에 고려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위험도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2019년 이후부터 가장 최근까지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제위험도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Ukraine war have dismantled the global supply chain, creating global economic turmoils, such as increasing inflation and subsequent economic disturbances that inflation causes. This has exposed the world to higher vulnerability and risks, which leads us to analyze the global economic risk,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more systemically. This session aims to present an index of global economic risks across the countries in the world.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Jeju Peace Institute (JPI) presented the economic resilience index and economic performance index at the last year's Jeju Forum. Based on this, the JPI presents a global economic risk index by considering a country's economic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country's economic risk can be measured after simultaneously taking into consideration both how a country is exposed to external shocks arising from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its economy and how it will cope with those shocks. The JPI suggests a global economic risk index by using the most recent data available since 2019.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 | | |
|----------------------|---|
| 김봉현
KIM Bong-hyun | 보dana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자문 / 전 주호주 대한민국대사
Advisor to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 Former Ambassador of the ROK to Australia |
| 임해용
LIM Haeyong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Director of Research Department, Jeju Peace Institute |
| 정승철
Alec CHUNG | 제주평화연구원 부연구위원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
| 유기은
RYU Ki Eun |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연구원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
| 우정엽
WOO Jung-Yeop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

토론
Discussant

미래세대의 눈을 통해 보는 동북아의 교류 Northeast Asia Exchanges: Through the Eyes of the Future Generation

2022년은 중-일 수교 50주년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이에 우리 채널의 “Dialogue” 프로그램과 제주포럼이 손을 잡고 “미래세대의 눈을 통해 보는 동북아의 교류”라는 주제로 TV 포럼을 기획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중일 3개국 청년들은 세 나라가 직면한 사회, 경제적 현안들과 함께, 3국이 갖는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은 물론, 다른 아시아권 및 서구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포럼이 동북아 청년들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또한 역내 문화적,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2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Our program “Dialogue” plans to join hands with the Jeju Forum to co-produce a special TV forum themed “Northeast Asia Exchanges: Through the Eyes of the Future Generation.” The program will feature youth from the three countries engaging in frank conversations about the social and economic issues facing the three countri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our cultures, those of other Asian cultures and those of the West. The forum hopes to help build mutual understanding among young people of Northeast Asia and strengthen cultural and interpersonal exchanges in the region.

- | | |
|------------------------|--|
| XU Qinduo | Host,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
| WANG Guan | Host/Senior Correspondent,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
| LEE Jae Young | Yenching Scholar, Peking University |
| LI Jingjing | Reporter,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
| MAO Dong | Stand-up Comedian |
| Malike NAIBI | CEO & Influencer, Lime Education |
| HUANG Jiyuan | Current Affairs Commentator |
| Jennifer MOON | Editor-in-Chief, Arirang TV |
| Benoit HARDY-CHARTRAND | Adjunct Assistant Professor, Temple University Japan |
| Tina HUANG | Multilingual Host |
| WANG Huiyao | Founder & President,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
| Keisuke NISHIHARA | Instructor, Okinawa Sanshin Class |

September 14
(Wed)
-
12:10 - 13:30
-
YouTube



패널
Panel

접경지역에서의 개발-환경-평화 넥서스 접근 방안 모색

Integrated Approach for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eace Nexus in Borderlands

September 14
(Wed)

13:30 - 14:50

Halla



좌장
Moderator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상기 주제는 평화와 환경, 개발의 관계 및 연계 방안 모색과 함께 접경지역이라는 공간적 맥락을 접목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국가 수준의 접근 한계를 넘어 접경 지역의 역학 이해 및 창의적 해법 도출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음. 오늘날 기후변화, 자연재해, 분쟁, 팬데믹, 양극화 등 전 지구적 이슈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 문제들은 개발 협력에 있어서 단편적이거나 단일 이슈로서가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내외 사례 연구 및 사업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집필 작업 주요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넥서스 접근법 활용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논의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동 이슈에 대한 어젠다를 확산하고자 함.

Violence and conflict in borderlands are inseparable from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hinder social development. This close connection, however, also provides the potential to reverse the vicious cycle of conflict, disruption to nature and social exclusion and move, through a holistic transformative approach, toward a virtuous cycle of peace, ecological integrity and inclusive development. In this session, speakers will introduce the findings and lessons drawn from the research project “The Development-Environment-Peace Nexus in Borders and Borderlands (DEEPEN)” conducted by UNRISD to answer questions associated with the institutions, policies and actors that can transform borders from locations of antagonism, exclusion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to places of cooperation, inclusion, ecological integrity and, ultimately, peace. Challenging conventional approaches and introducing innovative theories and practices of integrated approach-based projects for sustainable and peaceful development in borderlands, this session will invite the audience to explore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development, environment and peace in borderlands and find solutions.

이일청 Yi Ilcheong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선임연구조정관 Senior Research Coordinator,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이윤영 LEE Yun-young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Vice President,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파리다 나살리 Faridah NASSALI	유엔개발계획 컨설턴트 Consultan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스티븐 싱고 Stephen SINGO	안보 연구정보센터 부국장 Deputy Director, Security Reserch&Information Centre
패트릭 미한 Patrick MEEHAN	SOAS 런던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SOAS University of London
김영완 KIM Youngwan	서강대학교 교수 Professor, Sogang University
이진영 LEE Jinyoung	전북대학교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김보경 KIM Bo Kyung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BK Assista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아마도 필립 데 안드레 Amado Philip DE ANDRES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지역국장 Regional Director,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아이삭 아사레 Isaac ASARE	유엔개발계획 프로그램 매니저 Program Manager,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제주의 환경보전과 보존을 고려한 미래가치 디자인의 지향성

The Direction of Future Values in the Design Industry When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he Ecological Preservation of Jeju Island

September 14
(Wed)

13:30 - 14:50

Samda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플라스틱 오염, 자원 고갈 등이 지구 인류의 필수불가결적인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혼란, 인류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발전을 추구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인지하고 인류의 번영과 기술 발전, 환경보존과 보전, 보호 등 두 영역의 가치충돌을 최소화하고 미래가치 디자인의 발전 방향성에 있어 방침과 표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산업혁명으로 초래된 대량생산에 의한 기존의 생산방식과 그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국내,외의 사례와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고, 3D프린팅, 서비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각 분야의 디자인 전문가(패널)들의 토론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과 보존을 고려한 디자인의 미래가치와 지속가능한 생산의 방향성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제주의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산업의 미래가치에 관한 인식의 환기가 되어 우리의 공존과 초국가적 협력을 이끌어냄이다.

The continuing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human race has made ecological threats like global warming, abnormal weather occurrences, plastic pollution, and resource depletion inevitable, causing chaos in the natural ecosystems and stirring human conflicts. Recognizing the contradictory results that come from pursuing infinite development on a planet with finite resources, our aim is to minimize the conflict of values that occurs in opposing areas - such as human prosperity and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echnology, versus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protection - while seeking out policies and standards to lead the direction of future value design. Existing production methods (originating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advent of mass production) and the severity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that results from them will be examined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rough statistics, and through discussions with design experts in various fields, such as 3D printing, service design, universal design, and industrial design. Through a panel discussion,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criteria that should be prioritized when determining the future values of design, while also considering the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with a direction towards sustainable production.

Ultimately, the purpose is to provoke awareness of the future values of the design industry in consideration of Jeju's natural environment, leading to better coexistence and transnational cooperation.

이인성 LEE Insung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프로젝트 매니저 Climate and Energy Project Manager, Greenpeace East Asia Seoul office
타일러 라쉬 Tyler RASCH	클레어제이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Artist, Clare J Creative
최성권 CHOI Sung-kwon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Adjunct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이경미 LEE Kyung-mi	사이픽스 대표이사 CEO, Cyphics
이인호 LEE In-ho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Professor,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이성호 LEE Seong-ho	제주대학교 교수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발표
Speaker

진행/발표
MC/Speake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미래를 그리는 청년들: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한중일 문화공동체

**Youth for Future: Embracing Shared Culture in China-Japan-Korea
for a Peaceful and Cooperative Northeast Asia**

September 14
(Wed)

13:30 - 14:50

Yeongju A



한·중·일 3국 청년들은 상대국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미래 3국 관계와 협력 전망은 어떠한가? 청년교류를 통해 고조되고 있는 민족주의 열기 상황에서 상호이해 및 우호 관계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한·중·일의 청년 리더들을 초대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참신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 및 청중(주로 한·중·일 학생)이 함께 하는 3국 청년교류의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CS의 청년교류 네트워크(TYEN) 플랫폼 구축 계획을 소개하고 3국 청년교류를 위한 TCS의 그간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How do young people of China, Japan and Korea view the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three countries? What's their prospects of future trilateral relations and cooperation? How to further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by international youth exchanges amidst growing concerns about nationalism? TCS will invite CJK young leaders to share their in-depth insights and strong voices on the abovementioned questions based on their experiences. Through constructive dialogues, the participants and audience (mainly CJK students) would explore the more effective and meaningful approaches for future youth exchanges among the three countries. This session can also serve as an opportunity to showcase the TCS' efforts in promoting youth exchange network as a new platform of long-term engagement.

좌장
Moderator

개회사
Opening Remarks

폐회사
Closing Remarks

발표
Speaker

닝 지에 NING Jie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담당관 Program Officer,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어우 보첸 OU Boqian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백범흠 BEK Bum-hym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Deputy Secretary-General,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와야마 료스케 SAWAYAMA Ryosuke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담당관 Program Officer,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루 루이 LU Rui	신화통신 서울지국 특파원 Correspondent, Xinhua News Agency Seoul Bureau
가스가이 모에 KASUGAI Moe	코렉 비헬코리아 CEO CEO, KOREC Bwell Korea
유원선 YOO Wonsun	코리안리재보험 대리 Assistant Manager, Korean Re

제주4·3 정신과 세계 평화

Jeju4·3 Spirit and World Peace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 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지 17년이 흘렀다. 이 세션에서는 우선, 그동안 4·3정신의 실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제주4·3의 아픈 과거를 넘어 세계평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을 제시한다. 셋째,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넷째,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제주도의 국제 공조를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다. 다섯째, 1990년대 르완다 집단학살 당시, 프랑스 정부의 개입을 증명하는 외교 기밀문서의 공개를 계기로, 제주4·3의 경우 미국의 책임과 관련한 시사점을 짚어본다.

It has been 17 years sin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designated as an island of world peace to sublimate the tragedy of Jeju4·3 into reconciliation and co-prosperity, and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by inheriting the spirit of summit diplomacy for peace settlement. In this session, first of all, we will look at the extent to which the 4·3 spirit practice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Second, it presents the rol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world peace beyond the painful past of Jeju4·3. Third, we diagnose the reality and problems of the Jeju Peace Island initiative and seek solutions. Fourth, it predicts the future of Jeju Island, and island of world peace, and presents practical task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Jeju Island. Fifth, in the wake of the disclosure of diplomatic confidential documents proving the French government's intervention during the genocide in Rwanda in the 1990s, Jeju April 3 points out implications related to the U.S. responsibility.

고희범 KO Hee-bum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Chairman, Jeju4·3 Peace Foundation
양조훈 YANG Jo-hoon	제주4·3평화재단 전 이사장 Former Chairman, Jeju4·3 Peace Foundation
강창일 KANG Chang-il	전 주일본 대한민국대사 Former Ambassador of the ROK to Japan
달릴라 야스민 암리 수에드 Dalila Yasmin AMRI SUED	주한 르완다대사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Rwanda to the ROK
박찬식 PARK Chan-sik	제주문화진흥재단 이사장 Chairman, Jeju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한인택 HAN Intaek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President of the Jeju Peace Institute

September 14
(Wed)

13:30 - 14:50

Yeongju B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한국 전문 미국 외신기자의 도전과제

Challenges American Journalists Face in Covering Foreign Countries for American Audiences

September 14
(Wed)

13:30 - 14:50

Baeknok A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들어본 적 있고, 미국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외국어를 구사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유학한 경험에서부터, 외국에서 휴가를 보낸 경험, 다른 나라에 대해 글을 읽거나 들어본 경험, 혹은 외국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까지 미국 외 다른 194개국과 친숙한 정도가 다양하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인들은 외국에 대한 친숙도가 다양한 미국 시청자·독자에게 어떻게 보도하는가? 보도 주제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치 않을 때 언론인들은 다른 국가, 그들의 역사 및 현안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고 이해하는가? 미국 언론인들은 외국과 이들 국가의 현안에 대해 미국 시청자·독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

Almost everyone in the world has heard of the United States, and most have opinions about it. But Americans have varying degrees of familiarity with the other 194 countries in the world besides their own, ranging from speaking the language of a foreign country and having lived or studied there, to having vacationed in many foreign countries, to only having read or heard about other countries, to almost no knowledge whatsoever. Yet, important things happen in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things that will impact Americans. How do American journalists report to an audience with a wide disparity of familiarity with foreign countries? How do the journalists inform themselves of the countries, their history, the issues at play, when they themselves may not have a deep prior knowledge of the subjects? How do American journalists approach explaining foreign countries, and the issues they face, to American audiences?

레이몬드 버그하트 Raymond BURGHARDT	태평양세기연구소 회장 President, Pacific Century Institute
캐슬린 킹스베리 Kathleen KINGSBURY	뉴욕 타임즈 사설란 부편집장 Deputy Editorial Page Editor, The New York Times
윌리엄 헤니건 William HENNIGAN	타임지 국가안보문 특파원 National Security Correspondent, Time Magazine
케이틀린 페럴 Katelyn FERRALL	밀워키 저널 센티널 기자 Reporter, Milwaukee Journal Sentinel
에밀리 룬즈 Emily Christine LUNZ	CNN 인터내셔널 선임기자 Senior Writer, CNN International
브리타니 톰 Brittany Radelle TOM	NBC 뉴스 현장 프로듀서원 Field Producer, NBC News
케빈 노델 Kevin KNODELL	호놀룰루 스타-애드버타이저 기자 Reporter, Honolulu Star-Advertiser

환태평양평화소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제주-아세안+α 정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존 방안

Pacific Rim Park City Members Conference: How to Build Sustainable Peace & Coexistence by Cooperating with Jeju-ASEAN+α Policy

September 14
(Wed)

15:20 - 16:40

Halla



20세기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미국 샌디에고에 소재한 일란라엘재단은 환태평양지역 내 평화소공원 조성운동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환태평양지역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소공원의 디자인부터 공사, 준공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여러 국가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진정한 평화의 염원을 담은 과정의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총 7개의 소공원이 조성되었다. 각 지역 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만들어진 공원들은 문화가교의 역할 뿐 아니라 평화중진 네트워크의 기능도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년여간의 코로나 상황을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환태평양평화소공원 도시협의체는 제주-아세안 플러스 알파정책과 연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활동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세계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논의해 본다.

In the aftermath of the Cold War in the 20th century, the Ilanlael Foundation, based in San Diego, U.S.A. began a campaign to create a peace park in the Pacific Rim Region. PRP(Pacific Rim Park) is a project in which young people from the Pacific Rim who will lead the 21st century gather to design, construction, and completion of a small peace parks, and students and citizens from various countries harmonize to express their true wishes for peace. Parks created with respect to each region's culture and diversity serve not only as cultural bridges but also as peace promotion networks. Amid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among countries and the two-year of COVID-19 situation are now turned into an endemic, the Pacific Rim Park City Members discuss what to do prepare and what activities to do, and ultimately how to build world peace by cooperating with Jeju-ASEAN Plus Alpha Policy.

카일 버그만 Kyle BERGMAN	환태평양평화소공원재단 회장 Director, Pacific Rim Park
남부원 NAM Boo Won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사무총장 General Secretary, Asia and Pacific Alliance of YMCAs
고성준 KO Seong Joon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원장 Director, Jeju Institute for Korean Unification
마리안 게르데스 Marianne GERDES	일란라엘재단 사무국장 Executive Director, Ilan-Lael Foundation
발레리 사보스텐코 Valerii SAVOSTENKO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Professor,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대니얼 마르퀴즈 산체스 Daniel M. SANCHEZ	일란라엘재단 이사 Board of Director, Ilan-Lael Foundation
강근형 KANG Kun Hyung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Jeju National University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새마을운동, 공존과 협력의 열쇠

Saemaul Undong, the Key for Glob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September 14
(Wed)

15:20 - 16:40

Samda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새마을재단은 새마을운동을 통한 발전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경상북도가 설립한 비영리기관이다. 2012년 11월 설립된 새마을재단은 지난 10년간, 경상북도가 2005년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룡반 마을에서 시작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왔다. 유엔과 OECD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가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발전모델이라고 인정했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고문이었던 미국 컬럼비아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는 새마을운동을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원동력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본 세션은 새마을재단이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을 활용한 국제개발 협력사업 성과를 베트남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사업 및 연구소 운영을 통한 새마을운동 현지화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며 공존과 협력의 열쇠,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알리고자 한다.

The Saemaul Foundati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by the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erve the call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hare the Saemaul Undong development experience. Since its establishment in November 2012, the Foundation carried on and expanded the endeavor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which started in 2005 in Vietnam. The UN along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OECD acknowledged Saemaul Undong as the most effective development model for developing countries while Jeffrey Sacks from Columbia University, a special adviser to former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lauded Saemaul Undong as the critical driving force for attaining the SDGs set by the UN. The session aims to showcase the value of Saemaul Undong as the key for glob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by introducing the works carried out in Vietnam for last ten years.

소진광 SO Jin Kwang	가천대학교 교수 Professor, Gachon University
곽부성 KWAK Busung	새마을재단 베트남사무소장 Vietnam Country Director, Saemaul Foundation
이상우 LEE Sang-Woo	새마을재단 전략기획 TF 부장 Strategic Planning TF Director, Saemaul Foundation
조정호 CHO Jungho	새마을운동중앙회 과장 Manager, Korea Saemaul Undong Center
타드 터훈 Todd TERHUNE	영남대학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이석수 LEE Seoksu	매일신문 서부본부장 Head of Western Headquarter, Maeil Shinmun
문상원 MOON Sangwon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2실장 Director General of Department of Southeast Asia II,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양인자 YANG Inja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처장 Secretary General,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Saemaul Center

한미동맹: 변화와 과제 그리고 기회

The ROK-US Alliance: Changes, Challenges, Opportunities

September 14
(Wed)

15:20 - 16:40

Yeongju A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 간 역내 위기에 직면했던 양국의 안보 기반이었다. 양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 2018년 북한과의 관계 해빙의 후퇴,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미·중 대립 관계의 심화,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영향력 증가 등 그동안 변화가 생겼다.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북한의 핵무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에서 한국의 장기적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물러날 것인가 등 분명한 도전과제들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과제는 어떤 기회들을 제시하는가? 미국 대통령은 4년마다, 한국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뀔 수 있는 반면 북한의 지도자는 수십 년 동안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각국은 어떻게 국내적으로 수십 년에 걸친 접근 방식을 도출하고, 그 둘을 조정할 것인가?

The ROK-US alliance has been a security bedrock for both countries for decades as they faced challenges in the region. There have been changes: new presidents in both countries, a pullback from the warm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2018, continued North Korea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systems, a more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South Korea's growing influence in the world as an ever more robust middle power. There are clear challenges: how to keep the peace; how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ow to deal with China given South Korea's economic relationship with it; how to define South Korea's long term role in NE Asia and the world; will the US draw back from the region? What are the opportunities the changes and challenges present: US presidents can change every four years, Korean presidents every five, North Korea's leader is likely to be in place for decades. How does each country create a multi-decade approach domestically, and then coordinate between the two?

캐슬린 스티븐스 D. Kathleen STEPHENS	태평양세기연구소 소장 Chair, Pacific Century Institute
스펜서 김 Spencer KIM	태평양세기연구소 공동창립자 Co-founder, Pacific Century Institute
손지애 SOHN Jie-ae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Invit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존 델러리 John DELURY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임성남 LIM Sungnam	전 외교부 제1차관 Former 1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OK

기후변화로 인한 아프리카의 정치·사회적 갈등과 평화

Climate Change, Socio-Political Conflict, and Peace in Africa

September 14
(Wed)

15:20 - 16:40

Yeongju B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기후변화는 물, 토지 등에 대한 생존 경쟁을 심화시켜 사회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기반과 정부 행정력이 약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기후변화는 식량부족, 인구증가, 자원배분 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긴장과 갈등을 악화시키며 사회적 불안정과 폭력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곳곳에서 발생하는 군사쿠데타, 극단주의 무력 단체와의 전쟁, 종족분쟁 등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까지 식량 수급 불안정과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평화’에 관한 논의는 더욱 시의적절하다. 본 세션에서는 다양한 행위자 간 기후변화로 인한 이해관계 변화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현황과 주요 양상을 이해하고 외교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마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Climate change intensifies the competition for water and land, and is becoming a threat to social stability and peace. In African countries with weak economic base and administrative power, climate change exacerbates existing tensions and conflicts related to food shortages, population growth, and resource allocation, and amplifies social instability and violence. Factors that cause instability, such as military coup d'états, wars with extremist armed groups, and ethnic conflicts occurring in sub-Saharan Africa, are not unrelated to the struggle for survival due to climate change. At present, the discussion on 'climate change and peace' is more timely given that external factors such as COVID-19 and the Ukraine war are also contributing to food instability and inflation. In this session, we will examine changes in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caused by climate change among various actors and discuss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nd solutions. The discussion will allow us to better understand current situation and major aspects of conflicts in sub-Saharan Africa, and seek ways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by preparing policy recommendation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an use.

최동주 CHOI Dong Ju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정-폴 아담 Jean-Paul ADAM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국장 Director, UN Economic Council for Africa
강문수 KANG Mun Su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조원빈 CHO Wonbin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김은경 KIM Eun Kyung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협력적 비핵화 방안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nd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증대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북한의 군사전략, 대외전략, 대남전략, 통치전략의 변화와도 연동돼 있으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추구하는 전략적 이해를 핵전략 및 군사전략, 대외 및 대남전략, 통치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고 전망할 필요가 있다. 본 세션은 북한의 핵전략 변화, 전술핵 및 전략핵의 기술적 진화에 따른 국가 전반의 전략적 변화를 동북아와 한반도 차원에서 평가하고, 한반도 협력적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The accele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has increased in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is linked to changes in its military strategy, external strategy, strategy vis-à-vis South Korea, and governing strategy. The strategic interests North Korea pursues through its nuclear weapons need to be reviewed and predicted by examining its nuclear and military strategies, external strategy, strategy on South Korea, and governing strategy. This session focuses on examining the overall strategic changes across the nation caused by shifts in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the technological evolution of tactical and strategic nuclear weapons and evaluating those changes in North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level, and discusses about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전봉근 JUN Bong-geun	국립외교원 교수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박형중 PARK Hyeong-Jung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황일도 HWANG Ildo	국립외교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홍민 HONG Min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Director of North Korea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김진하 KIM Jin-Ha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정은미 JEONG Eun Mee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왕진성 WANG Junsheng	중국사회과학원 실장/교수 Director/Professor,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September 14
(Wed)

15:20 - 16:40

Baeknok A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평화도시들의 갈등극복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Global Peace Cities Solidarity: The Role of Peace Cities at the International Society by Overcoming Conflict

September 14
(Wed)
-
17:10 - 18:30
-
Halla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가 간, 지역 간 대립은 심화되고 지역 간 정치적, 경제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도시 간 연대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8년 제주포럼에서 제주가 제안하고, 2021년 협약을 체결한 글로벌 평화 도시 연대(제주-오스나브뤼크-베르딩)는 도시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간 대립을 완화시켜 외교 관계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각 평화 도시 간 평화 활동을 위한 공동사업을 논의하고 향후 연대를 넘어 평화를 대표하는 국제협의체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비전을 논의한다.

Since the COVID-19 pandemic, inter-country and regional confrontations have intensified and political and economic conflicts between regions have raised, building solidarity more important than ever. From this point of view, Jeju proposed Global Peace Cities Solidarity at the 2018 Jeju Forum and signed an agreement in 2021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strengthen inter-city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ease conflicts between countries to improve diplomatic relations. At the point of transition to the endemic after the COVID-19 pandemic, each peace city will discuss joint projects for peace activities and discuss its vision to function as an international consultative body representing peace beyond future solidarity.

좌장
Moderator

기조연설
Keynote

발표
Speaker

패널
Panel

카일 버그만 Kyle BERGMAN	환태평양평화공원재단 회장 Director, Pacific Rim Park
오영훈 OH Young Hun	제주특별자치도지사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카타리나 포터 Katharina PÖTTER	오스나브뤼크 시장 Lord Mayor of City of Osnabrueck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Dmytro PONOMARENKO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Ambassador of Ukraine to the ROK
앨리스 카데두 Alice CADEDDU	오스나브뤼크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평화센터 부관장 Deputy Head, Erich Maria Remarque Peace Center
고경민 KO Kyungmin	제주국제평화센터 센터장 Head, International Peace Center Jeju
필립 한쉬 Philippe HANSCH	세계평화자유인권센터 센터장 Director, World Center for Peace, Liberties and Human Rights

연령친화 한중일 사회로 나아가는 스마트하고 포괄적인 해법

China-Japan-Korea Cooperation for Smart and Inclusive Solutions Towards an Age-Friendly Society

한국, 중국, 일본이 COVID-19라는 인간안보 위기에 대처한 방안 및 체계는 대부분 ICT 산업계와 협력을 통한 신속함과 혁신성이 두드러졌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접근성 높은 공적 서비스 조성에 대한 상상력과 논의가 필요함을 환기시켰다. 한·중·일 3국의 공통 화두 중 하나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환경 향상으로, 이는 곧 3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영향 등과 같은 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본 세션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결합하여 보다 포용적인 과학기술 발전 및 적용 가능성, 연령친화적인 위기 대응체계 등을 향한 한·중·일의 현황 및 미래방향을 고찰하고 논의한다. 특히 디지털경제, 데이터 산업 발전 가속화 속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을 아우르는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그려볼 예정이다.

How did China, Japan and Korea manage human security emergencies brought by the COVID-19 pandemic? Many of their solutions were high-tech and advanced, hence quick and efficient. Were they, however, inclusive and accessible to all members of society? China, Japan and Korea all place high importance on improving citizens' quality of life by achieving sustainable, equitable and balanced social development. Considering that the three countries share common challenges like aging societies and side effects of rapid digitalization, this session hopes to combine those themes to explore smart yet inclusive solutions that ensure the security and safety of all populations, especially vulnerable groups. The session will discuss holistic and equitable means for the three countries to enhance the society's inclusiveness in everyday and emergency response management, with a focus on solutions for the aging society in the era of big data and digital economy utilizing smart city technology.

사카타 나츠키 SAKATA Natsuko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Deputy Secretary-General,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어우 보첸 OU Boqian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박정숙 PARK Jung Sook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Maimunah Mohd SHARIF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 Executive Director, UN-Habitat
임원 REN Yuan	푸단대학교 사회발전공공정책원 교수 Professor,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at Fudan University
이석원 LEE Suk-Won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아키야마 히로코 AKIYAMA Hiroko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The University of Tokyo

September 14
(Wed)
-
17:10 - 18:30
-
Yeongju A



좌장
Moderator
개회사
Opening Remarks

기조연설
Keynote

발표
Speaker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과 한국외교

Lessons from the Ukraine War for the Korean Diplomacy

September 14
(Wed)

17:10 - 18:30

Yeongju B



좌장
Moderator

개회사
Opening Remarks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유럽의 평화가 깨졌다.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하고 민간 희생자가 커지면서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에 나서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을 오래 견디면서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시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유럽과 전 세계에 정치, 경제적으로 미칠 여러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서 볼 수 있듯이 서유럽 국가들의 반러시아 결속이 강화되는 등 유럽 정세가 대결 구도로 변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격돌하고 있어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이미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본 세션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정에 정통한 고위 외교관 출신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 외교에 갖는 함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세 명의 발표자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 원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강대국 정치 항배, 우크라이나 사태 종결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경제적 함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 외교정책 제언과 한국 외교·안보 정책에 주는 교훈 등에 관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것이다. 이후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자유 토론을 통해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함의와 교훈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Russia's invasion of Ukraine early this year ended the peace and stability in Europe that had lasted since the World War II. Although the US and NATO pressed Russia with massive sanctions, Russia does not stop its war against Ukraine. Also, Ukraine unexpectedly manages to resist Russia's military attack. This military deadlock seems to lead to the protracted war which will cost numerous lives and have serious consequences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the world as well as in Europe. As is seen in Sweden and Finland's epoch-making decision to join NATO, the West European countries harden its confrontational stance against Russia. The Ukraine war also affects the big powers'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Russia and China is further worsening. Consequently, the Ukraine war is deemed to bring about the restructuring of world order. Furthermore, the war is likely to have negative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in light of looming economic difficulties such as energy crisis. At this session, we will invite the three former Korean Ambassadors with hands-on experiences in Ukraine and Russia as speakers. They will address the background of and the aftermath of the Ukraine war and its implications on the Korean diplomacy. They are expected to share their insightful and professional views with the audience. Their presentation will be followed by the free discuss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which is aimed at converging the diverse views on this important issue.

서정하 SUH Chung Ha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Vice Chairman,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준규 LEE Joongyu	한국외교협회 회장 Chairman,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양구 LEE Yang Goo	한국외교협회 회원 Former Ambassador to Ukraine,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권기창 KWON Ki-chang	한국외교협회 회원 Former Ambassador to Ukraine,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박병환 PARK Byonghwan	한국외교협회 회원 Former Minister in Russia,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서항 LEE Seo-Hang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Vice Chairman,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범연 LEE Bom Yon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Vice Chairman,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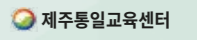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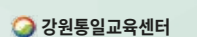
남북 그린데탕트와 제주·강원의 역할

Inter-Korean Green Detente and the Role of Jeju & Gangwon

September 14
(Wed)

17:10 - 18:30

Baeknok A



지정학과 경제안보 차원의 복잡한 위기가 엄습해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남북한이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은 남북한의 협력은 물론 동북아 차원에서의 국제협력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복잡한 위기의 시대를 헤쳐갈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션은 해양과 산림협력 차원에서 남북한의 협력과 동북아 국제협력을 다각도로 모색함으로써 한반도 그린데탕트 기여와 평화 증진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산과 바다에 접해 있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통일교육기관이 공조하여 산과 바다를 관통하는 SDG 14(해양생태계)·15(육상생태계) 및 SDG 2(기아해소 및 지속가능농업)·SDG 6(물과 위생)·SDG 7(에너지)·SDG 13(기후변화 대응) 등의 이슈를 연결하여 남북한과 동북아 차원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나아가 이를 통일교육에도 활용하여 통일공감대와 기반 조성을 강화하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Amid a complex crisis in geopolitical and economic security dimensions, the Korean Peninsula also faces the need to establish a new paradigm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new paradigm of cooperation will be able to become a driving force to overcome the complex crisis by considering not only inter-Korean cooperation but also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e level of Northeast Asia in a balanced way. This session seeks to find a direction that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peace as well as the contribution to green détente on the Korean Peninsula by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rom various angles in terms of maritime and forest cooperation. In particular, SDG 14 (life below water), 15 (life on land) and SDG 2 (zero hunger), SDG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SDG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and SDG 13 (climate action) will be linked to discuss ways to exp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Northeast Asia. Furthermore, by using this for unification education, we intend to find a way to strengthen the consensus and foundation for Korean unification.

고성준 KO Seong Joon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원장 Director, Jeju Institute for Korean Unification
조건식 CHO Kunshik	원주한라대학교 석좌교수 Chair Professor, Halla University
이상현 LEE Sang-hyun	제주평화연구원 위촉연구위원 Visiting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김수정 KIM Soojung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공민석 GONG Min-Seok	제주대학교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우학석 YU Xueshuo	한평정책연구소 방문연구원 Visiting Fellow, Han Peace Institute
주민욱 JU Min-uk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임교수 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Management at Kyung Hee University
박광호 PARK Kwangho	원주한라대학교 교수 Professor, Halla University
정대진 JUNG Dae-Jin	원주한라대학교 교수 Professor, Halla University

좌장
Moderator
기조연설
Keynote
발표
Keynote

토론
Speaker

SEPTEMBER 15(THU)

DAY 2

평화와 공존을 위한 글로벌한인의 공공외교

Global Korean Public Diplomacy for Peace and Coexistence

September 15
(Thu)
-
09:00 - 10:20
-
Halla



세계화 시대에 각 국가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인재와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는 기존 국력의 개념들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데이터 등 새로운 요소들이 중요한 시대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외교와 안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193개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와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 기존 국제정치 패러다임보다 디지털, SNS를 활용한 외교의 방법들이 전쟁을 무력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및 SNS를 통해 파급되는 공공외교의 영역에서는 전쟁 패권의 주도권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공외교가 외교정책의 주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가운데, 공공외교 주체의 역할도 중요하게 되었다. 직업의 영역을 넘어 각 분야의 네트워크가 바로 외교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교정책의 주요한 사항으로 750만 동포를 활용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전 민족 중심의 한민족 공동체와 개념을 넘어 재외동포와 한국인, 세계인들이 함께 나아가는 세계시민 의식에 기반한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모국과 재외동포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ach countr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has transcended the national border and made an effort to secure talented personnel and manpower. Currently, the concepts of previous national power have been collapsed. We have entered the era when new elements become important such as man and data. Considering in the aspect of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that the Republic of Korea confronts, under the situation of overseas Koreans who have been active in 193 countries and the secured digital technologies, it is mandatory to establish a global Korean network. Recently, as we learn from the war in Ukraine, rather than the previous paradigm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methods of diplomacy that utilize digital and SNS have contributed to the neutralization of war. In the category of public diplomacy being spread through digital technology and SNS, the hegemony of war seems to act differently. While the diplomatic policy of public diplomacy has been utilized as the critical element, the role of the subject for public diplomacy has become important. Beyond the category of occupations, the network in each field itself has become the subject of diplomacy. In such a view, as for the critical matter of diplomatic policy, it requires of the att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 Korean network which utilizes 7.5 million overseas Koreans. Beyond the previous concept of race-centered Korean community, a network on the basis of global citizens' conscience should be established where overseas Koreans, Korean citizens and people of the world go forward together. Through such network, mother country of Korea shall maintain a mutual supplementary relationship with overseas Koreans to resolve the problems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fronts.

좌장
Moderator

발표/토론
Speaker/Discussant

토론
Discussant

한경구 HAN Kyung Ko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of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김성곤 KIM Sung Gon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President of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유미 호건 Yumi HOGAN	미국 메릴랜드 주 퍼스트레이디 The First Lady of the State of Maryland
박소희 PARK Sohee	배우 Actor
이상화 LEE Sang-hwa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Ambassador and Deputy Minister for Public Diploma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글로벌 전략에 새롭게 등장한 “인도-태평양” 개념은 이 지역의 지정학적 관계를 새롭게 부상시켰다. 올 2월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고 캐나다, 한국, 일본, 인도와 같은 이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이에 호응하였다. 전략적 측면에서 아태개념에서 인태개념으로의 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며 각국의 인태 전략의 초점은 무엇인가? 심화되는 미중 경쟁 시기에 이 새로운 전략개념이 한반도와 이지역의 다른 나라들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본 세션은 캐나다와 한국의 전 외교부 장관들, 현 국회의원들과 외교관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이러한 이슈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 나라의 인태 전략들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들 전략들이 내포하는 협력방안, 갈등적 요소, 지정학적 경쟁 등의 이슈들을 분석하며 특히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The “Indo-Pacific” concept recently championed by the US and its close allies has added new prominence to the geopolitics of this region. In February this year, the US announced its new strategy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and other key regional powers, including Canada, South Korea, Japan, and India have supported this initiative. What influenced the shift from “Asia-Pacific” to “Indo-Pacific” in the strategic narrative? What are the highlights of different countries’ Indo-Pacific strategies? Against the backdrop of intensified US-China competition,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is new strategic framework for the region, particularly the Korean Peninsula? With former foreign ministers, current parliamentarians, diplomats, and scholars from Canada, Korea, and the US, the panel will address these questions. Focusing on the Indo-Pacific strategies of Canada, the US, and South Korea, it will evaluate strategies for cooperation, contending issues, and geopolitical competition. It will also asses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박경애 PARK Kyung-Ae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수 Profess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타마라 마위니 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대사관 대사대리 Chargé d'affaires a.i., Embassy of Canada to the ROK
마크 가노 Marc GARNEAU	캐나다 의회 하원의원 Member of Parliament, Parliament of Canada
유엔 파우 우 Yuen Pau WOO	캐나다 의회 상원의원 Senator, Parliament of Canada
윤영관 YOON Young-kwan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스콧 스나이더 Scott SNYDER	미국외교위원회 한국학 선임연구원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김병주 KIM Byung Joo	대한민국 국회의원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웰던 엡 Weldon EPP	캐나다 외교부 국장 Director General, Global Affairs Canada

September 15
(Thu)
-
09:00 - 10:20
-
Yeongju A



좌장/발표
Moderator/Speaker

개회사
Opening Remarks

발표
Speaker

핵전쟁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방안: 쿠바미사일 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Preventing Nuclear War Through Crisis Management:
What We Can Learn From the Cuban Missile Crisis Today**

September 15
(Thu)
-
09:00 - 10:20
-
Yeongju B



2022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황이 자신의 예상대로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자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다. 러시아의 핵 사용은 곧 세계적인 규모의 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핵전쟁은 곧 인류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오늘날 국가들은 핵탄두를 소형화한 제한적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핵 사용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사용도 결국은 전면 핵전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핵을 둘러싼 위기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한반도 역시 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곳이다. 다행히도 인류는 핵전쟁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60년 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바로 그 경험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은 핵무기 사용은 곧 공멸이라는 점을 깨닫고 협상을 통해 위기를 평화롭게 해결하였다. 이처럼 위기관리와 협상을 통해 잠재적 핵 위기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능력과 지식을 오늘날의 핵보유국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쿠바미사일 위기 사례가 오늘날 핵보유국과 그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쿠바미사일위기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의 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본 세션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세계 석학들을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In February 2022,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using nuclear weapons when the invasion of Ukraine did not go as he had expected. A lot of countries and people became anxious because of Putin's remark since Russia's use of nuclear weapons could escalate into a full-scale global nuclear war and total destruction of humanity. Meanwhile, today, some states are developing limited tactical nuclear weapons, which could increase the possessor's likelihood of using nuclear weapons, raising concerns that tactical nuclear weapons could eventually expand into all-out nuclear war. Thus, we are currently living in an era where crisis management surrounding nuclear weapons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The Korean Peninsula we live in is also not free from nuclear weapons. Fortunately, humanity has an experience overcoming the nuclear war crisis. The Cuban Missile Crisis, which occurred sixty years ago, is that very experience. Going through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two great power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realized that the use of nuclear weapons would lead to the annihilation of humanity, agreeing to solve the crisis through negotiations. As such, today's nuclear powers must possess the capability and knowledge to peacefully solve any potential nuclear crises through crisis management and negotiation. Then, what lessons can the Cuban Missile Crisis teach today's nuclear powers and their leaders about crisis management? Can we gain the knowledge necessary to overcome any potential nuclear crises by studying the Cuban Missile Crisis? We intend to host world-renowned scholars and diplomats to discuss and address these questions through this session.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김숙 KIM Sook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상임이사 / 전 주UN 대한민국대사 Executive Director of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 Former Ambassador of the ROK to the UN
이근욱 LEE Geunwook	서강대학교 교수 Professor, Sogang University
마리아나 부제린 Mariana BUDJERYN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 Senior Research Associate,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샤타비샤 셰티 Shatabhisha SHETTY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 및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 사무총장 Executive Director,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존 울프스탈 Jon WOLFSTHAL	글로벌제로 선임고문 Senior Adviser, Global Zero
수잔 코크 Susan KOCH	국방대학교 대량살상무기연구센터 선임연구원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The Center for the Stud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토론
Discussant

한일 관계 전환: 역사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Korea-Japan Relations in Transition: Are Setbacks over History Surmountable?

한일관계 복원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행정부의 우선적 외교 과제가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한미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이 중요함을 피력했고, 기시다 총리도 친서를 통해 한일관계 발전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악화된 한일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까? 최악의 한일관계를 맞이했던 지난 행정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시사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 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같은 역사 현안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일 양국의 해결 방안에는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데, 국내정치적 제약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The restoration of South Korea-Japan Relations will be at the forefront of the newly appointed Yoo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genda. During his phone call with President Yoon, the U.S. President Joe Bid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los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U.S. and Japan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while Prime Minister Kishida expressed hopes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Japan relations through a personal letter. However, the question remains as to how the two neighbors will repair deteriorated bilateral relations. Tokyo's strengthening of its export controls and Seoul's attempt to exit GSOMIA are both based on heated historical disputes over the reparation for Korean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victims. As such, significant gaps still exist in the resolution of bilateral relations. Moreover, to normalize South Korea-Japan relations, negative domestic opinion must be taken into account. If so, how can we overcome political constraint and move forward into the future?

박철희 PARK Cheol-He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가네하라 노부카쓰 KANEHARA Nobukatsu	도시사대학 교수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니시노 준야 NISHINO Junya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 Professor, Keio University
신각수 SHIN Kak-Soo	법무법인 세종 고문 Advisor, SHIN & KIM LLC.
심규선 SHIM Kyu-Sun	동아일보 전 편집국장 Former Managing Editor, Dong-A Ilbo

September 15
(Thu)
-
09:00 - 10:20
-
Baeknok A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Green ODA를 통한 공존과 협력: GGGI의 10년을 돌아보며

Cooperation and Co-existence Through Green ODA: GGGI's Decade and Beyond

September 15
(Thu)
-
09:00 - 10:20
-
Baeknok B



좌장
Moderator

기조연설
Keynote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국제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출범한 GGGI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GGGI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 경험이 공존과 협력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질서에 가진 함의를 살펴본다. GGGI는 녹색 ODA 등 프로젝트 수행 및 정책 자문 등 국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선도하는 국제기구로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노력, 탄소 거래 시스템의 제도화 등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에 기여해 오고 있다. 녹색 외교, 특히 ODA 사업은 녹색이라는 공공재를 개도국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는 필수적이며, 동시에 공존과 협력에 기반한 국제사회 질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 전환을 위한 정책 자문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GGGI는 현지 이해관계자 간 경쟁에 따른 갈등 및 각국의 사회체제, 문화적 특성에 따른 도전에 직면해 왔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분쟁이 기후 관련 녹색 ODA 의지 약화 등 국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연대와 노력에 새로운 장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 국제기구,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시민사회의 대표적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GGGI의 지난 10년을 통한 협력적 경험을 반추하며 향후 GGGI가 나아가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In commemoration of the tenth anniversary of GGGI, this session looks at the past decade of GGGI's project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Green ODA in the larger framework of building cooperation and peace around the world. GGGI, as an embodiment of the spir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envisioned by its founders, has seen phenomenal growth just as the demand for a carbon-neutral economy has grown internationally, as seen from the efforts in energy transi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missions trading system. As Green Diplomacy aims to provide "Green" as public good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operation and solidarity among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co-existence and cooperation." Simultaneously, GGGI has long faced conflict due to competition among local stakeholders and challenges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each country's social system and culture when implementing projects. With old but new geopolitical conflicts breaking out recently,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efforts towards the green transition might encounter new challenges, including diversion of global attention from Green ODA. This session invites the government, public/research institu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and public civil society who are key actors of the "Green" sector to examine the ten-year experience of GGGI and discuss the future prospect of GGGI.

류학석 RYU Hakseok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팀장 Head,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김효은 KIM Hyeoun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Ambassador and Deputy Minister for Climate Chang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마하마두 툰카라 Mahamadou TOUNKARA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실장 Director,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경주 LEE Kyoungjoo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부장 Director,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김연규 KIM Younkyoo	한양대학교 교수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이연수 LEE Youn Soo	한국국제협력단 기후감염병위기 대응실장 Director General, Climate Crisis & Pandemic Response Department,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유희석 YOO Hee Suk	SK임업 상무 Vice President, SK Forest

윤석열 정부와 한반도 평화안정 시나리오

The Yoon Administration & Scenario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회담을 이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지역 정세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외교적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이 모두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선보일 것인가? 또한 어떻게 새롭게 남북관계의 비전을 정립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Despite the Moon administration's diplomatic efforts that led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wo D.P.R.K.-U.S. summits, Pyongyang's recent missile provocations have once again heightened securit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ast Asian region as a whole. The newly inaugurated Yoon government is expected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that will bring more concrete results in the denuclearization effort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U.S. relations, an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re all at a deadlock, on what principle should the new North Korea policy be implemented? Also, how can we establish a new vis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form a consensus in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ty?

문정인 MOON Chung-in	세종연구소 이사장 Chairman of the Sejong Institute
존 허드슨 John HUDSON	워싱턴포스트 외교안보 담당기자 National Security Reporter, The Washington Post
오코노기 마사오 OKONOGI Masao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장투오성 ZHANG Tuosheng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수석연구원 Senior Fellow, Chin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이재정 LEE Jae-Jung	대한민국 국회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Vice-Chairperson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박철희 PARK Cheol-He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ptember 15
(Thu)
-
10:50 - 12:10
-
Samda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전후 평화체제 및 재건의 이행방안과 국제개발협력의 관점

Post-war Reconstruction and Peace-Building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ptember 15 (Thu)

10:50 - 12:10

Baeknok B



좌장/개회사
Moderator/Opening Remarks

환영사
Welcoming Remarks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평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UN은 국제사회에 분쟁 예방을 위한 개발 자원 확보를 촉구한 바 있다. 예멘 등에서 지속된(protracted) 분쟁과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분쟁의 경로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분쟁 후 평화구축’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취약국과 비교했을 때 산업화 정도가 높아 전후 재건 비용이 마셜 플랜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발 자원의 추가적 확보가 필수적인데 국제사회와 서북유럽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전후 평화구축과 재건 과정에 있어 과거 분쟁국들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세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후 평화 체제에 대해 전망해보고 최근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분쟁 후 평화구축과 개발 협력 연계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포스트 우크라이나 평화구축 기반 개발 협력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Peace is the key challen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regard, the UN ur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cure finance for development to prevent conflicts. Protracted conflict in Yemen and the latest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have aroused the need for ‘post-conflict peace-building’, which helps overcome the path dependency of conflict. Due to its advanced industrialization compared to other fragile states, the cost of reconstruction in Ukraine is expected to exceed the Marshall plan.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ecure additional finance for development.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Northern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show much support for Ukraine, it will display different post-war peace-building and reconstruction phases. In this session, we will predict the post-war peace regime in Ukraine and propose a future direction of South Korea’s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y based on peace-building for Ukraine with an analysis of cases from Europe and around the world that combine post-conflict peace-build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김성규 KIM Sung Gyu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President,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정해일 JUNG Haeil	국방대학교 총장 President,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최윤미 CHOI Yunmi	국방대학교 유엔국방장관회의 TF장 Director, TF Team on UN PKO Ministerial Meeting,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루슬란 카츠 Rouslan KATS	주한 캐나다대사관 참사관(정치경제공보) Counsellor(Political / Economic), Embassy of Canada to the ROK
권구순 KWON Goosoon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Cyber University
황준서 HWANG Juneseo	퀸즈벨파스트대학교 박사과정 PhD Researcher, Queen's University Belfast
김영호 KIM Young Ho	국방대학교 교수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미겔 라 플란테 페레스 Miguel LA PLANTE-PEREZ	주한스위스대사관 부대사 Deputy Head of Mission, Embassy of Switzerland to the ROK

함께 사는 지구를 위한 기업의 협력과 통합

Corporate Collaboration and Integration for the Planet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검색 엔진으로 역사상 가장 큰 인터넷 기업을 일군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라는 모토를 오랫동안 잘 지켜왔고 윤리적인 기업모델로도 명성을 쌓았다. 기업의 투자지표가 달라지고 있는 요즘, ‘ESG 경영’이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쓰고 있지만, 본질은 지속가능성이다. 특히 국경 없는 핀테크 제국이라 불리는 구글은 글로벌 협력과 통합의 숙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 본사의 윌슨 화이트 부사장을 초청하여 구글의 지속 가능한 지구에 대한 노력과 미래전략을 들어본다.

Google, which built the largest Internet company in history as the world's leading search engine, has long kept its motto 'Don't be evil' and built a reputation as an ethical corporate model. Although the investment indicators of companies are changing these days and the term 'ESG management' is used widely, the essence is sustainability. In particular, Google, which is called the borderless Fin Tech empire, has the task of glob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We invite Wilson White, Vice President on Google's Government Affairs & Public Policy team to hear about Google's efforts and future strategies for a sustainable earth.

오종남 OH Jong Nam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President, Human Development Institute
윌슨 화이트 Wilson L. WHITE	구글 부사장 Vice President, Google

September 15 (Thu)

13:30 - 14:50

Samda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전세계 인도주의 활동과 HDP(인도적지원-개발-평화) 넥서스

Global Humanitarian Action and the HDP Nexus

September 15
(Thu)

13:30 - 14:50

Yeongju A



2022년 전 세계는 기후변화, 코로나, 분쟁 및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를 맞았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발발은 기아 인구의 추가적인 급증을 초래하였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본질 중 주요한 요인이 식량부족이다. 제로 헝거 달성을 위한 세계 최대 인도주의 기구인 WFP는 HDP 넥서스와 인도주의 활동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하여 주요 분쟁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WFP 인사와, 한국인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국내 고위급 전문가를 본 세션에 초청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기후 변화 대응, 인권 보호, 식량 지원과 같은 행동들이 어떻게 작동하여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공동체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2 is proving to be the year of unprecedented humanitarian needs, with climate shocks, conflict, COVID-19 and spiraling costs of food and fuel driving millions closer to starvation, forging a band of instability that wraps right around the globe. At the same time, the consequences of the conflict in Ukraine are radiating outwards, triggering a wave of collateral hunger that is spreading across the globe. Given the nature of the unprecedented humanitarian crisis facing the planet is one of acute food shortage and food insecurity, WFP would like to propose a panel discussion - to be co-hosted with a Korean Government agency, such as KOICA - to present different perspectives around HDP (Humanitarian, Development and Peace) nexus and the components of humanitarian action needed in today's world of, showcasing how coordinated acti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ood assistance can be the collective pathway to peace. On this matter, the role of ROK both as one of the most developed nations in the world and one whose recent history stands as a shining example of ending hunger can provide a rich and meaningful foundation to how countries can learn from ROK's own journey and success. In this session, we aim to re-imagine humanitarian response and protection during a time of unprecedented global crisis. Based on the idea of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will examine the correlations of conflict, climate and food security. Leading towards the bigger discussion of opportunities through the HDP Nexus, we will also look into how to ensure human rights and protection through humanitarian action. In this session, we aim to re-imagine humanitarian response and protection during a time of unprecedented global crisis. Based on the idea of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will examine the correlations of conflict, climate and food security. Leading towards the bigger discussion of opportunities through the HDP Nexus, we will also look into how to ensure human rights and protection through humanitarian action.

좌장
Moderator

발표/토론
Speaker/Discussant

조대식 JO Daeshik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김효은 KIM Hyeoun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Ambassador and Deputy Minister for Climate Chang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오준 OH Joon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Board Chair, Save the Children Korea
이양희 LEE Yanghee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Chairperson,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코린 플레이셔 Corinne FLEISCHER	WFP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 지역사무소 지역본부장 Regional Director, WFP Regional Bureau for the Middle East, Northern Africa and Eastern Europe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Russia-Ukraine War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질서 전반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유럽 등 서방과 러시아·중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UN과 국제법을 통한 다자주의 국제체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세션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질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동북아 지역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The prolonged Russia-Ukraine war has given rise to mounting concern that the Ukraine crisis will profoundly reshape the overarching international order.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system built on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formed after World War II, is facing severe challenges. Conflicts are intensifying between the West (i.e., the US and Europe) on the one hand and Russia-China on the other. This trend will likely negatively affec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rder after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and discuss the potential impact these changes will bring to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We will explore the possible internation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midst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도경옥 DO Kyung-ok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Director of Peace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조성민 CHO Sungmin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 교수 Professor,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현승수 HYUN Seung-soo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센동 HAN Xiandong	중국政法대학 교수 Professor,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미치시타 나루시게 MICHISHITA Narushige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학장 / 교수 Vice President/Professor,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정성철 JUNG Sung Chul	명지대학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민태은 MIN Tae Eun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ptember 15
(Thu)

13:30 - 14:50

Yeongju B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신흥·핵심기술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외교의 역할

Diplomacy for Promoting Human Capital Exchanges in Emerging and Critical Technologies

September 15
(Thu)
-
13:30 - 14:50
-
Baeknok A



좌장
Moderator
개회사/패널
Opening Remarks/Panel
기조연설
Keynote
패널
Panel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쿼텀, 5G·6G, AI 등 신흥·핵심기술의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양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해외의 파트너 기관들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 세션은 우리나라의 신흥·핵심기술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간 인력교류 확대에 있어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Developing human capital is essential for strengthening a nation's R&D competitiveness in emerging and critical technologies relating to quantum information, 5G·6G, AI, etc. This is why leading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Korea are seeking hard to create opportunities for joint research and human capital exchanges with their overseas partner institution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take part in this endeavor since a nation's competitiveness is directly linked to its competitiven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session, participants will identify the bottlenecks in promoting human capital exchanges betwee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as a way to enhance the national R&D competitiveness in emerging and critical technologies, and discuss diplomatic measures to resolve the bottlenecks.

박종흥 PARK Jong Heung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이동규 LEE Tong-q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Director-Genera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린다 밀스 Linda G. MILLS	뉴욕대학교 부총장 Vice Chancellor, New York University
한상욱 HAN Sang-Wook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장 Directo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조원영 CHO Won-Young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Research Fellow,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김형수 KIM Hyungsoo	KT 팀장 Team Leader, KT Corp.

포용적 번영을 위한 한국-FAO 간 파트너십 및 협력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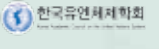
Partnership Between FAO and ROK for Inclusive Prosperity

2021년 4월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이하 'PLO')가 서울에 문을 열었다. PLO는 한국과 FAO 간 협력 증진을 통해 지구촌 빈곤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명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하에 PLO는 지난 8월 한국과 FAO 간 협력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국제사회의 동향, 과거 한국과 FAO 간 협력 현황 분석을 통해 'FAO-한국 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포럼에서는 새롭게 수립될 협력전략을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협력, 국제개발 협력의 핵심 학회인 한국유엔체제학회, 국제개발협력학회, 제주평화연구원과 함께 이번 제주포럼에 세션을 기획하게 되었다.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hereinafter 'FAO PLO') was officially opened the door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in April 2021. PLO embedding the mission to strengthen partnership between FAO and ROK including accelerating achieving food security, SDG implementation, eradicating hunger and poverty. To drive the mission, the PLO has been developing a "FAO-ROK Partnership and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y" with collaboration of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AIDEC) and other key ROK stakeholders. This session at Jeju Forum aims to share and promote the partnership strategy with various stakeholders as well as ROK public. The session will also invite the key ROK international development academic institutes including KACUNS (Korea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JPI (Jeju Peace Institute) and others.

이신화 LEE Shin-wha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한국유엔체제학회장 / 고려대 교수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KACUNS President /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탕 쉹야오 TANG Shengyao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 소장 Representative, FAO 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in the ROK
김성규 KIM Sung Gyu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President,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강문수 KANG Mun Su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조정희 CHO Jung He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Vice President, Korea Maritime Institute
박미선 PARK Mi Sun	서울대학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최동주 CHOI Dong Ju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이재준 LEE Jae Jun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강호상 KANG Ho Sang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송영훈 SONG Young Hoon	강원대학교 교수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박원규 PARK Won Gyu	부경대학교 학장 Dea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eptember 15
(Thu)
-
13:30 - 14:50
-
Baeknok B



좌장
Moderator
환영사
Welcoming Remarks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폭력에 저항하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 - 문화예술
A Gentle but Powerful Force Against Violence, Arts & Culture

September 15
 (Thu)
 -
 15:20 - 16:40
 -
 Halla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일반시민이 무차별 폭력의 대상이 되고 인간 존엄성마저 말살당하고 있다, 사회 각계가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예술은 가장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규탄하고 평화를 호소하는 방식이다. 제17회 제주포럼 문화세션에서는 국내외에서 문화예술 활동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확산하는 다양한 예술인들과 함께 인류사회가 ‘갈등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고 ‘공존과 협력’ 을 이루어 내기 위해 문화예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국가 간 전쟁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학살, 민주 의식 탄압 등 다양한 폭력을 비판하는데 활약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폭력에 저항하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 - 문화예술’ 을 주제로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Due to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ordinary citizens of Ukraine are subjected to indiscriminate violence and even human dignity is being destroyed. All sectors of society are taking action against war. The same goes for the arts & culture. Arts & culture is the most non-violent way to condemn war and appeal for peace. At the Culture Session of the 17th Jeju Forum, we invite experts who are actively engaged in ‘peace culture and art activities’ at home and abroad to discuss the role that arts & culture should play in order for human society to go ‘Beyond Conflict, Towards Peace’ and to achiev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좌장
Moderator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발표
Speaker

- | | |
|----------------------------|--|
| 김동현
KIM Donghyun | 사단법인 제주민예총 이사장
Head Director, The Jeju People's Artist Federation |
| 이승아
LEE Seung-a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Chief, Culture, Tourism, and Sports Committe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
| 올가 그레벤니크
Olga GREBENNIK | 프리랜서 화가, 작가
Freelance Illustrator, Writer |
| 올레나 시돌축
Olena SYDORCHUK | 더펠로우십 코리아 방송인, 영화배우
Model, Actress, The Fellowship |
| 김숨
KIM Soom | 작가
Novelist |
| 강혜명
KANG Hye Myung | 이탈리아 DM 매니지먼트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예술총감독
Artistic Director of Opera Aunt Suni, DM Artist Management SA |

공존과 협력의 미래 제주
-뉴 스페이스 시대, 제주의 우주산업 정책방향-

Jeju, the Future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 The Policy Direction of Jeju's Space Industry in the New Space Era -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우주산업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 및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었던 우주산업이 민간 및 소규모 기업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주산업이 핵심적 미래산업으로 인식되고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 공유지로서의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협력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배경에서 공존과 협력의 대주제로 열리는 제17회 제주포럼에서 협력적 우주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발사 및 위성 운용의 최적지로 이러한 우주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대비한 제주 우주산업의 장단기 정책 방향 및 전략을 논의하고, 우주산업을 제주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the midst of the climate crisis and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the space industry is recognized as a sustainable industry in all over the world. In addition, the paradigm of the space industry is shifting from government and large corporations to private and small startups. As more and more countries and companies are participating in the space industry, it is time to have a discussion for cooperation to utilize the universe peacefully as an international public land. Against this backdrop, it is very meaningful to seek a cooperative strategy for space industry development at the 17th Jeju Forum, which is held under the main theme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Jeju island is the best place for launch and satellite management and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space industry. In preparation for this New Space era, Jeju's policy direction and strategy for developing the space industry should be established. This forum can be a crucial discussion for making the space industry a core future industry in Jeju.

- | | |
|-----------------------|---|
| 김상협
KIM Sang-Hyup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 전 제주연구원 원장
Chairperson, 2050 Carbon Neutrality Commission / Former President, Jeju Research Institute |
| 이상률
LEE Sang-Ryool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President,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
| 이태식
LEE Taesik | 한양대학교 특훈교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회장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The Next President,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 한재흥
HAN Jae-Hung |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Professor,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 신동윤
SHIN Yoon | 페리지 CEO
CEO, Perigee |
| 윤종호
YOON Chongho |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혁신센터장
EVP&CTO,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
| 조남운
CHO Namun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Jeju Research Institute |

September 15
 (Thu)
 -
 15:20 - 16:40
 -
 Samda



좌장
Moderator
기조연설
Keynote
토론
Discussant

한-EU 라운드테이블: 혼란과 분쟁의 시대, 평화를 위한 과학기술인의 역할

**Korea-EU Roundtable:
The Role of Scientists for Peace in the Era of Chaos and Divisions**

September 15
(Thu)
-
15:20 - 16:40
-
Yeongju A



좌장
Moderator
기조연설
Keynote
발표/토론
Speaker/Discussant

코로나의 긴 터널과 함께 현재 우리 인류는 무력 충돌을 비롯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분쟁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유럽의 에너지 위기, 그리고 중국의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도시 봉쇄 등 새로운 위기들이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몇 년 안에 대불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동안 환경문제, 기후변화, 자원고갈, 사이버 공격 등의 기존 이슈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과학기술 지식의 공유와 적용을 통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블록체인 등의 첨단과학 기술을 이용한 과학기술인들의 공존과 협력이 더욱 강조된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과학기술인들이 모여 현재의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인의 역할에 대하여 다층적 관점에서 토론하고자 한다.

Along with the long tunnel of COVID-19, we are currently facing with new conflicts and crises in the new normal era, including armed conflict. Moreover there is an analysis that the world economy could enter a deep recession within a few years, because of US inflation, Europe's energy crisis, and China's city lockdown caused by Omicron mutation. In the midst of this, the existing issues such as environmental problems, climate change, resource depletion and cyberattacks are still worsening, so it is a time when response through sharing and applic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Th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of scientists using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computing, and blockchain are emphasized on a global scale. In this session, scientists from Korea and Europe will gather to discuss the role of scientists in overcoming current conflicts and crises from multi-layered perspective.

김종화 KIM Jonghwa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Professor, Cheju Halla University
채연석 CHAE Yeon-Seok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Chairman, Aviation &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에곤 판덴브렉 Egon L. VAN DEN BROEK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 교수 Professor, Utrecht University
라스 라센 Lars LARSEN	독일우주항공센터 그룹장 Head of Group, German Aerospace Center
스테파노스 콜리아스 Stefanos KOLLIAS	아테네국립공과대학교 교수 Professor,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Athens
파지 카르야라이넨 Pasi KARJALAINEN	동부핀란드대학교 교수 Professor, 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조우현 CHO Woohyun	한-EU 연구협력센터 소장 Director, Korea-EU Research Centre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유엔(UN)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협력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UN) for Peace &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eptember 15
(Thu)
-
15:20 - 16:40
-
Yeongju B



한반도의 분단관리와 평화에 기여해온 유엔(UN)은 국제사회의 전환적 변화 속에서 한반도 평화 안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지속적인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 특히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그리고 고립적인 김정은 정권의 적대 정책은 심각한 한반도 평화 안보의 도전과제이다. 더구나 팬데믹(COVID-19)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난제와 인도-태평양 전략 등 미-중간 경쟁의 심화는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위기 사태에 대응하는 유엔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많은 비판과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북한 핵 문제, 평화구축 및 통일 등 한반도 평화 및 안보 문제에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여지가 많다. 본 세션은 국제 질서의 재편과 세계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신정부의 출범의 새로운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의 전반적인 역할 및 활용,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조명,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안보리를 포함 최근 유엔의 역할과 정치 역할 등 고찰, 유엔사(UNC)의 임무와 역할, 대북 경제제재 조치와 북한의 입장, 미국, 중국 등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그리고 한국 신정부의 대 유엔 외교 및 다자외교 정책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패널의 구성은 전공학자, 전직 외교관, 언론인 등 유엔 관련 이론, 실제 업무 및 외교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각계의 전문가로서 이루어진다.

What role can the United Nations(UN),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management of divis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lay in peace and security of the Peninsula in the emerging global transformational changes? The ongo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particularly with North Korea (DPRK)'s continuing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nd the hostile policy of the isolated Kim Jong-un regime, pose serious challenges to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Moreover, the international problems such as the pandemic (COVID-19) and the Ukraine crisis, and the intensifying regional competition centered upon US-China rivalry with Indo-Pacific strateg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the Peninsula. While facing much criticism on its capabilities and role in responding to recent international crises, the UN has had an authority and useful role to play in the critical peace and security issues on the Peninsula,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peace-building and the reunification. This session focuses on reviewing and highlighting the present and future role and utility of the UN in the Peninsula, and facilita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imes of the inauguration of the new Korean (ROK) government with pronounced goal of a global “pivotal state” in chang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 particular, the panel discusses the issues, including the role of the Security Council and its recent political dynamics, the mission and role of the UN Command (UNC), the UN sanctions regime on North Korea and her policy and behavior, the positions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other major stake-holders, and the suggestions for Korean policy on the UN and multilateral diplomacy. The panel consists of experts, including scholars, former diplomats, and journalist, who have rich experience in UN-related research, works, and diplomacy.

박흥순 PARK Heung-Soon	선문대학교 교수 Professor, Sunmoon University
신부남 SHIN Boonam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Vice President,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ROK
남정호 NAM Jeongho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Columnist, JoongAng Ilbo
이신화 LEE Shin-wha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 / 고려대 교수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KACUNS President /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좌장
Moderator
발표/토론
Speaker/Discussant

회복탄력적 공급망 재편을 위한 한-ASEAN 파트너십의 미래

The Future of the R.O.K.-ASEAN Partnership for Building a Resilient Supply Chain

September 15
(Thu)
-
15:20 - 16:40
-
Baeknok A



COVID-19, 미-중 경쟁 격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시장 안정을 흐드는 주요 정세 변화 속에서 ASEAN 국가들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 및 원료 수급에 있어 러시아와 같이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도모하면서, 자원이 풍부한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IPEF를 출범시켰고, 아세안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45년 만에 처음으로 미-ASEAN 특별정상회담을 개최하며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도 지난해 ASEAN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올해 RCEP 발효로 인해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되게 되었다. 한국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 평화, 상생 번영을 표방하는 신남방정책을 펼치며 ASEAN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추구해왔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또한 경제 안보를 앞세워 한-ASEAN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ASEAN 관계가 이룬 성과, 향후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국-ASEAN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 이를 위해 넘어서야 할 잠재적 장애요인들과 대응 방안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The strategic importance of ASEAN countries is growing as major global development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heightened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Russia-Ukraine War have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stability of global market. The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now appreciating the need of reshaping global supply chains centering on ASEAN countries as they have abundant resources to replace the energy dependence on countries like Russia, where many countries have found it difficult to manage their energy risks, and to secure stable supply chains through import diversification. The United States with several Southeast Asian countries came together to initiate the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The U.S. also showed its willingness to strengthen the U.S.-ASEAN cooperation with the first opening of the U.S.-ASEAN summit, the first of its kind in 45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ASEAN. Likewise, China upgraded its relations with ASEAN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last year and strengthened its economic ties through RCEP coming into effect this year. As the Moon administration pursued its partnership with ASEAN with New Southern Policy putting forward people, peace, mutual prosperity, the Yoon administration is also expected to strengthen its partnership with ASEAN under the slogan of economic security. This session examines what the former administration achieved through New Southern Policy in the R.O.K.-ASEAN relations, what R.O.K.-ASEAN ties should pursue to secure stable supply chains in the future, what potential challenges it might face and how to deal with them.

김성환 KIM Sung-Hwan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Chairman of East Asia Foundation
유명희 YOO Myung-he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창범 KIM Chang-Beom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 Advisor, Center for Strategic and Cultural Studies
토마스 렘봉 Thomas LEMBONG	컨실리언스폴리시 대표 / 전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Director, Consilience Policy / Former Trade Minister of Indonesia
데보라 엠스 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 대표 Executive Director / Founder, Asian Trade Centre Pte Ltd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그린데탕트 구상과 남북 접경협력

A Green Détente Initiativ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in Border Areas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무력도발이 거세지고 있다. 북미, 남북관계는 2019년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환경은 더욱 갈등으로 치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남북 그린데탕트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 ‘그린데탕트’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로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탄소중립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으며,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공동이익이 수렴될 수 있는 분야이다. 윤석열 정부의 남북 그린데탕트가 갖는 함의를 파악해보고, 특히 그린데탕트의 핵심 대상인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그린 평화시대 화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와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North Korea's armed provocations are increasingly intensifying in the leading up to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under the president Yoon Suk-yeol. US-North Korea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at a stalemate since 2019,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s spiraling down into conflicts. The new ROK government, sworn in amidst this highly turbulent environment, presents a vision of Green Détente between the two Koreas as a major task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Although the ‘Green Détente’ plan of the past was once presented as an initiative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the Yoon Suk-yeol government is expected to advance an old version one step further. The Two Koreas are easily likely to find common interests in the environmental area given the following: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t a global scale, such as carbon neutrality, are increasingly becoming irresistible trends; and North Korea has shown a keen interest in the worldwid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activ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ountering climate change. This session aim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Green Détente initiative of the Yoon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session seeks to identify pressing tasks and find an implementation strategy to establish ‘a Green-Peace Zone in border area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essence of the Green Détente initiative.

이우태 LEE Wootae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Director of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나용우 NA Yong Woo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강민조 KANG Min-Jo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토마스 비에지보프스키 Tomasz WIERZBOWSKI	한국외국어대학교 객원강의교수 Adjunc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정유석 JUNG Yoosuk	IBK기업은행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Industrial Bank of Korea
이규창 LEE Kyu Chang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ptember 15
(Thu)
-
15:20 - 16:40
-
Baeknok B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기후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 제주의 생태법인 모색을 중심으로

Coexistence Model of Nature and Humans to Overcome Climate and Ecological Crisis: Focusing on Jeju's Eco Legal Person

September 15
(Thu)
-
17:10 - 18:30
-
Halla



2022년 오늘날 인류의 안전과 평화는 심화되는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코로나 등 새로운 환경·생태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탄소 배출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산불 등의 심각한 기후재난과 생태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신종 바이러스 등의 위험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로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기후재난과 생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중심의 관점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환경가치가 높은 동식물, 자연물에게도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에서도 해양생태계의 바로미터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부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 모색이 법제도 차원의 사회적 합의로 도출되고 도출된 새로운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공유되고 연대된다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희망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공존 관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제주의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등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법제도 논의를 공유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여 연대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Today, the safety and peace of humanity are greatly threatened by the intensifying US-China conflict, the Russia-Ukraine war, and new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risks such as climate change and the coronavirus. No country is immune to severe climate disasters such as droughts, floods, heatwaves, and wildfires caused by carbon emission, nor threats such as the emergence of new variants caused by an imbalance in the ecosystem. These problems are challenges for the entire human race and cannot be resolved without glob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To overcome climate disasters and ecological crises and move toward a sustainable society, fundamental reflection on human-centered perspectives and systems must be preceded. Recently, at home and abroad, legislation to increase social responsibility by granting legal rights to animals, plants, and natural objects with high environmental value is being made. Such meaningful efforts are also ongoing in Jeju as we discuss granting ‘eco legal person’ to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 a barometer of the marine ecosystem. As we explore establishing this new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we look forward to reaching a social consensus on the legal level and sharing achievements mad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nkind. In this session, world-class scholars and domestic experts will discuss the new coexisting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Participants will also share various legal system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Jeju's case of granting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 an eco legal person, and explore potential areas of cooperation.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박규환 PARK Kyu-hwan	영산대학교 교수 Professor, Youngsan University
클라우스 보셀만 Klaus BOSSELMANN	오克蘭드대학교 교수 Professor, University of Auckland
진희중 JIN Hee Jong	제주대학교 강사 Lecturer, Jeju National University
장수진 JANG Soojin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대표 Director, Marine Animal Research and Conservation
김도희 KIM Dohhui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장 Chairperson of the Animal Rights Subcommittee,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남종영 NAM Jongyoung	한겨레 기자 Staff Writer, The Hankyoreh
박태현 PARK Taehyun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토론
Discussant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자유특구

**A Special Educational Freedom Zone that Starts
a New Local Era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2019년 말 수도권의 인구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지방에서는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가 나타나 지역경제의 침체, 세대 및 지역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지방시대를 열어 지방 분권,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에서도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세션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의 동력으로 ‘교육 자유 특구’를 제시하고 국내·외의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All the resources were in the metropolitan area, so by the end of 2019, the pop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had reached more than half of Korea's total population for the first time. As a result, problems like rising housing prices and traffic congestion are getting worse in the metropolitan area, while non-metropolitan are facing severe labor shortages and an aging population, which slows down the local economy and makes it harder for people from different generations and regions to get along. So, if we start a new local era, we can get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nd we can give fair chances to the provinces so that they can grow on their own and get away from the metropolitan area, which is too centralized. In this session, we want to talk about the “Special Education Freedom Zone” as the driving force of the new local era and share advanced cases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of Korea. I hope that this will give us a chance to think together so that we can start a new era of fairness, autonomy, and hope, where we can solve the problems our society is facing and have the same opportunities no matter where we live.

오정근 OH Junggun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 Chief Secretary, Special Committe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t 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ssion
김병준 KIM Byong-Joon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Chairman, Special Committe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t 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ssion
배리 아이켄그린 Barry EICHENGREEN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수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이기우 LEE Ki-Wu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Commissioner, Special Committe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t 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ssion
김재구 KIM Jae-Gu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Commissioner, Special Committe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t 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ssion
박기관 PARK Ki Gwan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Commissioner, Special Committe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t 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ssion
현을생 HYUN Eul Saeng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Commissioner, Special Committe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t 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ssion

September 15
(Thu)
-
17:10 - 18:30
-
Samda



좌장
Moderator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국제협력과 공존을 위한 한일 관계의 재구축

Reconstructing Korea-Japan Rel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existence

September 15
(Thu)
-
17:10 - 18:30
-
Yeongju A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팬데믹 등 국제사회 또한 갈등과 폭력의 세기에 진입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양자 차원의 역사적 화해뿐만 아니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국제적 노력까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각국의 국제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공존과 협력을 위해 양국이 추구해야 할 공통의 규범과 가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Amid longstanding historical feud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acing the era of violence and conflicts heralded by various global issues such as the Ukraine War and pandemics. At the same time, the growing nuclear capability of North Korea and the US-China rivalry are intensifying regional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Against this backdrop, the reestablishment of Korea-Japan relations requires international efforts to mitigate confrontations and move toward peace and cooperation, as well as bilateral historical reconciliation. This session aims to explore Korea and Japan's respective perceptions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anelists will discuss the common norms, values, and challenges in the years ahead to foster coexistence and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김원진 KIM Weon-jin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 Senior Adviser of the Center for Japanese Studie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소에야 요시히데 SOEYA Yoshihide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조진구 CHO Jin-Goo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조양현 JO Yanghyeon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 Head of Center for Japanese Studie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사하시 료 SAHASHI Ryo	도쿄대학교 준교수 Associate Professor, The University of Tokyo

공존과 협력의 남북관계 패러다임 모색

Seeking a Paradigm for Inter-Korean Relations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September 15
(Thu)
-
17:10 - 18:30
-
Yeongju B



2018년 한반도 평화의 봄은 오래 가지 못했고, 현재 한반도 및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는 미·중의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등으로 세계질서 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형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평화, 안보, 협력 인식 변화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최근의 세계질서 변화 및 평화, 안보, 협력 인식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의 공존과 협력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과 세계질서 변화, 그리고 평화와 안보, 협력 인식 변화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남북관계 인식 및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공존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A spring of peace unfolding in 2018 on the Korean Peninsula was short-lived, leaving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at a continued impasse. There have been recent discussions on changing world orders involving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COVID-19 pandemic, and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emerging security, highlighted amidst the global pandemic, gives rise to the active discussions on changing perceptions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ession seeks to find a new paradigm for forward-looking inter-Korean relations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oster coexistenc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he discussions of the shifted perception of recently changing worlds order,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The session primarily examines discussion on repercussions caused by the recent global pandemic, changes in the world order, and shifts in the perception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Based on this assessment, the session critically evaluates the existing percep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paradigm and discusses how to develop a new paradigm for new inter-Korean relations to foster coexistence and cooperation.

김상기 KIM Sang Ki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Director of Unification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정계영 ZHENG Jiyong	중국 복단대학교 / 세종연구소 교수 Professor, Fudan University / Sejong Institute
이무철 LEE Moo Chul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우영 LEE Woo Young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이기동 LEE Gee-dong	국가안전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Chief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김갑식 KIM Kapsik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장철운 JANG Cheol-wun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아시아, 갈등과 폭력을 넘어 환대와 평화로

Asia, from Conflict and Violence to Hospitality and Peace

September 15
(Thu)
-
17:10 - 18:30
-
Baeknok B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사회
MC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20세기 아시아는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 전쟁과 학살, 냉전 등 다양한 폭력이 관통한 시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도 아시아에는 국가 간 갈등, 내전, 냉전 등 다양한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하지만 그러한 극단의 역사 뒤에는 폭력을 반성하고, 폭력의 희생자들을 위로하며, 폭력 속에서 터전을 잃은 이들을 환대하며 새로운 터전을 내어주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이는 이미 근대 이전 시기부터 있었으며,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환대가 보여주듯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제주가 갈등과 학살의 공간에서 평화와 환대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세션은 아시아 구성원들이 경험한 폭력이 아닌 아시아의 구성원들이 꿈꾸고 실천해 왔던 환대와 평화의 움직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쟁과 학살과 냉전의 대륙이었던 아시아를 대신하여 환대와 평화의 공간으로서의 아시아라는 새로운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In 20th century people in Asia lived in the shadow of various forms of violence, including imperialism, colonialism, war, massacre and the Cold War. However, there were several movements working in the background to console victims of violence, give new shelters to those who lost their homes, and create peace. The pursuit of hospitality and peace in Asia existed even before modern times and it continues today, as shown by cases of Afghanistan special contributors and Ukrainian war refugees. Jeju was once an island of violence and massacre but is now becoming an island of peace and hospitality. This session focuses on the movement toward hospitality and peace that members of the Asia region have dreamed of and put into practice. This allows us to view Asia as a place where we can overcome the past history rather than become bogged down in its shadow.

박수진 PARK Sooji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Dire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신범식 SHIN Beomshik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부소장 Deputy Dire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김호 KIM Ho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H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권현익 KWON Heonik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H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윤대영 YOON Dae-yeong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HK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구기연 KOO Gi Yeo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HK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고가영 KO Ka Young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HK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허정원 HUH Jungwo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HK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박해남 PARK Haenam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HK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아브라함 협정 2년: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

The Abraham Accords Two Years Later: Assessing the Impact and What Lies Ahead

아브라함 협정은 중동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위해 종파를 초월한 문화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외교적 이니셔티브다. 이번 세션에서는 2년이 지난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다양한 지역적, 학술적 관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관계자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시도들은 비즈니스, 기술, 방위, 환경 분야에서 많은 계획과 발전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2020년 이후 협정의 진전 상황과 역내 평화와 안보에의 함의, 그리고 당사국들은 물론 지역 전반에 걸친 국가들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향후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The Abraham Accords proclaim that their purpose is to promote interfaith and cultural dialogue in the pursuit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Middle East. This important diplomatic initiative is key to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while collaborating on areas of mutual interests. This session will be bringing together different regional and scholarly perspectives on the Abraham Accords, two years on. With efforts to encourage dialogue between the people involved, the pursuit of normal relations between Arab nations and Israel has also witnessed numerous initiatives and developments in the spheres of business, technology, defense, environmental affairs. In this session, we focus on the progress made since 2020, the implications for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long with futur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advancing relations between parties and across the region.

Sultan AL RUBAEI	Researcher, TRENDS Research & Advisory(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Elyazia AlHosani	Deputy Head of Media Sector, TRENDS Research & Advisory(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Brandon FRIEDMAN	Director of Research, The Moshe Dayan Center (MDC), Tel Aviv University
Yossi MEKELBERG	Associated Fellow, Chatham House and Roehampton University
Jonathan PANIKOFF	Director, Scowcroft Middle East Security Initiative, Atlantic Council
Tobias BORCK	Research Fellow for Middle East Security Studies,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September 15
(Thu)
-
20:30 - 21:50
-
YouTube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SEPTEMBER 16(FRI)

DAY 3

테크노폴리틱스의 시대: 미-중 기술 경쟁과 한국의 선택

The Era of Techno-Politics: U.S.-China Tech Rivalry and South Korea's Choice

September 16 (Fri)

09:00 - 10:20

Halla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첨단기술과 공급망 등을 포함한 경제 안보 및 기술 동맹 관계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의 한미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미국 주도 하의 대중 견제 성격이 짙은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한국이 합류하기로 하면서 한-중 관계에도 긴장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미-중 기술 경쟁에 기인한 지정학적 변수가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가져다줄 기회와 도전은 무엇인가? 글로벌 블록화가 뚜렷한 가운데 한국 등 중견국의 생존과 발전 전략은 있는가? 미-중 양국 간의 협력을 추동할 접점은 정말 없는 것인가?

The U.S.-R.O.K Summit, which was held shortly after the Yoon administration took office, confirmed the two countries' commitment to an alliance in economic security and technology in areas like advanced technology and supply chain, developing a set of guidelines for their future cooperation. Meanwhile, tensions are growing in the R.O.K-China relations as Seoul has decided to join the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often regarded as an anti-China coalition led by the U.S. Wha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do techno-political factors derived from the U.S-China competition bring and pose for both South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es, given that analysts now believe that Seoul's dual positioning of partnering with Washington on security and relying on China on economy has now come to an end? Is there any strategy that can bring development and survivability in the face of a clearly apparent global blocization for middle powers like South Korea? Is there really no driving force for the U.S.-China cooperation?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류상영 RHYU Sang-Young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류양성 LIU Charles Yangsheng	타이허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Senior Fellow, Taihe Institute
존 베이트먼 Jon BATEMAN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Senior Fellow,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안준성 AN Jun-Seong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 미국 메릴랜드주 변호사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 Attorney-at-Law
허원순 HUH Won-Soon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Editorial Writer, The Korea Economic Daily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부상: 로드맵과 도전과제

Toward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Roadmap and Challenges

September 16 (Fri)

09:00 - 10:20

Samda



역내 번영을 위한 미국 주도의 다자경제협력체인 IPEF가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출범 초기부터 참가를 공식화했다. 이 협력체는 디지털 무역 확대, 역내 공급망 유연성 확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의 4개 분야 의제를 중심으로 참가국 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협력체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겠지만, 이번 세션에서는 IPEF의 5 가지 핵심적인 도전과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참여한 미·중 갈등으로 인해 회원국이 블록화된 상황에서 이 경제협력체는 어떻게 포용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 둘째, 지속 가능한 협력체를 위해 이해관계가 상이한 회원국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가? 셋째, 중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 프레임워크가 제시한 의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이라는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 넷째, CPTPP와 RCEP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가? 다섯째, 창설멤버로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The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a U.S.-led multilateral economic initiative for regional prosperity, has been launched and South Korea formalized its participation in the IPEF through the R.O.K.-U.S. Summit. The purpose of the IPEF is to strengthen the partnership among member countries in four major agendas including progress on the digital economy, resilience of supply chains, commitments on infrastructure, clean energy, decarbonization, and enhancement of tax, anti-corruption. Although the blue print for the IPEF is likely to be revised and specified, this session will focus on the five major challenges of the initiative. Firstly, how will the economic initiative pursue inclusive policy as its condition of membership is exclusive due to the heightened competition between the U.S.-China? Secondly, what incentives for member countries can the IPEF offer to be sustainable as each member country has different national interests? Thirdly, can this framework offer credibility to achieve its goals in a situation where China is excluded? Fourthly, how should the IPEF establish the relationship with CPTTP and RCEP? Lastly, what is the role of South Korea as a founding member?

안충영 AHN Choong-Yong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제프리 쇼트 Jeffrey SCHOTT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Senior Fellow,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최병일 CHOI Byung-il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우라타 슈지로 URATA Shujiro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Waseda University
장원링 ZHANG Yunling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연구학부장 Director of the Academic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조약의 프리즘을 통해 읽는 한일 역사 갈등: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Reading Korea-Japan Conflicts Through the Prism of the Treaties:
Towards the Way of Coexistence**

September 16
(Fri)
-
09:00 - 10:20
-
Yeongju A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역사 갈등의 기원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데 있다. 한일은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1910년 조약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으로 대립했다. 결국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양국 간 조약은 “이미 무효(null and void)” 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그러나 양국의 해석 차이는 인식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강제 동원 피해자 대법원판결 등 현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양국의 교과서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1910년 강제 병합조약 체결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1965년 한일 협정의 의의와 한계, ‘1965년 체제’가 해결하지 못한 한일 역사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본이 한일 역사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준수를 내세우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문제 해결의 원칙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적이다.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are rooted in the Japanese coerciv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In negotiation for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1965, both countries revealed the difference of their opinions as to whether the treaty of annexation had been illegal or not. As a historical expedient for appeasing their own domestic dissents, both concealed their opposition under the phrase of the treaty being “null and void.” This difference has subsisted in latency to produce their divergent views on the Japanese mobilization of labor, that is, “forced labor” or “conscript.” This panel will discuss the process of forging the Treaty of annexation in 1910 and the limits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ased upon the interpretation of the former treaty. And it will continue to discuss the remaining questions and issues unsolved by the 1965 treaty. Considering the Japanese stance that international law should be observed, this panel presenters will try to re-interpret modern international laws and conventions beyond the narrow conception of two-party treaty, searching for a way in which both countries can coexist.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이영호 LEE Young Ho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President,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와다 하루키 WADA Haruki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The University of Tokyo
정재정 CHUNG Jae-Jung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Seoul
남상구 NAM Sang Gu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Director-General,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원덕 LEE Won Deog	국민대학교 교수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이병택 LEE Byongtaek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소장 Director of Foreign Relations and Historical Reconciliatio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토론
Discussant

외신기자의 눈으로 본 동아시아 공존과 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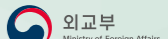
**The Role of Korea in Coexistence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from
Foreign Journalists' Perspectives**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외신 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핵 해결 노력, K-방역, 환경 분야의 리더십 등에 대한 외신 보도를 통해 국제사회는 한국을 국제 질서를 이끌 역량을 가진 선진국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외신 보도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국내 사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전통적 안보인 북핵 문제, 영토분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감염병, 환경문제, 사이버 위협 등 더 복잡한 양상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신안보로 불리는 이러한 사안들은 예측이 어렵고 초국경적인 특성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존과 협력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외부의 시선으로 한국 외교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그간 한국 외교에 대한 외신 보도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해외 유수 매체의 언론인을 초청하여 그들의 시각을 통한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바람직한 역할과 필요한 주요 메시지 관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Foreign media coverage of Korea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over the past 10 years. Through foreign media reports on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K-quarantine, and leadership in environmental issu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gan to pay attention to South Korea as an advanced country capable of leading the international order. Foreign media reports make Korea's imag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ir importance is growing day by day as they also affect the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domestic issues. In East Asia, not only tradi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erritorial disputes, but also more complicated issues such as the global supply chain crisis, infectious diseases, environmental issues, and cyberattacks persist. These issues, called emerging security, are hard to predict and require global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because of their transboundary nature. As Korea joins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it is required to play a role as a mediator for coexistence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For this, it is necessary to look at Korean foreign policy from more objective and various points of view. In this session, we will take a look at the trends in international media coverage of Korean diplomacy together, and invite journalists from major foreign media outlets to discuss, from their perspectives, Korea's desirable ro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management of key messages needed in the future.

안은주 AHN Eunju	외교부 부대변인 Deputy Spokespers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아오키 요시유키 AOKI Yoshiyuki	NHK 서울지국장 Seoul Bureau Chief, NHK
임연숙 LIM Yun Suk	채널 뉴스아시아 서울지국장 Seoul Bureau Chief, Channel News Asia
폴라 핸콕스 Paula HANCOCKS	CNN 서울특파원 Foreign Correspondent, CNN
조쉬 스미스 Josh SMITH	로이터통신 서울특파원 Foreign Correspondent, Reuters

September 16
(Fri)
-
09:00 - 10:20
-
Yeongju B



좌장/발표
Moderator/Speaker

패널
Panel

한-EU 전략협력의 미래: 지역협력, 경제안보 그리고 가치외교

**The Future of Korea-EU Strategic Cooperation:
Regional Cooperation, Economic Security and Value Diplomacy**

September 16
(Fri)
-
09:00 - 10:20
-
Baeknok A



좌장
Moderator

패널
Panel

2023년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수교 60주년을 맞이한다. 윤석열 신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대외정책의 근간을 제시한 바 있는데,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97), 능동적 경제 안보 외교 추진(98),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99) 등에서 유럽연합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다자간 협력체제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이익 블록화 시대로 전이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뜻을 같이하는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안보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외교관과 전문학자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갈등을 넘어 평화를 향한 공존과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In 2023,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will commemorate 6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The newly inaugurated Yoon Suk-yeol administration of Korea published 110 Key policy agendas which include 'co-prosperous regional network building', 'proactive economic security diplomacy' and 'strengthening role of Korea as Global Pivot State'. Against the backdrop of increasing nation-state-centrism and bloc realignment based on interests, we believe that it is all the more important to enhance strategic cooperation with like-minded partners such as EU. In this session, representatives from both public sector, academia and NGOs will gather together to discuss how to explore co-existence and further promote cooperation beyond conflict.

김창범 KIM Chang-beom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 Advisor, Center for Strategic and Cultural Studies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표부대사 Ambassador of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OK
서용주 SUH Yong Joo	외교부 서유럽과장 Director for Western Europ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요아나 도너바르트 Joanne DOORNEWAARD	주한 네덜란드대사 Ambassador of the Netherlands to the ROK
김시홍 KIM Sihong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소장, 학장 Professor, Director and De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홍규덕 HONG Kyu Dok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President,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K-디아스포라의 기억법: LA폭동에서 공존의 방안을 찾다

**K-diaspora Mnemonic:
Searching Ultimate Measures Through 'LA Riots' for Coexistence**

한인 이주민들을 또다른 이름으로 'K-디아스포라' 라고 부른다. 그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주어진 제약조건과 기회구조에 대응하면서 차별, 문화,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역경을 겪어왔다. 너무나 많은 'K-디아스포라' 가 해외 도처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들의 존재와 이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K-디아스포라' 의 개념과 역사에 주목한다. 갈등이 첨예한 제주4·3사건이 제주도 평화의 상징이 된 것처럼 공동체 의식을 필요로 했던 K-디아스포라 관련 역사가 한국 사회의 평화적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K-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직접 세션을 기획하여 K-디아스포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공존의 방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Korean immigrants are also called by the name 'K-diaspora'. Within the search for a new home and life outside of their homeland, K-diaspora immigrants have deal with discrimination for adversity, culture, community, and identity. Although so many 'K-diaspora' live together all over the country, many people are not aware of their existence and the social problems that arise in connection with K-diaspora. In this session, this session is focused on the concept and history of 'K-diaspora'. Just as the Jeju4·3 incident, which sharply became a symbol of peace on Jeju Island, this session seeks ways to make K-diaspora-related history the same. K-diaspora histories reflect how society lacks a sense of community. Our session seeks on 'K-diaspora' being the new symbol for peace in Korea. Our session coordinators who are particularly youth K-diasporas, plan this session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f K-diaspora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coexistence.

박동찬 PARK Dong-chan	청년사무국 지평선 팀원 Team Member, Horizon
강형원 KANG Hyung Won	찬란한 우리문화유산 컬럼니스트 Columnist, Visual History of Korea
윤인진 YOON In-Jin	고려대학교 교수 Professor, Korea University
최상구 CHOI Sang Koo	지구총동포연대 사무국장 Director,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전후석 Joseph JUHN	디아스포라 필름 감독 Director, Disapora Film Production

September 16
(Fri)
-
10:50 - 12:10
-
Sam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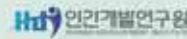


좌장
Moderator

패널
Panel

기업의 성장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How Will You Balance Corporate Growth with Social Responsibility?

September 16
(Fri)
-
10:50 - 12:10
-
Yeongju A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환경문제는 쓰레기의 재활용보다 우선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기업의 혁신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과 가성비 소비의 부상으로 이어지며 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왔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돌파구를 찾기가 힘든 경영환경에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ESG 세 가지 축을 만족시키는 기업 경영의 속제가 더욱 커졌다. 기업은 착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면서도 투자자의 이익을 책임져야만 하는 두 가지 속명을 또한 모두 안고 가는 시대가 되었다. 과연 기업의 성장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글로벌 모델, 그리고 기술과 투자라는 측면에서도 같이 살펴본다.

In the case of th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 innovation of companies that do not produce waste should take precedence rather than recycling waste.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to an increase in non-face-to-face and cost-effectiveness consumption around the world, causing rapid changes in the market. As the global economy becomes difficult, the task of corporate management that satisfies the three ESG axes of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has grown even in a business environment where it is difficult to find a breakthrough. It has become an era in which companies also carry both fate of satisfying the needs of good consumers while being responsible for the profits of investors. How can we coordinate corporate growth and social responsibility? We will look at the global model, as well as in terms of technology and investment.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오종남 OH Jong Nam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President, Human Development Institute
윤동한 YOON Dong Han	한국콜마 회장 Chairman, Kolmar Korea
임대웅 LIM Dae Woong	BNZ파트너스 대표이사 CEO, BNZ Partners
안지환 AHN JiWhan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 플래그십사업단 단장 Director, Carbon Mineralization Flagship Center,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하드파워의 충돌: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 Hard Powers in Collision: The Role of Public Diplomacy in Resolving the Conflicts

September 16
(Fri)
-
10:50 - 12:10
-
Yeongju B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경쟁의 본격화 등으로 인해 국제정치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균열과 더불어 가치의 진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 국가들은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고, 특히 연성권력 자원들을 활용하는 공공외교 전략 또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거대권력의 충돌로 인한 블록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공공외교가 설 자리는 있는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하는 공공외교는 무엇이며 어떠한 함의를 가져야 하는가? 또한 BTS, 오징어게임과 같은 문화 콘텐츠 열풍은 외교를 수행하는 주체를 다양화시켰다. 한국의 스마트파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어떻게 협력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andscape is shifting du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the intensifying U.S.-China competition. Given the current rift i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blocization” of values, middle powers are often forced to take sides. Such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call for adjustment of public diplomacy strategies that utilize soft power resources. What role can public diplomacy can play amid the deepening blocization following the conflicts between super powers? What public diplomacy strategy should the Republic of Korea pursue and what are its implications? In addition, the phenomenon of the ‘Korean Wave (Hallyu)’, such as the global craze for BTS and Squid Game, has diversified the agents of Korean diplomacy. Therefore, how ca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work together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the country's smart power globally?

김태환 KIM Taehwan	국립외교원 교수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제이 왕 Jay WANG	USC 공공외교센터 소장 Director, USC Center on Public Diplomacy
와타나베 야스시 WATANABE Yasushi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 Professor, Keio University
조기숙 CHO Ki-Suk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왕이웨이 WANG Yiwei	중국인민대학 교수 Professor, Renmin University of China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공존 없는 지구에서 살아온 동물들에게서 온 편지

**Is Ani-Body There?:
A Letter from Animals That Have Lived in Earth Without Co-Existence**

September 16
(Fri)
-
10:50 - 12:10
-
Baeknok A



좌장
Moderator

패널
Panel

‘동물과 인간의 공존’은 앞으로의 시대를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전 세계적 사회문제다. 실제로 UN SDGs에서는 ‘Life On Land’, ‘Life Below Water’ 라는 세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세계적 협력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세션은 인간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간과 동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축산동물, 전시동물과 같이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동물 중’을 살펴봄으로써 동물 생산업과 동물 전시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물권과 동물보호 문제를 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로 다시금 인식하고, 인간 종에게 국한된 경향을 보인 지금까지의 공존과 평화의 범위를 다른 생명체까지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지구적 공존과 평화로서 그 가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Though human form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animals, society has not addressed animal welfare problems seriously until now. In particular, there still exists a lot of animal maltreatment in the animal industry, such as factory farming and animal circuses. Hereat, this session aims to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animal welfare problems centered around animal production and animal exhibition. Through the discussion, We, as team ‘Ani-Body’, would like to present “Sustainable Co-Existence between Animals and Humans” as the ideal value that future generations have to pursue. Added to this, we would like to expand the meaning of co-existence and peace into a meaning that includes all living creatures on earth, not only humans.

엄지은 EOM Jieun	청년사무국 애니바디 팀원 Team Member, Ani-Body
김정호 KIM Jeongho	청주동물원 수의사 Veterinarian, Cheongju Zoo
김현지 KIM Hyunji	동물권행동 카라 실장 General Manager,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KARA)
박주연 PARK Joo Yeon	법무법인 방향 변호사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 Attorney-at-law, Banghyang Law P.C. / Director, People for Non-human Rights
조희경 JO Hee-kyung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대표 President,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JDC 노인도서관 JDC Old Man's Library

‘노인은 도서관이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긴 세월을 살아온 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도서관의 수많은 책과 같은 가치와 지혜를 함양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본 세션 JDC 노인도서관은 제주4·3 유족을 초청, 그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국내·외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JDC와 제주4·3연구소의 협업으로 발간된 <4·3과 여성-영문판>은 4·3을 겪은 여성들의 구술집으로 국내·외 약 450여 개의 교육 및 학술기관에 배포되어, 4·3의 전 세계적 인지도 제고에 이바지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JDC는 본 세션을 통해 제주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현시대 청년들에게 제주의 평화 가치를 전하고자 한다.

“Elderly man is a library.” An African saying values one’s experience and knowledge-earned during one’s long life span- as equivalent to the words of wisdom found in many books in a library. The session, JDC Old man’s Library, invites a witness, who lived through Jeju4·3 Incident, to share her life story; to inspire the youth around and across the globe. The Jeju April 3rd Incident Through Women’s Eyes, a storytelling book published by collaboration between JDC and Jeju4·3 Research Institute, explains the sight and life of Jeju4·3 Incident. The translated book had been sent to approx. 450 academic organizations,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the historical event. Likewise through this session JDC aims to build empathy on the painful history, as well as to spread the message of peace to the youth.

손미나 SOHN Mi Na	작가/인플루언서 Broadcaster
알베르토 몬디 Alberto MONDI	방송인 Broadcaster
인호진 IN Hojin	아티스트 (스윗소로우) Artist (SWEET SORROW)
송우진 SONG Woojin	아티스트 (스윗소로우) Artist (SWEET SORROW)
김영우 KIM Youngwoo	아티스트 (스윗소로우) Artist (SWEET SORROW)
허순자 HEO Soon Ja	4·3 유족 Bereaved of Jeju4·3 Incident
지혜원 JEE Hye Won	영화감독 Director

September 16
(Fri)
-
13:30 - 14:50
-
Halla



진행자
Host

초청 가수
Event Host

특별 연사
Special Guest

갈등의 시대, 국제금융의 미래와 동북아 협력방안

In the Era of Conflicts, the Future of International Finance and Cooperation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September 16 (Fri)

13:30 - 14:50

Samda



국제금융에 있어 2022년은 변곡점이 일어나는 해이다. 미국 중앙은행의 선제적인 금리 인상과 조기 테퍼링의 실시로 장기간의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그동안 누적된 거대한 유동성을 점차 줄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예상되는 강한 달러로 인한 자금 유출에 준비가 안 된 국가들은 통화가치 폭락 등으로 외환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통화가치 보전을 위해 금리상승을, 중국과 일본은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택하고 있다. 각기 다른 대응이 국가 간 자금 유출을 유도해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전망이다. 둘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를 도래시키고 있다. 이는 한일과 중국을 안보 차원에서 대립적으로 관계로 만들고 있고, 이에 미국이 중국고립을 겨냥한 기술 동맹을 추진하면서 한일과 중국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한·중·일 경제권이 공급망 사슬의 충격으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셋째는 팬데믹 이후 금융소비자들, 특히 MZ세대로 대변되는 신세대들은 재택근무와 자신들이 익숙한 테크회사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처리하려는 추세가 정착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업에서의 경쟁은 누가 이들 고객의 중심 플랫폼이 되느냐 여부에 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비용을 줄이면서도 현재의 시장 위치를 지키며 경제구조의 변화에 기민하게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넷째는 기후변화 등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에 금융이 앞장서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 특히 탄소 배출을 2050까지 급격히 0으로 줄이기 위해 원자력 비중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근접성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CBDC, 사이버테러 그리고 Big Tech 들의 소비자 정보 독점문제와 이를 이용한 자유로운 금융산업에의 진입 허용도 관심거리이다. 이에 대한 국제간 논의도 필요하다.

Global finance is facing a turning point in 2022. As the Federal Reserve is pre-emptively increasing interest rates and has begun tapering, the era of long-term low-rate interest periods is coming to an end. This year will see the beginning of a slow withdrawal of the massive liquidity that has accumulated over time. Given the forecasted strong dollar, countries that are not prepared for an outflow of funds are expected to face a sharp devaluation of their currencies. As Korea raises interest rates while China and Japan maintain low interest policy, the consequent currency adjustments may evoke carry trade among countries in this region. Secondly, a new cold-war era has arrived following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While Korea and Japan accused Russia on this matter, opposite to the Chinese position and as U.S.A. makes the technology coalition with Korea and Japan to isolate China, new tension arouses in this region. Conflict among three countries may accelerate the currently deepening economic recession through the supply-chain disruption. Thirdly, there is a trend towards consumers of financial products in the post-pandemic era, particularly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to work from home and conduct finance through th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ey have become so familiar with.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traditional financial industry is rushing into a competition to decide whose platforms will be used by these consumers. The situation calls for a revolution in the rapid creation of new streams of revenue by traditional financial companies in the face of changes to economic structures, while reducing costs and maintaining market share. Fourthly, if finance doesn't take a leading role in solvi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problems, an unsustainable future has already arrived. Nuclear power plants will inevitably take on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effort to eliminate all carbon emissions by 2050. East Asia in particular must take concrete steps to ensur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Finally, attention is also being drawn to cryptocurrencies built on block-chain technology, CBDC, cyber terrorism, and the monopoly on consumer data by big tech companies and their ability to use it in an unrestricted financial industry. These issues call for inter-governmental discussion.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전용욱 JUN Yongwook	제주한라대학교 부총장 Vice President, Cheju Halla University
선우석호 SONU Sukho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Chairman, Board of directors, KB Financial Group
윤석현 YOON Suk Heun	금융감독원 전 원장 Former Governor,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와타나베 요리즈미 WATANABE Yorizumi	일본칸사이국제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학부 학부장 Dean, Kansai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사연연 XIE Juanjuan	중국난카이대학교 교수 Professor, Nankai University
이영준 LEE Young Joon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Professor, Cheju Halla University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고령장애인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The Policy Development for Governance to Support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Beyond the Border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르며, 이와 더불어 고령장애인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013년 2,501천명, 2021년 2,644천명으로 5.7% 증가하였으나 고령장애인수는 2013년 1,009천명, 2021년 1,358천명으로 34.5% 증가하였다.

*등록장애인수 - 전국('13년) 2,501,112명 ('21년) 2,644,700명: ↑ 5.7% - 제주('13년) 32,673명 ('21년) 36,655명: ↑ 12.2%
*고령장애인수 - 전국('13년) 1,009,872명 ('21년) 1,357,965명: ↑ 34.5% - 제주('13년) 13,965명 ('21년) 18,338명: ↑ 31.3%
또한 신규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3년 36.4%, 2021년 55.1%로 2017년부터 고령장애인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 등록장애인수 중 65세 이상 비율(고령/신규) - 전국('13년) 20,683/56,684명:36.4% ('21년) 47,902/86,957명:55.1% - 제주('13년) 373/905명: 41.2% ('21년)708/1,294명: 54.7%
장애인의 고령화와 고령화에 따른 장애발생 등으로 등록장애인 대비 고령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장애인 비율(고령장애인/등록장애인) - 전국('13년) 40.3%→ ('21년)51.3% - 제주('13년) 42.7%→ ('21년) 49.7% - (제주/'22년)노인인구중 65세 등록장애인 비율: 16.5%
한편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인이라는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그동안 노인과 장애 분야에서 각각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취약점을 감안하는 노인과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국내·외 선진 지역의 고령장애인 현황 및 정책을 공유하고 고령화에 따른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장애인 이동지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돌봄,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 이원화된 영역의 분야별 협력으로 고령장애인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애·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고령장애인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유형 특성과 연령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등을 토론힬하여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Korea's aging rate is the fastest among OECD countries, and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is also increasing rapidly. The number of registered disabled persons in Korea increased by 5.7% to 2,501,000 in 2013 and 2,644,000 in 2021, but the number of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reased by 34.5% to 1,009,000 in 2013 and 1,358,000 in 2021.

*Number of registered disabled - National ('13) 2,501,112 ('21) 2,644,700: ↑ 5.7% - Jeju ('13) 32,673 ('21) 36,655: ↑ 12.2%
*Number of elderly and disabled - National ('13) 1,009,872 ('21) 1,357,965: ↑ 34.5% - Jeju ('13) 13,965 ('21) 18,338: ↑ 31.3%

In addition, among newly registere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roportion of those aged 65 and over was 36.4% in 2013 and 55.1% in 2021, with the elderly and disabled accounting for more than 50% from 2017.

*Ratio of 65 or older among the number of newly registered disabled people (old age/new)
- National ('13) 20,683/56,684: 36.4% ('21) 47,902/86,957: 55.1% - Jeju ('13) 373/905: 41.2% ('21) 708/1,294: 54.7%

Due to the aging of the disabled and the occurrence of disabilities because of aging, the ratio of the elderly with the disabled to the registered disabled is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Ratio of the elderly and disabled (elderly disabled/registered disabled)
- National ('13) 40.3% → ('21) 51.3% - Jeju ('13) 42.7% → ('21) 49.7% - (Jeju/2022) Ratio of registered disabled people aged 65 and over among the elderly population: 16.5%

On the other hand,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are a vulnerable group with a combination of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but in the meantime, each welfare policy is being pursued in the fields of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t is a time when a complex policy is needed that encompasses polici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hat take into account the continuously increasing vulnerability of the elderly and disabled. Accordingly, we share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in domestic and foreign advanced regions and prevent the occurrence of disabilities due to aging. Also, we support social activities for the disabled and healthy old-age life through cooperation in two areas, such as providing help for vulnerable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We plan to discuss ways to develop policies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that can complement each other and coexist across the boundaries of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In addition, we intend to explore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net in the local community in preparation for the approaching super-aged society by discussing the policies and systems that can be suppor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 of disability and age.

강석봉
KANG Suk Bong

제주특별자치도 과장
Direct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김재근
KIM Jaekeun

메지로대학교 교수
Professor, Mejiro University

김경미
KIM Kyung Mee

송실대학교 교수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김동범
KIM Dongbum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남진열
NAM Chinyeol

제주대학교 교수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현지홍
HYUN Ji Hong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Council Membe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September 16 (Fri)

13:30 - 14:50

Yeongju A



좌장 Moderator

기조연설 Keynote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시사점 및 향후 계획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Peace: Implications and Ways Forward

September 16
(Fri)
-
13:30 - 14:50
-
Yeongju B



개인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능성을 안보 대상으로 인식하는 인간안보와 전통적인 관점의 국가안보 모두에서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협은 가장 중요한 안보 쟁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기상이변, 홍수와 가뭄, 식수와 식량부족, 해수면 상승 등 생계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난민이 되어 떠돌아다니거나,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는 결국 정치·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유발하여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생활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의 생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 센터가 주관하는 세션에서는 기후변화와 평화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조망해보고,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해 이 관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The threats posed by climate change have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critical security challenges in terms of both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which refers to the security of people and communities related to feeling safe, such as freedom from fear, freedom from want, and freedom from indignity. Climate change gives rise to more frequent and intense floods and droughts, storms, lack of drinking water and food, rising sea levels, which are formidable threats to the livelihoods of people. Climate disasters also drive displacement, where people can easily become refugees, undermining people's security and well-being. Also, they can frequently get embroiled in conflicts over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his can render adverse impacts on both human and national security in political, societal and economic aspects. Against this backdrop, the session organized by UNITAR CIFAL Jeju/JITC will explore the nexus of climate change and peace, and discuss how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nexus for building sustainable peace along with the ways forward.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최홍기 CHOI Hong-ghi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Director, UNITAR CIFAL Jeju/Jeju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황수영 HWANG Soo-Young	유엔환경프로그램 법무관 Legal Officer,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플로리안 크램프 Florian KRAMPE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기후변화/위기 프로그램 책임 선임연구원 Director of the Climate Change and Risk Programm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문경연 MOON Kyungyon	전북대학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이탁건 LEE Takgon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Associate Legal Officer, UNHCR Korea

그린테크를 활용한 넷제로 달성: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

Achieving Net-Zero Using AI Green Technology: The Future of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Industry

전 세계가 갈등을 넘어 평화로 가기 위해 '공존' 과 '협력' 은 필수이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기술적 격차는 새로운 갈등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주변 국가의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린테크를 활용한 넷 제로(net zero) 달성과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에 대한 고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Net-zero)' 선언으로 범세계적 대응과 연대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에 기여금 4백만 불을 신규 공여하기로 하면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연대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1년 11월, P4G로부터 에너지 부문 최우수파트너십을 수상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성과 우수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의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P4G와 연계한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영국의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 사례, AI 기반의 그린테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Coexistence and cooperation are essential for the world to go beyond conflict to peace.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conomic and technical gap for carbon neutrality may emerge as a new element of conflict. In addition, the operation of coal-fired power plants in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the Russo-Ukraine war will be a new obstacle to carbon-neutral energy conversion. At this point, it is very timely to think about achieving net zero using Green Tech and the future of the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indust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claration of "2050 carbon neutrality" is further emphasizing global responses and partnerships. In March, Korea took the lead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with a new contribution of \$4 million to P4G in Washington, D.C. Jeju was awarded State-of-the-Art partnership in the energy sector from P4G in November 2021, drawing attention as an excellent example of Korea's efforts and achievements for a carbon-neutral society. Through this forum, it will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global climate crisis response efforts and seek ways to support green transform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linked to P4G. In addition, experts present and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industry through examples of the UK's offshore wind cluster, AI-based green technolog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global carbon neutrality.

이개명 LEE Gaemyoung	제주대학교 교수 / (사)카본프리 아일랜드 이사장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 Chief Director, Carbon Free Island Jeju
홍중호 HONG Jong Ho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안 데 크루즈 Ian de CRUZ	세계자원연구소 지속가능 비즈니스센터, P4G 사무국장 Global Director, World Resources Institute, P4G
전창배 JEON Chang B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Chairman, International Assosication For AI and Ethics
이유진 LEE Yujin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Local Energy Transition Network
고윤성 GO Yun Seong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장 Low-Carbon Policy Division Direct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김태건 KIM Tae Kun	녹색기술센터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장 Director, National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Green Technology Center

September 16
(Fri)
-
13:30 - 14:50
-
Baeknok A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글로벌 위기 속 스타트업을 통한 저성장시대 혁신 전략

**Innovation Strategy Against Global Crisis:
Start-ups to Resolve Muted Growth**

September 16
(Fri)

15:20 - 16:40

Halla



사회
MC

좌장
Moderator

환영사
Welcoming Remarks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내외 고용시장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벤처/스타트업은 지난해 일자리 5만4천 개를 늘렸다.
- 대기업의 채용 규모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스타트업과 벤처가 우리 경제의 탄탄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혁신 스타트업들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제주포럼 대주제인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에 맞춰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국내외 성공사례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주와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The worldwide job market is at its worst stage due to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COVID-19 pandemic. Especially, South Korea is facing the steepest employment loss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Despite the mentioned circumstance, venture capital/start-up businesses have created approx. 54 thousand job places last year.

This scale of employment is considered bigger than that of conglomerates, meaning start-ups and venture capitals are now a recognizable part of South Korean economy, proving that innovative start-ups are producing jobs as well as contributions to economic revitalization in this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ession aims to provide a platform of discussion in entrepreneurship, under the main theme of Jeju Forum;. The discussion will invite those in interest and conduct communication to share cases of successful start-up businesses and to draw a s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Jeju as well as South Korea.

이무록 LEE Moorok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팀장 Direct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곽진규 KWAK Jingyu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단장 General Direct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양영철 YANG Youngchul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Chairma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장남준 JANG Namjun	한국벤처투자 본부장 Senior Managing Director,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김종현 KIM Jonghyun	제주더큰내일센터 센터장 Head of Center, Jeju Youth Job Center
최명동 CHOI Myung-dong	제주특별자치도 국장 Director-General,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이현재 LEE Hyunjae	우아한형제들 이사 Director of Public Policy, Woowa Brothers
정미나 JUNG Mina	당근마켓 실장 GR Lead, Daangnmarket

‘미래와의 공존’ ESG와 한국 기업 경영

‘Coexistence with the Future’ ESG and the Korean Corporate Management

September 16
(Fri)

15:20 - 16:40

Samda



한국경제매거진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로 기업이 비재무적 요소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해당 기업의 생산과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직원과 주주와 고객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이는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지금 ESG에 소홀한 기업은 감내해야 할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우선 주가 관리가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국민연금은 ESG를 투자의 기본원칙으로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도 힘들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협력 시 ESG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매거진은 무크 ‘ESG: 개념부터 실무까지’를 시작으로 2021년 7월부터 매월 ‘한경ESG’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ESG 콘텐츠 부문에서 국내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매거진은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전문 위원과 전문 기자들이 세션에 참석해 ESG와 기업 경영의 미래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ESG stands for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which are indicators of companies' non-financial elements. Recently, ESG becomes more essential for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eco-friendly production processes and demands for the contribution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ety. Companies that neglect ESG right now would have a significant disadvantage to bear. First of all, stock price management is difficult. For instance,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announced that they will take into account ESG as a basic principle of investment. Second, collaboration with global companies would become also tough. Companies in the U.S. and Europe are demanding ESG performance when collaborating. The Korea Economic Magazine has been publishing ‘Hankyung ESG’ every month since July 2021, starting with a book titled ‘ESG: From Concept to Practice’. The Korea Economic Magazine has the largest competitiveness in the ESG content sector in Korea with a professional journalists and experts who are creating contents together. The Korea Economic Magazine would like to participate as a part of the session in order to discuss the future of ESG and how to manage ESG factors in a more efficient way.

김정우 KIM Jungwoo	한국경제매거진 차장 General Manager, The Korea Economy Magazine
조윤남 CHO Yunnam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CEO, Dae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송수영 SONG Soo Young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Lawyer, SHIN & KIM LLC.
이재승 Jason LEE	주식회사 카카오 이사 Director, KAKAO Corp.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가치기반 기술블록화 시대의 생존 전략: 공존을 위한 과학기술외교의 방향

Surviving in the Era of Technology Alliance Blocks: Strategic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for Coexistence

September 16
(Fri)
-
15:20 - 16:40
-
Yeongju A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핵심기술과 관련한 가치 기반 기술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은 기술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기술 블록화에 소외된 개발도상국들을 포용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동 세션에서는 쿼텀, 기후, 우주, 바이오 등 신흥·핵심기술 분야별로 우리나라가 주요 기술 선도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윈-윈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개발도상국들과의 포용적 공존 확대를 위한 협력 모델에 대해 논의한다.

In a world where we are seeing more and more alliance blocks led by the U.S. in emerging and critical technologies, a country's science and technology level is a crucial factor in determining whether it can be part of any technology alliance block and whether it can coexist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this could also be used as a diplomatic opportunity to embrace the developing countries that are lagging behind, and now is the time to start thinking about how to make use of this opportunity.

In this session, participants will explore win-win strategies for maintain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leading countries in quantum, climate, space, and bio technologies and discuss cooperation models to foster inclusive coexistence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economies.

김승환 KIM Seunghwan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Professor,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윤성덕 YUN Seong-deok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Deputy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케네스 오이 Kenneth OYE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유준구 YOO Joonkoo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김소영 KIM So Young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Professor,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박지영 PARK Jiyoung	경제사회연구원 기술정책센터장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y and Society
김병주 KIM Byoung-Joo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혐오를 넘어: 공존의 시대를 위한 성찰과 연대

Beyond Hate: Reflections and Solidarity Towards the Era of Co-existence

‘혐오’는 오늘날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혐오 표현이나 행동은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편 가르기와 ‘혐오’로 분출될 뿐만 아니라 최근 젠더 갈등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에서 혐오는 정치 이념과 얽혀 정치의 핵심 수단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혐오사회』의 저자인 독일의 카롤린 엠케 박사는 혐오는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성된다고 하였다. 혐오 현상의 진상과 그 사회적 해악들을 진단하고, 공존의 시대를 위한 성찰과 적극적 연대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세션에서는 혐오 현상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비롯해 여성, 소수민족, 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의 이해, 그리고 혐오 극복을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노력을 공유하고 공존의 시대로 가기 위한 실질적 방법들을 고민한다.

‘Hate’ has emerged as one of the keywords that penetrates Korean society today. Hate speech and behavior not only have erupted into hatred toward specific social groups, but as can be seen from the recent gender conflict issue, hate is intertwined with political ideology and has come to emerge as a key means of politics. Dr. Carolin Emcke of Germany, author of Against Hate, said that hate is not explode out of nowhere, but is trained and nurtured. This is why it is necessary to delve into the truth about hate phenomena, and to reflect on and make active solidarity efforts towards co-existence. In this session, we will explore the nature of hate phenomena targeted towards specific groups, share various efforts and outcomes at home and abroad to overcome hate, and discuss practical ways to move towards the era of coexistence.

민무숙 MIN Moo Suk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President,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표부대사 Ambassador of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OK
김석호 KIM Seokho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영희 KIM Younghee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Chief Editorial Writer, The Hankyoreh
신은화 SHIN Eunhwa	제주대학교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한민호 HAN Min Ho	제주대정중학교 교사 Teacher, Jeju Daejeong Middle School

September 16
(Fri)
-
15:20 - 16:40
-
Yeongju B



좌장/개회사
Moderator/Opening Remarks
기조연설
Keynote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공존, 공진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

A Cultural City as a Platform for Coexistence and Co-evolution

September 16 (Fri)
- 15:20 - 16:40 -
Baeknok A



Jeju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오늘날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 많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공존과 공진화를 위해 문화 교류·문화 협력으로 상호 문화 다양성을 문화도시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즉, 포용과 현대의 문화도시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세션에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공공 가치를 만들어가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문화도시라는 공간과 이 안에서 공존과 공진화의 지렛대로서 문화적 참여, 소통, 협력의 다양한 시각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여, 세계가 갈등과 폭력의 악순환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류의 공존과 공진화를 위한 문화적 창의, 혁신, 협력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문화도시의 플랫폼 전략과 도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We've all been suffered a lot of conflicts such as Ukraine War and COVID-19 pandemic, etc. In order to get over and go ahead, we discuss mutual cultural diversity through cultural exchange and cultural cooperation for the coexistence and coevolution of world peace in the session. Namely, To build up the culture city of tolerance and hospitality is to be a platform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world. This session reviews diverse perspectives and cases on the culture city as an innovation platform where human society responds to crises effectively and develops public values. It also introduces various examples of how cultural participati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leverag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We are able to keep making efforts to stop conflicts and violence so that we return to our's former state. To sum up, the ultimate goal is to suggest the strategies and action plans of culture city about cultural creativity, innovation policy, and collaborative vision.

- 김정훈 KIM Junghoon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Vice Chairman, Committee for Cultural Cooperat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피에르 루이지 사코 Pier Luigi SACCO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석 자문관 Senior Advisor,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김혁주 KIM Hyukjoo 비로컬주식회사 대표 CEO, Belocal Inc.
- 김태관 KIM Tae Gwan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공연기획 전문가 Expert Advisor,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 신용식 SHIN Youngsik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장 Director, Hallyu Content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이광준 LEE Gwangjun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센터장 Director, Seogwipo City Center for Cities of Culture

글로벌 에너지·자원 갈등 심화와 한-아프리카 협력의 미래

The Korea-Africa Cooperation in Addressing Global Energy Resource Crisis

September 16 (Fri)
- 17:10 - 18:30 -
Samda



최근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광범위한 금수 조치를 내림으로서, 글로벌 에너지·자원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세계는 러시아산 자원에 대한 대안으로 아프리카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EU는 금년 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기존의 30%로 감소시키기로 하였으며, 나이지리아, 앙골라, 세네갈, 남수단 등과 천연가스 수입을 논의 중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알제리와 2023~2024년 천연가스 수입을 40% 증가시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집트,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등과도 천연가스 추가 수입 논의에 착수하였다. 더불어 니켈, 백금, 팔라듐 등 러시아산을 대체할 아프리카산 광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에너지·자원 경쟁이 심화되며 아프리카가 에너지 시장의 신규 주요 행위자로 부상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정정 불안, 국가·지역 내 분쟁 등 정치적 위험성, 낙후된 인프라로 인한 높은 개발비용 등 위험요인을 내재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정부들은 코로나19,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축된 경제를 에너지 수출로 타개해보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역시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할 때이다. 본 세션에서는 격화되는 에너지 자원 경쟁 현황을 자원의 격전지인 아프리카 중심으로 살피고, 한-아프리카 협력이 갈등 해소와 공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the European Union(EU), has imposed an extensive embargo on Russian gas and oil due to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t is seeking a new partner: Africa. The EU has decided to reduce its dependence on Russian fuels to 30 percent this year and discussed gas imports with Nigeria, Angola, Senegal, and South Sudan. Italy has agreed with Algeria to increase natural gas imports by 40 percent from 2023 to 2024 while initiating the discussion with Egypt, Angola,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nd Mozambique for additional gas imports. In addition, interest in African minerals such as nickel, platinum, and palladium for replacing Russian products is growing. This situation shows that the global energy market is changing rapidly and that Africa has emerged as a key actor. Although Africa faces the risks of high development costs associated with limited infrastructure, political instability, and conflicts within countries and regions, African governments have shown a strong will to recover from the economic repercussions of the COVID-19 pandemic, climate change and the Russia-Ukraine war via energy export. Korea, heavily dependent on imported major energy resources, should also explore the African continent as a new alternative and strengthen the Korea-Africa relationship. In this session, we will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intensifying competition for energy resources by focusing on Africa, which has emerged as a new alternative energy resource exporter. Also, we will discuss the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the Korea-Africa cooperation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global competition and conflicts.

- 황규덕 HWANG Kyu Deug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여운기 LYEO Woon-ki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President, The Korea-Africa Foundation
- 윤성덕 YUN Seong-deok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Deputy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바네사 우시에 Vanessa USHIE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천연자원센터 센터장 Acting Director, African Natural Resources Centre of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 한선이 HAN Seon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한강욱 HAN Kangwook 전북대학교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손병일 SON Pyong-I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위원 Senior Consultant,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좌장 Moderator
개회사 Opening Remarks
환영사 Welcoming Remarks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사이버안보 규범의 현황과 쟁점

Building up Peaceful Cyberspace: Trends and Issues of Cybersecurity Norms and Laws

September 16
(Fri)
-
17:10 - 18:30
-
Yeongju A



좌장
Moderator
발표
Speaker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은 점차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들 수 있는 국제적인 사이버안보 규범 조성이 중요함. 이러한 가운데, 유엔 1위원회 산하 제2차 정보 안보 '개방형 워킹그룹(OEWG)' 에서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놓고 신병전과 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음. 지난 3월 개최된 OEWG 회의에서는 이러한 견해 차이로 참여국들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 지난한 어려움이 있었음. 더욱이 개방형 워킹그룹은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 다중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더욱 복잡한 사이버안보 규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제주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 간 논의를 통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각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추단체 보고, 참여국들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건설적으로 국제 사이버안보 규범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함.

With the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the ways of cyber attacks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diversified. For sustainable peac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international norms on cybersecurity that all UN member states need to develop in a way of a peaceful cyberspace. In this regard, the 2nd OEWG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Thereafter, we have witnessed the conflict of opinions among member states that some say could be considered a new cold-war in the field of cyber security. Due to the conflict, the OEWG has had many struggles in the whole process to achieve consensus. Furthermore, active participation of multi-stakeholders has also complicated the discussions of norms in the OEWG Process. The Jeju Forum brings together experts not only from Korea but also from all over the world to infer views on cyber security and how member States can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discussion on international cyber security norms.

박노형 PARK Nohyoung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유준구 YOO Joonkoo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남승현 NAM Seunghyun	국립외교원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김수라 KIM Sura	외교부 국제안보과장 Director, International Security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시이 유리카 ISHII Yurika	일본 방위대학교 준교수 Associate Professor, National Defense Academy of Japan
퍼거스 핸슨 Fergus HANSON	호주전략정책연구소 국제사이버정책센터 센터장 Director, ASPi's International Cyber Policy Centre

평화롭고 포용적인 내일의 도시 개발

Shaping Peaceful and Inclusive Cities of Tomorrow

도시화는 최근 세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이다. 도시화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나, 도시 내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과 소외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계획이 잘못된 도시는 경제 혼란, 사회적 불안, 환경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차별, 폭력,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접근의 제한 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사회에 참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 미래의 도시가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도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는 제19회 청년워크숍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도시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문제에 대해 배우고, 인간 중심의 해결책을 직접 기획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세션은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분석하여, 공존과 평화의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Urbanization has bee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riving forces of recent global development. But while urbanization is moving the global economy forward, rising inequality and exclusion within cities may derail development progress. Poorly planned urbanization has resulted in economic disorder, civil unrest, conges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Also, it often leaves the vulnerable population such as women, childr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PWD), to face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quality of life, ranging from having to face discrimination, violence, or limited access to infrastructure and basic public services. To make sure that tomorrow's cities provide opportunities and better living conditions for all,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inclusive cities and shape them to attain long-term sustainability. In this regard, UNITAR CIFAL Jeju, through its 19th Youth Workshop, invited our future leaders, the youth to learn about inequalities and challenges in current cities and design their own solutions to create a mindful and people-centered city. This session will explore some of the most innovative ideas by the youth and discuss the way forward for shaping cities of coexistence and peace.

진행 MC	홍승영 HONG Seungyoung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연수기획관 Program Officer, UNITAR CIFAL Jeju/Jeju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인사말 Opening Remarks	최홍기 CHOI Hong-ghi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Director, UNITAR CIFAL Jeju/Jeju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발표 Speaker	이서현 LEE Seohyeon 연세대학교 학생 Student, Yonsei University
	헤븐드란 타밀 셀븐 Heavendran THAMIL SELVAN 고려대학교 학생 Student, Korea University
토론 Discussant	윌프레도 프리나스 루인 Wilfredo RUIN 경북대학교 학생 Stud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이안 브라니타 Ian PRANITA 서울대학교 학생 Masters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완니 마라뵌 Vanny MALAPIN 신라대학교 학생 Student, Silla University
발표 Speaker	로베르타 라미레즈 라모스 Roberta RAMIREZ RAMOS 연세대학교 학생 Student, Yonsei University
	시린 엘미 Shirin Cristina ELMÍ FLORES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이트겔투그스 알탄수흐 Itgeltugs ALTANSUKH 부산대학교 학생 Masters Stud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수만 비스와스 Suman BISWAS 성균관대학교 학생 Graduate Student, Sungkyunkwan University
호수에 로페즈 Josue LOPEZ 서울대학교 학생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라비 상카르 판딧 Ravi Shankar PANDIT KDI국제정책대학원 학생 Masters Student,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다야나 볼라트베코바 Dayana BULATBEKOVA 울산과학기술원 학생 Studen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박정현 PARK Jung Hyun 한경대학교 학생 Student,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존칼 아론사가이 John Carl ALONSAGAY 아주대학교 학생 Graduate Student, Ajou University
알란드 다르마완 Alland DHARMAWAN 연세대학교 학생 Graduate Student, Yonsei University

September 16
(Fri)
-
17:10 - 18:30
-
Yeongju B



토론
Discussant

발표
Speaker

토론
Discussant

난생처음: 난민과 국민, 공존과 협력의 시작

**For the First Time in Refugee Life:
The Beginning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Between Refugees and the Citizen**

September 16
(Fri)
-
17:10 - 18:30
-
Baeknok A



대한민국에서 난민은 어떠한 시선을 받고 있을까.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예멘 난민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 국민 난민 인지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높아진 난민 인지도에 비해 난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또한 과거에 난민이었던 역사를 가졌고, 국제법 이행 의무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계 공동의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난민 인식 실태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난민과 우리 국민의 갈등을 줄이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난민과 국민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난민 인식 개선의 장, '난생처음: 난민과 국민, 공존과 협력의 시작' 에서 출발한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a history of being a refugee in the past, and it is a country with an obligation to implement international law. In this respect, this session will be focused on the global common refugee problem and the practical solution. In this session, the main focus is to figure out the direction to improve refugee perception with the current status of refugee awareness of the Korean people. In addition, it 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fugees and citizens to reduce conflict and promote harmony. It starts with "For the First Time in Refugee Life: The Beginning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Between Refugees and the Citizen."



좌장
Moderator

패널
Panel

김영아 KIM Youngah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대표 Executive Director, Migration to Asia Peace(MAP)
최원근 CHOI Won Geun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이새길 LEE Saegil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보지원담당관 Communications Associate, UNHCR Represen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알무함마드아가 압둘와합 Abdul Wahab Al Mohammad Agha	헬프시리아 사무국장 General Director, HelpSyria
이일 LEE Il	공익법센터어필 변호사 Attorney at Law,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SPEAKERS



SPEAKERS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Khaled ABDEL RAHMAN 칼레드 압델 라만	Ambassador of Arab Republic of Egypt to the ROK 주한 이집트대사	28
Jean-Paul ADAM 정 폴 아담	Director, UN Economic Council for Africa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국장	4
AHN Choong-Yong 안충영	Distinguish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81
David AHN 안경훈	Vice President, Korea Peace Economy Forum 한반도평화경제포럼 부이사장	32
AHN Eunju 안은주	Deputy Spokespers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부대변인	83
AHN JiWhan 안지환	Director, Carbon Mineralization Flagship Center,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 플래그십사업단 단장	86
AHN Young-hoey 안영희	Hea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enter in Seocho-gu, Seoul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서초구수어통역센터 센터장	35
AIBOSHI Koichi 아이보시 코이치	Ambassador of Japan to the ROK 주한 일본대사	26
AKIYAMA Hiroko 아키야마 히로코	Professor Emeritus, The University of Tokyo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49
Abdul Wahab AL MOHAMMAD AGHA 알무함마드아가 압둘와합	General Director, HelpSyria 헬프시리아 사무국장	102
Abdulla Saif AL NUAIMI 압둘라 세이프 알-누아이미	Ambassador of U.A.E to the ROK 주한 UAE대사	28
Sultan AL RUBAEI	Researcher, TRENDS Research & Advisory(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77
Elyazia ALHOSANI	Deputy Head of Media Sector, TRENDS Research & Advisory(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77
John Carl ALONSAGAY 존칼 아론사카이	Graduate Student, Ajou University 아주대학교 학생	101
Sami M. ALSADHAN 사미 알사드한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to the ROK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	27
Itgeltugs ALTANSUKH 이트겔투그스 알탄수흐	Masters Stud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학생	101
Dalila Yasmin AMRI SUED 달릴라 야스민 암리 수에드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Rwanda to the ROK 주한 르완다대사	41
AN Jun-Seong 안준성	Visiting Professor / Attorney-at-Law,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미국 메릴랜드주 변호사	80
AOKI Yoshiyuki 아오키 요시유키	Seoul Bureau Chief, NHK NHK 서울지국장	83
ASAL Al-Tal 아살 알탈	Ambassador of Jordan to the ROK 주한 요르단대사	27
Isaac ASARE 아이작 아사레	Program Manager,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프로그램 매니저	38
AYHAN Kadir 아이한카디르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34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BAHK Joungyeon 박정연	Representative, Grid-A Architecture 그리드에이건축사사무소 대표	32
Jon BATEMAN 존 베이트먼	Senior Fellow,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80
BEK Bum-hym 백범흠	Deputy Secretary-General,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40
Kyle BERGMAN 카일 버그만	Director, Pacific Rim Park 환태평양평화공원재단 회장	43,48
Suman BISWAS 수만 비스와스	Graduate Student, Sungkyun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학생	101
Tobias BORCK	Research Fellow for Middle East Security Studies,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77
Klaus BOSSELMANN 클라우스 보셀만	Professor, University of Auckland 오克蘭드대학교 교수	72
Mariana BUDJERYN 마리아나 부제린	Senior Research Associate,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	56
Dayana BULATBEKOVA 다야나 블라트베코바	Studen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울산과학기술원 학생	101
Raymond BURGARDT 레이몬드 버그하트	President, Pacific Century Institute 태평양세기연구소 회장	42
Alice CAEDDU 엘리스 카데두	Deputy Head, Erich Maria Remarque Peace Center 오스나브뤼크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평화센터 부관장	48
Maria CASTILLO FERNANDEZ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Ambassador of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OK 주한 EU대표부대사	84,97
CHAE Yeon-Seok 채연석	Chairman, Aviation &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68
CHO Hee-kyung 조희경	Instructor, Korea Nazarene University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강사	35
CHO Jin-Goo 조진구	Assistant Professor,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74
CHO Jung Hee 조정희	Vice President, Korea Maritime Institut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65
CHO Jungho 조정호	Manager, Korea Saemaul Undong Center 새마을운동중앙회 과장	44
CHO Ki-Suk 조기숙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87
CHO Kunshik 조건식	Chair Professor, Halla University 원주한라대학교 석좌교수	51
CHO Namun 조남운	Associate Research Fellow, Jeju Research Institute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67
CHO Sungmin 조성민	Professor,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 교수	63

SPEAKERS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CHO Wonbin 조원빈	Associat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46
CHO Won-Young 조원영	Research Fellow,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itute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64
CHO Woohyun 조우현	Director, Korea-EU Research Centre 한-EU 연구협력센터 소장	68
CHO Yunnam 조윤남	CEO, Daeshin Economic Reserch Institute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95
CHOI Byung Il 최병일	President,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33,81
CHOI Dong Ju 최동주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46,65
CHOI Eunmi 최은미	Research Fellow,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4
CHOI Hong-ghi 최홍기	Director, UNITAR CIFAL Jeju/Jeju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92,101
CHOI Myung-dong 최명동	Director General,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 국장	94
CHOI Sang Koo 최상구	Director,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지구총동포연대 사무국장	85
CHOI Sang Yong 최상용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6
CHOI Sung-kwon 최성권	Adjunct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39
CHOI Suyoung 최수영	Architect, Suyoung Atelier 수영아틀리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32
CHOI Won Geun 최원근	Research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102
CHOI Yunmi 최윤미	Director, TF Team on UN PKO Ministerial Meeting,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국방대학교 유엔국방장관회의TF장	60
CHUN Eui Young 천의영	President,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32
Alec CHUNG 정승철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부연구위원	36
CHUNG Jae-Jung 정재정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Seoul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82
CHUNG Jinsuk 정진석	Deputy Speaker of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26
Ian de CRUZ 이안 데 크루즈	Global Director, World Resources Institute, P4G 세계자원연구소 지속가능 비즈니스센터, P4G 사무국장	93
Federico Alberto CUELLO CAMILO 페데리코 알베르토 쿠에요 까밀로	Ambassador of the Dominican Republic to the ROK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	27,28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Johnny D. REINOSO-VÁSQUEZ 조니 레이노소	Chief of Diplomatic Mission of the Republic of Ecuador to the ROK 주한 에콰도르대사관 공관장	27
Amado Philip DE ANDRES 아마도 필립 데 안드레	Regional Director,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지역국장	38
John DELURY 존 델러리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45
Alland DHARMAWAN 알란드 다르마완	Graduate Student,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학생	101
DO Kyung-ok 도경옥	Director of Peace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63
Joanne DOORNEWAARD 요아나 도너바르트	Ambassador of the Netherlands to the ROK 주한 네덜란드대사	84
Barry EICHENGREEN 배리 아이켄그린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교수	73
Shirin Cristina ELMÍ FLORES 시린 엘미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101
ELMS Deborah ELMS 데보라 엘스	Executive Director / Founder, Asian Trade Centre Pte Ltd 아시아무역센터 대표	70
EOM Jieun 엄지은	Team Member, Ani-Body 청년사무국 애니바디 팀원	88
John R. EPERJESI 존 에퍼제시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교수	29
Weldon EPP 웰던 엡	Director General, Global Affairs Canada 캐나다 외교부 국장	55
Katelyn FERRALL 케이틀린 페럴	Reporter, Milwaukee Journal Sentinel 밀워키 저널 센티널 기자	42
Corinne FLEISCHER 코린 플레이셔	Regional Director, WFP Regional Bureau for the Middle East, Northern Africa and Eastern Europe WFP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 지역사무소 지역본부장	62
Brandon FRIEDMAN	Director of Research The Moshe Dayan Center (MDC), Tel Aviv University	77
Marc GARNEAU 마크 가노	Member of Parliament, Parliament of Canada 캐나다 의회 하원의원	55
Marianne GERDES 마리안 게르데스	Executive Director, Illan-Lael Foundation 일란라엘재단 사무국장	43
GO Yun Seong 고윤성	Low-Carbon Policy Division Direct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장	93
Laurent GOETSCHÉL 로렌트 고첼	Director, Swisspeace 스위스피스 소장	23
GONG Min-Seok 공민석	Assistant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조교수	51
Olga GREBENNIK 올가 그레벤니크	Freelance Illustrator, Writer 프리랜서 화가, 작가	66
Hector GUERRA 헥토르 게라	Director,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Cluster Munition Coalition (ICBL-CMC) 지뢰금지국제운동 대표	23

SPEAKERS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HA Young-Sun 하영선	Chairman, East Asia Institute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22
HAMACHI Masakazu 하마치 마사카즈	House of Representatives,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일본 중의원 의원	26
HAN Intaek 한인택	President of the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41
HAN Jae-Hung 한재흥	Professor,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67
HAN Kangwook 한강욱	Assistant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조교수	99
HAN Kyung Koo 한경구	Secretary-General of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54
HAN Min Ho 한민호	Teacher, Jeju Daejeong Middle School 제주대정중학교 교사	97
HAN Sang-Wook 한상욱	Directo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장	64
HAN Seoni 한선이	Associate Research Fellow,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99
HAN Sukhee 한석희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33
HAN Xiandong 한셴둥	Professor,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중국政法대학 교수	63
Paula HANCOCKS 폴라 헨콕스	Foreign Correspondent, CNN CNN 서울특파원	83
Philippe HANSCH 필립 한쉬	Director, World Center for Peace, Liberties and Human Rights 세계평화자유인권센터 센터장	48
Fergus HANSON 퍼거스 헨슨	Director, ASPI's International Cyber Policy Centre 호주전략정책연구소 국제사이버정책센터 센터장	100
Fabienne HARA 파비엔 하라	Secretary General, Paris Peace Forum 파리평화포럼 사무총장	22
Benoit HARDY-CHARTRAND	Adjunct Assistant Professor, Temple University Japan	37
Christoph HEIDER 크리스토프 하이더	President,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84
William HENNIGAN 윌리엄 헤니건	National Security Correspondent, Time Magazine 타임지 국가안보문 특파원	42
HEO Ho Jun 허호준	Journalist, The Hankyoreh 한겨레 선임기자	29
HEO Soon Ja 허순자	Bereaved of Jeju4·3 Incident 4·3 유족	89
Yumi HOGAN 유미 호건	The First Lady of the State of Maryland 미국 메릴랜드 주 퍼스트레이디	54
HONG Jong Ho 홍중호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교수	93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HONG Kyu Dok 홍규덕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84
HONG Min 홍민	Director of North Korea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47
HONG Seungyoung 홍승영	Program Officer, UNITAR CIFAL Jeju / Jeju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연수기획관	101
HONG Youngki 홍영기	Ambassador for Polar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28
Lise M. HOWARD 리즈 호워드	President,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 Professor, Georgetown University 유엔체제학회 회장 /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24
HUANG Jiyuan	Current Affairs Commentator	37
Tina HUANG	Multilingual Host	37
John HUDSON 존 허드슨	National Security Reporter, The Washington Post 워싱턴포스트 외교안보담당기자	59
HUH Jungwon 허정원	HK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76
HUH Won-Soon 허원순	Editorial Writer, The Korea Economic Daily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80
HWANG Ildo 황일도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국립외교원부교수	47
HWANG Juneseo 황준서	PhD Researcher, Queen's University Belfast 퀸즈벨파스트대학교 박사과정	60
HWANG Kyu Deug 황규득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99
HWANG Soo-Young 황수영	Legal Officer,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프로그램 법무관	92
HYUN Eul Saeng 현을생	Commissioner, Special Committe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t 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ssion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73
HYUN In-Taek 현인택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 Professor Emeritus, Korea University 전 통일부장관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4
HYUN Ji Hong 현지홍	Council Membe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91
HYUN Seung-soo 현승수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63
IN Hojin 인호진	Artist (SWEET SORROW) 아티스트 (스윗소로우)	89
ISHII Yurika 이시이 유리카	Associate Professor, National Defense Academy of Japan 일본 방위대학교 준교수	100
JANG Cheol-wun 장철운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75

SPEAKERS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JANG Namjun 장남준	Senior Managing Director,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한국벤처투자 본부장	94
JANG Soojin 장수진	Director, Marine Animal Research and Conservation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대표	72
JEE Hye won 지혜원	Director 영화감독	89
JEON Chang Bae 전창배	Chairman, International Assosiation For AI and Ethics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93
JEONG Eun Mee 정은미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47
JIN Hee Jong 진희중	Lecturer,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강사	72
JO Daeshik 조대식	Secretary-General,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62
JO Hee-kyung 조희경	President,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대표	88
JO Yanghyeon 조양현	Head of Center for Japanese Studie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책임교수	74
JU Min-uk 주민욱	Adjunc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Management at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겸임교수	51
Joseph JUHN 전후석	Director, Disapora Film Production 디아스포라 필름 감독	85
JUN Bong-geun 전봉근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국립외교원 교수	47
JUN Yongwook 전용욱	Vice President, Cheju Halla University 제주한라대학교 부총장	90
JUNG Dae-Jin 정대진	Professor, Halla University 원주한라대학교 교수	51
JUNG Haeil 정해일	President,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국방대학교 총장	60
JUNG Mina 정미나	GR Lead, Daangnmarket 당근마켓 실장	94
JUNG Sung Chul 정성철	Associate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명지대학교 부교수	63
JUNG Yoosuk 정유석	Research Fellow, Industrial Bank of Korea IBK기업은행 연구위원	71
KANEHARA Nobukatsu 가네하라 노부카쓰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도시샤대학 교수	57
KANG Chang-il 강창일	Former Ambassador of the ROK to Japan 전 주일본 대한민국대사	41
KANG Ho Sang 강호상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교수	65
KANG Hye Myung 강혜명	Artistic Director of Opera Aunt Suni, Opera Singer of DM Artist management in Italy 이탈리아 DM 매니저먼트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예술총감독	66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KANG Hyung Won 강형원	Columnist, Visual History of Korea 찬란한 우리문화유산 컬럼니스트	85
KANG Kun Hyung 강근형	Professor Emeritus,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43
KANG Min-Jo 강민조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71
KANG Mun Su 강문수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6,65
KANG Suk Bong 강석봉	Direct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 과장	91
Pasi KARJALAINEN 파지 카르야라이넨	Professor, 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동부핀란드대학교 교수	68
KASUGAI Moe 가스가이 모에	CEO, KOREC Bwell Korea 코렉 비웰코리아 CEO	40
Rouslan KATS 루슬란 카츠	Counsellor(Political/Economic), Embassy of Canada to the ROK 주한 캐나다대사관 참사관(정치경제공보)	60
KIM Bo Kyung 김보경	BK Assistan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38
KIM Bong-hyun 김봉현	Advisor to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Former Ambassador of the ROK to Australia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자문/전 주호주 대한민국대사	36
KIM Byong-Joon 김병준	Chairman, Special Committe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t 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ssion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73
KIM Byoung Joo 김병주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대한민국 국회의원	55
KIM Byoung Joo 김병주	Visiting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96
KIM Chang-beom 김창범	Advisor, Center for Strategic and Cultural Studies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	70,84
KIM Cheolhwan 김철환	Sign language Interpreter, Guro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enter 구로구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사	35
KIM Daeyoung 김대영	Undergraduate Student,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학부생	33
KIM Dohhui 김도희	Chairperson of the Animal Rights Subcommittee,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장	72
KIM Dongbum 김동범	Secretary General, Korea Differently Abled Faderation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91
KIM Donghyun 김동현	Head Director, The Jeju People's Artist Federation 사단법인 제주민예총 이사장	66
KIM Eun Kyung 김은경	Assistan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	46
KIM Hackyong 김학용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대한민국 국회의원	26
KIM Hanjung 김한정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대한민국 국회의원	26

SPEAKERS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KIM Hee-hyon 김희현	Vice Governor for Political Affair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 정부부지사	35
KIM Ho 김호	H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76
KIM Hyeoun 김효은	Ambassador and Deputy Minister for Climate Chang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58,62
KIM Hyukjoo 김혁주	CEO, Belocal Inc. 비로컬주식회사 대표	98
KIM Hyungsoo 김형수	Team Leader, KT Corp. KT 팀장	64
KIM Hyunji 김현지	General Manager,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KARA) 동물권행동 카라 실장	88
KIM Il Yong 김일용	Executive Director, Korea Peace Economy Forum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상임이사	32
KIM Inhan 김인한	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24
KIM Jae-Gu 김재구	Commissioner, Special Committe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t 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ssion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73
KIM Jaekeun 김재근	Professor, Mejiro University 메지로대학교 교수	91
KIM Jang Hyun 김장현	Director General for African and Middle Easter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28
KIM Jeongho 김정호	Veterinarian, Cheongju Zoo 청주동물원 수의사	88
KIM Jin-Ha 김진하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7
KIM Jonghwa 김종화	Professor, Cheju Halla University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68
KIM Jonghyun 김종현	Head of Center, Jeju Youth Job Center 제주더큰내일센터 센터장	94
KIM Junghoon 김정훈	Vice chairman, Committee for Cultural Cooperat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도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98
KIM Jungwoo 김정우	General Manager, The Korea Economy Magazine 한국경제매거진 차장	95
KIM Kapsik 김갑식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5
KIM Kyung Mee 김경미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송실대학교 교수	91
KIM Kyung Hak 김경학	Chairpers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22
KIM Min Hwan 김민환	Associate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한신대학교 부교수	29
KIM Sang Ki 김상기	Director of Unification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75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KIM Sang-Hyup 김상협	Chairperson, 2050 Carbon Neutrality Commission / Former President, Jeju Research Institute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 전 제주연구원 원장	67
KIM Seokho 김석호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교수	97
KIM Seunghwan 김승환	Professor,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96
KIM Sihong 김시홍	Professor, Director and De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소장, 학장	84
KIM So Young 김소영	Professor,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96
KIM Soojung 김수정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51
KIM Sook 김숙	Executive Director of Ban Ki-moon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 Former Ambassador of the ROK to the UN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상임이사 / 전 주UN 대한민국대사	56
KIM Soom 김숨	Novelist 작가	66
Spencer KIM 스펜서 김	Co-founder, Pacific Century Institute 태평양세기연구소 공동창립자	45
KIM Sung Gon 김성곤	President of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54
KIM Sung Gyu 김성규	President,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60,65
KIM Sung-Hwan 김성환	Chairman of East Asia Foundation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70
KIM Sura 김수라	Director, International Security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국제안보과장	100
KIM Tae Gwan 김태관	Expert Advisor, Jeju International Wind Ensembl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공연기획 전문가	98
KIM Tae Kun 김태건	Director, National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Green Technology Center 녹색기술센터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장	93
KIM Taehwan 김태환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국립외교원 교수	34,87
KIM Taeyoon 김태윤	Under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학부생	33
KIM Weon-jin 김원진	Senior Adviser of the Center for Japanese Studie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	74
KIM Young Ho 김영호	Professo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국방대학교 교수	60
KIM Youngah 김영아	Executive Director, Migration to Asia Peace(MAP)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대표	102
KIM Younghee 김영희	Chief Editorial Writer, The Hankyoreh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97
KIM Youngwan 김영완	Professor, Sogang University 서강대학교 교수	38

SPEAKERS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KIM Youngwoo 김영우	Artist (SWEET SORROW) 아티스트 (스윗소로우)	89
KIM Younkyyoo 김연규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교수	58
Kathleen KINGSBURY 캐슬린 킹스베리	Deputy Editorial Page Editor, The New York Times 뉴욕 타임즈 사설란 부편집장	42
Kevin KNODELL 케빈 노델	Reporter, Honolulu Star-Advertiser 호놀룰루 스타-애드버타이저 기자	42
KO Hee-bum 고희범	Chairman, Jeju 4·3 Peace Foundation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41
KO Ka Young 고가영	HK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76
KO Kyungmin 고경민	Head, International Peace Center Jeju 제주국제평화센터 센터장	48
KO Seong Joon 고성준	Director, Jeju Institute for Korean Unification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원장	43,51
KO Young-in 고영인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대한민국 국회의원	35
Susan KOCH 수잔 코크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The Center for the Stud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국방대학교 대량살상무기연구센터 선임연구원	56
Stefanos KOLLIAS 스테파노스 콜리아스	Professor, National Technical University of Athens 아테네국립공과대학교 교수	68
KOO Gi Yeon 구기연	HK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76
Florian KRAMPE 플로리안 크램프	Director of the Climate Change and Risk Programm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기후변화 / 위기 프로그램 책임 선임연구원	92
KWAK Busung 곽부성	Vietnam Country Director, Saemaul Foundation 새마을재단 베트남사무소장	44
KWAK Jingyu 곽진규	General Direct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단장	94
KWON Goosoon 권구순	Professor, Seoul Cyber University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60
KWON Heonik 권현익	HK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76
KWON Ki-chang 권기창	Former Ambassador to Ukraine,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한국외교협회 회원	50
Miguel LA PLANTE-PEREZ 미겔 라 플란테 페레즈	Deputy Head of Mission, Embassy of Switzerland to the ROK 주한스위스대사관 부대사	60
Lars LARSEN 라스 라슨	Head of Group, German Aerospace Center 독일우주항공센터 그룹장	68
LEE Bom Yon 이범연	Vice Chairman,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50
LEE Byongtaek 이병택	Director of Foreign Relations and Historical Reconciliatio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소장	82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LEE Chung Min 이정민	Professor, Institute of Security Convergence, KAIST 카이스트 융합연구원 교수	34
LEE Gaemyoung 이개명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 Chief Director, Carbon Free Island Jeju 제주대학교 교수 / (사)카본프리 아일랜드 이사장	93
LEE Gee-dong 이기동	Chief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75
LEE Geun 이근	President, 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34
LEE Geunwook 이근욱	Professor, Sogang University 서강대학교 교수	56
LEE Gwangjun 이광준	Director, Seogwipo City Center for Cities of Culture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센터장	98
LEE Hee Soo 이희수	Emeritus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28
LEE Hyunjae 이현재	Director of Public Policy, Woowa Brothers 우아한형제들 이사	94
LEE Il 이일	Attorney at Law,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공익법센터어필 변호사	102
LEE In-ho 이인호	Professor,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39
LEE Insung 이인성	Climate and Energy Project Manager, Greenpeace East Asia Seoul office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프로젝트 매니저	39
LEE Jae Jun 이재준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65
LEE Jae Young	Yenching Scholar, Peking University	37
LEE Jae-Jung 이재정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Vice-Chairperson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대한민국 국회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58
LEE Jason 이재승	Director, KAKAO Corp. 주식회사 카카오 이사	95
LEE Jinwoo 이진우	PJ Designer, Space Group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차장	32
LEE Jingyoung 이진영	Assistant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조교수	38
LEE Joongyu 이준규	Chairman,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한국외교협회 회장	26,50
LEE Jun-woo 이준우	Professor, Kangnam University 강남대학교 교수	35
LEE Ki-Wu 이기우	Commissioner, Special Committe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t 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ssion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73
LEE Kyoungjoo 이경주	Director,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부장	58
LEE Kyu Bae 이규배	Chairman of the Board, Jeju4·3 Research Institute 제주4·3연구소 이사장	29
LEE Kyu Chang 이규창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1

SPEAKERS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LEE Kyung-mi 이경미	CEO, Cyphics 사이픽스 대표이사	39
LEE Moo Chul 이무철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75
LEE Moorok 이무록	Direct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팀장	94
LEE Saegil 이새길	Communications Associate, UNHCR Represen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보지원담당관	102
LEE Sang-hwa 이상화	Ambassador and Deputy Minister for Public Diploma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35,54
LEE Sanghyun 이상현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명지대학교 교수	32
LEE Sang-hyun 이상현	Visiting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위촉연구위원	51
LEE Sang-Ryool 이상률	President,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67
LEE Sang-Woo 이상우	Strategic Planning TF Director, Saemaul Foundation 새마을재단 전략기획TF 부장	44
LEE Seo-Hang 이서항	Vice Chairman,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50
LEE Seohyeon 이서현	Student,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학생	101
LEE Seoksu 이석수	Head of Western Headquarter, Maeil Shinmun 매일신문 서부분부장	44
LEE Seong-ho 이성호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교수	39
LEE Seung-a 이승아	Chief, Culture, Tourism, and Sports Committe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66
LEE Shin-wha 이신화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 KACUNS President /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한국유엔체제학회장 / 고려대 교수	24,65,69
LEE Suk-Won 이석원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49
LEE Taesik 이태식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The next president,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한양대학교 특훈교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회장	67
LEE Takgon 이탁건	Associate Legal Officer, UNHCR Korea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92
LEE Tong-q 이동규	Director-Genera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64
LEE Wang Hwi 이왕희	Professor, Ajou University 아주대학교 교수	34
LEE Won Deog 이원덕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국민대학교 교수	82
LEE Woo Young 이우영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75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LEE Wook Yon 이욱연	Professor, Sogang University 서강대학교 교수	33
LEE Wootae 이우태	Director of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71
LEE Yang Goo 이양구	Former Ambassador to Ukraine,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한국외교협회 회원	50
LEE Yanghee 이양희	Chairperson,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62
LEE Youn Soo 이연수	Director General, Climate Crisis & Pandemic Response Department,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기후감염병위기대응실장	58
LEE Young Ho 이영호	President,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82
LEE Young Joon 이영준	Professor, Cheju Halla University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90
LEE Yujin 이유진	Co-representative, Local Energy Transition Network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93
LEE Yun-young 이윤영	Vice President,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38
Thomas LEMBONG 토마스 렘봉	Director, Consilience Policy / Former Trade Minister of Indonesia 컨실리언스폴리시 대표 / 전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70
LI Jingjing	Reporter,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37
LIM Dae Woong 임대웅	CEO, BNZ Partners BNZ파트너스 대표이사	86
LIM Haeyong 임해용	Director of Research Department,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22,24,36
LIM Kang Taeg 임강택	Executive Director, Korea Economic Cooperation Institute 한반도경제협력원 상임이사	32
LIM Sungnam 임성남	Former 1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OK 전 외교부 제1차관	45
LIM Yun Suk 임연숙	Seoul Bureau Chief, Channel News Asia 채널 뉴스아시아 서울지국장	83
LIU Charles Yangsheng 류양성	Senior Fellow, Taihe Institute 타이허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80
Josue LOPEZ 호수에 로페즈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학생	101
LU Rui 루 루이	Correspondent, Xinhua News Agency Seoul Bureau 신화통신 서울지국 특파원	40
Emily Christine LUNZ 에밀리 룬즈	Senior Writer, CNN International CNN 인터내셔널 선임기자	42
LYEO Woon-ki 여운기	President, The Korea-Africa Foundation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99
MA Sang Yoon 마상윤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가톨릭대학교 교수	27

SPEAKERS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MA Youngsam 마영삼	Secretary-General, Korea-Arab Society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사무총장	28
Vanny MALAPIN 완니 마라뵈	Student, Silla University 신라대학교 학생	101
MAO Dong	Stand-up Comedian	37
Tamara MAWHINNEY 타마라 마위니	Chargé d'affaires a.i., Embassy of Canada to the ROK 주한 캐나다대사관 대사대리	55
Patrick MEEHAN 패트릭 미한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SOAS University of London SOAS 런던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38
Yossi MEKELBERG	Associated Fellow, Chatham House and Roehampton University	77
MICHISHITA Narushige 미치시타 나루시게	Vice President / Professor,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학장 / 교수	63
Linda G. MILLS 린다 밀스	Vice Chancellor, New York University 뉴욕대학교 부총장	64
MIN Moo Suk 민무속	President,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97
MIN Tae Eun 민태은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63
Alberto MONDI 알베르토 몬디	Broadcaster 방송인	89
MOON Chung-in 문정인	Chairman of the Sejong Institute 세종연구소 이사장	59
Jennifer MOON	Editor-in-Chief, Arirang TV	37
MOON Kyungyon 문경연	Associate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부교수	92
MOON Sangwon 문상원	Director General of Department of Southeast Asia II,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동남아2실장	44
MUN Gyong Su 문경수	Professor Emeritus, Ritsumeikan University 리츠메이칸대학 명예교수	29
NA Yong Woo 나용우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71
Malike NAIBI	CEO & Influencer, Lime Education	37
NAKANO Toshio 나카노 토시오	Professor Emeritus,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도쿄외국어대학 명예교수	29
NAKASONE Yasutaka 나카소네 야스타카	House of Representatives,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일본 중의원 의원	26
NAM Boo Won 남부원	General Secretary, Asia and Pacific Alliance of YMCAs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사무총장	43
NAM Chinyeol 남진열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교수	91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NAM Jeongho 남정호	Columnist, JoongAng Ilbo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69
NAM Jongyoung 남종영	Staff Writer, The Hankyoreh 한겨레 기자	72
NAM Sang Gu 남상구	Director-General,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재단 연구정책실장	82
NAM Seunghyun 남승현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국립외교원 부교수	100
Faridah NASSALI 파리다 나살리	Consultant,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컨설턴트	38
NING Jie 닝 지에	Program Officer,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담당관	40
Keisuke NISHIHARA	Instructor, Okinawa Sanshin Class	37
NISHINO Junya 니시노 준야	Professor, Keio University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	57
OH Jong Nam 오종남	President, Human Development Institute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61,86
OH Joon 오준	Board Chair, Save the Children Korea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	62
OH Junggun 오정근	Chief Secretary, Special Committe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t 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ssion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	73
OH Young Hun 오영훈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6,29,48
OKONOGI Masao 오코노기 마사오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59
OU Boqian 어우 보첸	Secretary-General,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40,49
Kenneth OYE 케네스 오이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	96
PAIK Wooyeal 백우열	Associate Professor,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부교수	24
Ravi Shankar PANDIT 라비 샹카르 판딿	Masters Student,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DI국제정책대학원 학생	101
Jonathan PANIKOFF	Director, Scowcroft Middle East Security Initiative, Atlantic Council	77
PARK Byonghwan 박병환	Former Minister in Russia,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한국외교협회 회원	50
PARK Chan-sik 박찬식	Chairman, Jeju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제주문화진흥재단 이사장	41
PARK Cheol-Hee 박철희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57,59
PARK Dong-chan 박동찬	Team Member, Horizon 청년사무국 지평선 팀원	85

SPEAKERS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PARK Haenam 박해남	HK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76
PARK Heung-Soon 박흥순	Professor, Sunmoon University 선문대학교 교수	69
PARK Hyeong-Jung 박형중	Distinguished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47
PARK Jiyong 박지영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y and Society 경제사회연구원 기술정책센터장	96
PARK Jong Heung 박종홍	Research Fellow,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64
PARK Joo Yeon 박주연	Attorney-at-law, Banghyang Law P.C. / Director, People for Non-human Rights 법무법인 방향 변호사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	88
PARK Jung Hyun 박정현	Student,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한경대학교 학생	101
PARK Jung Sook 박정숙	Secretary-General,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49
PARK Ki Gwan 박기관	Commissioner, Special Committee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t the 20th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ssion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73
PARK Kwangho 박광호	Professor, Halla University 원주한라대학교 교수	51
PARK Kyu-hwan 박규환	Professor, Youngsan University 영산대학교 교수	72
PARK Kyung-Ae 박경애	Profess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수	55
PARK Mi Sun 박미선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부교수	65
PARK Nohyoung 박노형	Professor,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0
PARK Sohee 박소희	Actor 배우	54
PARK SooJin 박수진	Dire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76
PARK Taehyun 박태현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2
PARK Won Gyu 박원규	Dea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학장	65
PIAO Gensong 박근송	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창원대학교 교수	32
Dmytro PONOMARENKO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Ambassador of Ukraine to the ROK 주한 우크라이나대사	48
Katharina PÖTTER 카타리나 포터	Lord Mayor of City of Osnabrueck 오스나브뤼크 시장	48
Ian PRANITA 이안 브라니타	Masters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학생	101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Isabel PRINZING 이자벨 프린징	Project Coordinator, Basel Peace Forum 바젤평화포럼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22
Chafik RACHAD 샤픽 하샤디	Ambassador of the Kingdom of Morocco to the ROK 주한 모로코대사	27,28
Roberta RAMIREZ RAMOS 로베르타 라미레스 라모스	Student,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학생	101
Tyler RASCH 타일러 라쉬	Artist, Clare J Creative 클레어제이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39
REN Yuan 임원	Professor,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at Fudan University 푸단대학교 사회발전공공정책원 교수	49
RHYU Sang-Young 류상영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80
Mason RICHEY 메이슨 리치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24
Wilfredo RUIN 윌프레도 프리나스 루인	Studen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학생	101
Debra RUSSELL 데브라 러셀	Honorary President, The World Association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 세계수어통역협회 명예회장	35
RYU Hakseok 류학석	Head,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팀장	58
RYU Ki Eun 유기은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연구원	36
Pier Luigi SACCO 피에르 루이지 사코	Senior Advisor,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석 자문관	98
SAHASHI Ryo 사하시 료	Associate Professor, The University of Tokyo 도쿄대학교 준교수	74
SAKATA Natsuko 사카타 나츠키	Deputy Secretary-General,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49
Daniel M. SANCHEZ 대니얼 마르퀴즈 산체스	Board of Director, Illan-Lael Foundation 일란라엘재단 이사	43
Valerii SAVOSTENKO 발레리 사보스텐코	Professor,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43
SAWAYAMA Ryosuke 사와야마 료스케	Program Officer,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담당관	40
Dagmar SCHMIDT TARTAGLI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Ambassador of Switzerland to the ROK 주한 스위스대사	23
Jeffrey SCHOTT 제프리 쇼트	Senior Fellow,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81
SEOK Junghoon 석정훈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32
Maimunah Mohd SHARIF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Executive Director, UN-Habitat 유엔 해비타트 사무총장	49
Shatabhisha SHETTY 샤타비샤 셰티	Executive Director,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 및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 사무총장	56

SPEAKERS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SHIM Kyu-Sun 심규선	Former Managing Editor, Dong-A Ilbo 동아일보 전 편집국장	57
SHIN Beomshik 신범식	Deputy Dire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부소장	76
SHIN Boonam 신부남	Vice President,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ROK 유엔한국협회 부회장	69
SHIN Eunhwa 신은화	Assistant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조교수	97
SHIN Kak-Soo 신각수	Advisor, SHIN & KIM LLC. 법무법인 세종 고문	57
SHIN Yoon 신동윤	CEO, Perigee 페리지 CEO	67
SHIN Youngsik 신용식	Director, Hallyu Content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장	98
Takahiro SHINYO 타카히로 신요	JACUNS President / Dean and Professor, Kwansai Gakuin University 일본유엔체제학회 회장 / 간세인가쿠인대학교 학장·교수	24
SHIOMURA Ayaka 시오무라 아야카	House of Councilors,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of Japan 일본 참의원 의원	26
Stephen SINGO 스티븐 싱고	Deputy Director, Security Reserch & Information Centre 안보 연구정보센터 부국장	38
Dan SMITH 댄 스미스	Director,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	22
Josh SMITH 조쉬 스미스	Foreign Correspondent, Reuters 로이터통신 서울특파원	83
Scott SNYDER 스콧 스나이더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국외교위원회 한국학 선임연구원	55
SO Jin Kwang 소진광	Professor, Gachon University 가천대학교 교수	44
SOEYA Yoshihide 소에야 요시히데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74
SOHN Jie-ae 손지애	Invite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45
SOHN Mi Na 손미나	Broadcaster 작가 / 인플루언서	89
SON Pyong-Il 손병일	Senior Consultant,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위원	99
SONG Soo Young 송수영	Lawyer, SHIN & KIM LLC.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95
SONG Woojin 송우진	Artist (SWEET SORROW) 아티스트 (스윗소로우)	89
SONG Young Hoon 송영훈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교수	65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SONU Sukho 선우석호	Chairman, Board of directors, KB Financial Group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90
D. Kathleen STEPHENS 캐슬린 스티븐스	Chair, Pacific Century Institute 태평양세기연구소 소장	45
SUH Chung Ha 서정하	Vice Chairman, Kor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한국외교협회 부회장	27,50
SUH Yong Joo 서용주	Director for Western Europ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서유럽과장	84
Olena SYDORCHUK 올레나 시돌쭈크	Model, Actress, The Fellowship 더펠로우십 코리아 방송인, 영화배우	66
TAKEDA Ryota 다케다 료타	House of Representatives,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일본 중의원 의원	26
TANG Shengyao 탕 쉹야오	Representative, FAO Partnership and Liaison Office in the ROK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 소장	65
Todd TERHUNE 타드 터훈	Associate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영남대학교 부교수	44
Heavendran THAMIL SELVAN 헤븐드란 타밀 셀븐	Student,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학생	101
Brittany Radelle TOM 브리타니 톰	Field Producer, NBC News NBC 뉴스 현장 프로듀서	42
Akiva TOR 아키바 토르	Ambassador of Israel to the ROK 주한 이스라엘대사	27
Mahamadou TOUNKARA 마하마두 툰카라	Director,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실장	58
Philip TURNER 필립 터너	Ambassador of New Zealand to the ROK 주한 뉴질랜드대사	27
URATA Shujiro 우라타 슈지로	Professor Emeritus, Waseda University 와세다 대학교 명예교수	81
Henrik URDAL 헨릭 우르달	Director,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소장	22
Vanessa USHIE 바네사 우시에	Acting Director, African Natural Resources Centre of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천연자원센터 센터장	99
Egon L. VAN DEN BROEK 에곤 판덴브렉	Professor, Utrecht University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 교수	68
Maria Eugenia VILLARREAL 마리아 유지니아 비아레알	International Steering Group Member,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핵무기폐기국제운동 운영위원	23
WADA Haruki 와다 하루키	Professor Emeritus, The University of Tokyo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82
WANG Guan	Host/Senior Correspondent,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37
WANG Huiyao	Founder & President,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37
Jay WANG 제이 왕	Director, USC Center on Public Diplomacy USC 공공외교센터 소장	87


SPEAKERS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WANG Junsheng 왕진성	Director / Professor,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중국사회과학원 실장 / 교수	47
WANG Yiwei 왕이웨이	Professor, Renmin University of China 중국인민대학 교수	87
WATANABE Yasushi 와타나베 야스시	Professor, Keio University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	87
WATANABE Yorizumi 와타나베 요리즈미	Dean, Kansai University of International Studies 일본칸사이국제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학부 학부장	90
Wilson L. WHITE 윌슨 화이트	Vice President, Google 구글 부사장	61
Tomasz WIERZBOWSKI 토마스 비에지보프스키	Adjunct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객원강의교수	71
Jon WOLFSTHAL 존 울프스탈	Senior Adviser, Global Zero 글로벌제로 선임고문	56
WOO Jung-Yeop 우정엽	Senior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36
Yuen Pau WOO 유엔 파우 우	Senator, Parliament of Canada 캐나다 의회 상원의원	55
XIE Juanjuan 사연연	Professor, Nankai University 중국난카이대학교 교수	90
XU Qinduo	Host,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37
YANG Inja 양인자	Secretary General,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Saemaul Center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처장	44
YANG Jo-hoon 양조훈	Former Chairman, Jeju 4·3 Peace Foundation 제주4·3평화재단 전 이사장	41
YANG Youngchul 양영철	Chairma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94
YI Ilcheong 이일청	Senior Research Coordinator,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선임연구조정관	38
YI Yongwoo 이용우	Under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학부생	33
YOO Hee Suk 유희석	Vice President, SK Forest SK임업 상무	58
YOO Joonkoo 유준구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96,100
YOO Myung-hee 유명희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70
YOO Wonsun 유원선	Assistant Manager, Korean Re 코리아리제보험 대리	40
YOON Chongho 윤종호	EVP&CTO,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술혁신센터장	67
YOON Dae-yeong 윤대영	HK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76

Name	Position / Organization	Page
YOON Dong Han 윤동한	Chairman, Kolmar Korea 한국콜마 회장	86
YOON In-Jin 윤인진	Professor,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교수	85
YOON Suk Heun 윤석현	Former Governor,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감독원 전 원장	90
YOON Young-kwan 윤영관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55
YU Hyun-seok 유현석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교수	23
YU Xueshuo 우학석	Visiting Fellow, Han Peace Institute 한평정책연구소 방문연구원	51
YUN Hojung 윤호중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대한민국 국회의원	26
YUN Seong-deok 윤성덕	Deputy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96,99
ZHANG Tuosheng 장투오성	Senior Fellow, Chin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수석연구원	59
ZHANG Yunling 장원링	Director of the Academic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연구학부장	81
ZHENG Jiyong 정계영	Professor, Fudan University/Sejong Institute 중국 복단대학교/세종연구소 교수	75

SKIN CARE
CLEAN & VEGAN
from **JEJU ISLAND**
glowing skin routine best friend



 **THE PURE LOTUS**

THE PURE LOTUS
GLOWING SKIN ROUTINE BEST FRIEND

THE PURE LOTUS is a clean and vegan beauty cosmetic brand that contains highly effective antioxidant white lotus leaf as its main ingredient.

<https://www.thepurelotus.com>  @thepurelotus



2022 Best Beauty Buys Winner (Singapore)



2022 Beauty Insider Winner (Singapore)



2019-2021 Best of K-Beauty Awards (USA)



희망찬 제주를
응원합니다!

한라산



도민과 함께한 72년

제주도민과 함께 성장한 한라산소주가
희망찬 내일의 제주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청정 제주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민의 힘찬 응원으로
제주의 가치를 키워나가겠습니다.

#함께합니다_한라산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 위험을 높입니다.

잘 정리된
인사이트와
투자 포인트를
만나는
셀렘



한경BUSINESS

MONEY

hankyung JOB&JOY

한경ESG

1618

highteen jobjoy

한경 BIO Insight

한경MOOK

콘텐츠기획본부 (CP)

새로운
관점의 발견

제주삼다수와 함께
친환경 세상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연의 손길이 빚어낸
생명력이 가득한 물

제주 삼다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